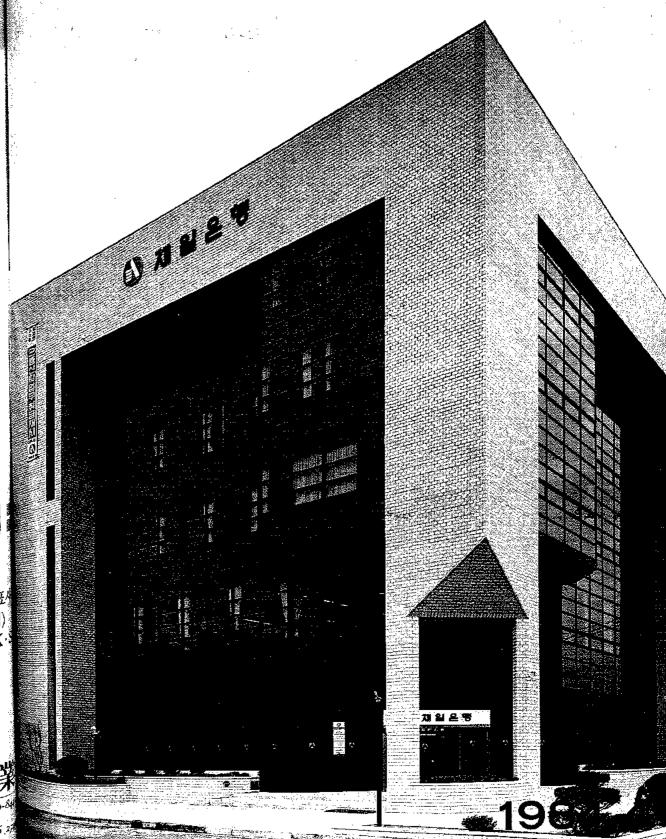
建築

大韓建築土協會誌 APRIL 1984,NO.181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품안내

›표시품)
›표시품)
크리트판(K·S표/
니, 무색, 무늬무색)
(보차도, 도로) K·
, 빗물받이
수형 멘홀뚜껑
'품제작

都産

무소/266-9735·269·8 부동/252-3862 공장/(1351) 2-7006 3

경기도 의정부시



■ 회원작품 카드 접수

- 별첨 요령에 의한 작품카드를 항상 접수합니다.
- ●접수된 작품은 회지에도 계재되고, 유관 단체(기관)의 건축상 추천자료가 됩니다.
- ▼자료실을 통해 영구 보존됩니다.〈작품카드 용지는 소속지부에서 별도 배부합니다.〉

■ 대화의 광장〈이야기 좀 합시다〉고정란 신설

- ●회원업무와 관련된 좋은일 나쁜일
- ●관계법과 연관된 각종 의견
- ●협회에 대한 의견
- ●건축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
-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 〈紙上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보다 발전적 인 길을 모색합시다. /원고길이:200자원고지 10매 정도〉

그밖에 원고도 부탁합니다.

- 각종 문예 원고(수상·꽁트 등)
- ►논문·차료 등〈테마에 제한 없옵니다.〉

□ 보낼곳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 강남구 서초동 457~3 (금강빌딩 4층) 想到7日以

건축사법 제33조 제 2 항 및 당 협회 정관 제 7 조 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분으로서 본 혐회

준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

은 아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면 준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읍니다.

H5 ₹C

● **접수기간 :** 수 시

- 자격기준: 건축사면허소지자(종전2 급 포함)
- 접수장소: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지부
- ◆ 제출서류

대한건축사협회

- 가. 입회원서1 매(당회 소정양식)
- 나. 준회원 카드2매(당회 소정양식)
- 다. 반명할판사진 2매와 증명사진 2 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 협회 종무부나 각 지부 총무과 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457~3 (금강발당 4 중) TEL: 584-0348, 4248, 1098, 9498, 9448

회원작품카드	전 좀 명 •	국힌문•		
		명 문•		
회원병•	설계자#	录 및 준·		
등록번호 ●		임 문•		
6-10-11	사무소명●	북한분=		
용류반호4		염 문•	•	
설계년도 =	주 용 도 •	_		<u>-/</u>
순 공 년도 •	규 오♥	데지면적◆		
건 중 주◆		건축면적 ▶		
소 제 지호		연면적•		
	l <u>.</u>	좀 수♦ 지러	중 / 지성	8
설계지 A간	구 조●			
	주요설비●			
건물사건 및 도현 (영도당부)	설계개요ㅎ		······································	
		_	<u> </u>	
		·		
		·		

建築士誌

통권 제 🗚 🕽 호

(O P)

분류번호

도서 번호

구입년월일

대한건축사협縣

建築士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4年4月15日発行

1984.4 NO.181

目次

發行人= 金枝泰

纁 輔一出版事業部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永熙

委 員 呂鴻九

委 員 李揆穆

員 姜鲢駅

委 員 朴炳善

委 員 李榮-

委 員 姜哲求

委 員 金琪藤

委员会贷

發 行=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457**-3 郵便番號= 135

電 語ー서울(02)584-0348, 4248,1098,9498,9448,6198,0338

登録番號-- 第3-1251

登錄日字= 1967年3月23日

 $\cup, \, \mathsf{D}, \, \mathsf{C}, \, 69/72 \, (054-2) \, \div \, 0612 \, \, (519)$

印刷 人灬申鑑泰

(洗文精版社/712-2329)



建築士憲章

- 这类量是 这种创作 要的人类公司 种种力量 数据每时 证据文明 钙过剂 可申申 移斗。
- यहर्ष्ट विराध संबंध देशदासम् वादिन व्यक्तिः भीनम् यहर्षात्रिके विदेश खेशवेनः
- ・ 建発士と 技術関係斗 建築物斗 其的 向上を 計小可 専門人と子母科 役争者 みむみ。
- 建築士子 交交件 信義等 바탕으로 合義 如至間刊 間四十十 3等時 異位者 保持利用。
- 建築計畫 有特殊 自有心者 外相之 有效指数率 电影响 期间 图象件 化含剂 放射的全层 原性遗科。

大韓建築士協會

建築士



표지설명 : 제일은행창원지점

4 ● 제일은행 창원지점

金基雄 - 건축설계연구소 상정

6 ◆ **서소문 KA L 빌딩** 洪英熙 - 주 · 신한엔지니어링

8● 점포주택

鄭求殷 - 삼예건축

10 · 주·세신실업 본사 및 공장

12● 국립경상대학교 학생 및 교수회관

黄一仁-종합환경연구소 일건

54● **학봉교회 / 계획작품** 金項碩 - 아름건축연구소

建築士 Piaza

2●論壞/제1회 임시총회 개회사 全文 "将来를 透視하는 毅然한 자세필요" - 金枝泰

15 ● 対話의広場「建築士有感 - 養哲求

31 ● 정화칼럼/歴史의 거울에 '모습'을 비춰보며……

28 ● 일하며 생각하며/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 全自浩

44 ● 感傷紀行2 - 金錫澈

50 ● 대한생명63층빌딩 - 全照春

56● 아시아의 도시팽창과 미래의 환경문제/IFLA홍콩대회를 마치고 - 全榮洙

編文 / 기타

36 ● 超에너지절약형 施設에 대한 試験成果 - 金-榮 日本, 大林組技術研究所 연구결과소개

82● 尊徳亭 - 김두현

連載

V 21 ●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 4-宋皎求

32● 인테리어디자인의 분류 / 주택의 창 : 5-趙聖烈

40 ● 伝統建築/韓国建築의 平面 - 金東賢

62●建築의 컴퓨터応用/CAD를 活用한 建築設計:7- 曹鐵鎬

海外作品 / ARCHITECTS' OFFICES

◆70~81

70● 建築設計事務所平임 / 6 選

70 ● 1 Design Consortium

72 • 2 Patty Berkebile Nelson Associates

74 • 3 Charles Sieger

76 • 4 EPR Associates

78 • 5 Design Consortium/Zuber

80 • 6 Powell/Kleinschmidt

16 ● 협회소식

59 ● 건축계뉴스

84 ● 자료(법개정 내용)

98 ● 회원동정

"將來를 透視하는 毅然한 자세 필요"

金 枝 泰/本協会 会長

오늘 84년도 제 I 회 臨時総会를 위해 遠路에도 불구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참 석해 주신 대외원 여러분과 함께 협회의 오늘과 내일을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해에 한두번씩 대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총회는 비단협취의 장래를 생각하는 자리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헤아리고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값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올들어 첫번째로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리로서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협회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다시한번 점심해서 부족한 점은 補填하고 미흡했던 사항에는 충실을 기해 보다 알찬 협회운영에 기여하고자 衆智를 모으는 자리라고 하겠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협회는 어느 한 개인의 험만으로 운영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며 소속되어 있는 회원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비로소 협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말니암아회원의 협회,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협회로 크게 육성발전되어 나갈 것이라 민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문 職能人으로서의 국가 사회적 사명을 충 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사회구성인 으로서, 또한 협회 회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바라 하겠으며 이것이, 곧 우리 스스로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의 捷径 이고 결과적으로 협회발전에 이바지하 는 길임을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늘날까지 건축계 주변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갖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그 채임의 일부가 건축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해서 항상 시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압니다. 물론 이같은 사례의 발단이 전적으로 우리 회원들의 잘못에서 바

롯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직도 일 부 건축사들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까 닭에서 연유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 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으로 부터 받지 않아도 될 간섭과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무엇보다 정의사회 구현에 정면으로 위배됨과 동시에 회원간의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고 이어져 음에따라 반목의 큰 요인으로 꼽혀오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통탄을 급할 수 없읍니다.

생각하면 우리에겐 이 나라의 건축문화를 지키고 暢達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옵니다. 때문에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해서 전체 건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보다 높은 안목으로 장래를 투사하는 毅然한 자세가 시급하다고 굳게 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통한 이해촉진과 보다 학구적인 자세로서 부단한 연구노력을 통한 실력 향상에 邁進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회원 여러분의 협회에서도 숙원사업이었던 신축회관 건립과 때를 같이 하여 협회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회원의 권익신장과 나아가 지위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전개에 박차를 가하고차 합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분협회 산하건축연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분약별 분과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회원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 이미 각분과별로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옵니다. 이는 실제로 화원설계업무에 응용될 수 있는 사항들로 결국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속의 한국건축을 뿌리박기 위해서는 눈을 밖으로 돌려 선진기술의 습득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최신정보 입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회원의 국제교류를 통한 폭넓은 안목이작품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어 협회차원에서 이를 공식 채널化 하기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사업은 年初부터 추진해온 박 (기) 있으나 제반 여건상 구체화 되지는 못하다가 지난 2월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초청으로 본인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고 우선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사 단체인 건축사회연합회와 공식관계물 맺기 위해 우리측은 "한일 건축기술협력촉진을 위한 합의각서" 교환을 제안해서 양국 단체간의 공식적인 유대강화의 길을 모색했으며 일본측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보아 정식으로 협약이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옵니다.

험회에서는 이를 제기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과의 공식적인 유대강화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와의 교류 모색에 힘을 기우려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회원을 위한 회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회원의 권의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거냥 한 것이며 時宜에 부용하고 보다 진취 적인 안목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로 본협회가 창립된지도 이언 열 아홉돐이 됩니다. 그동안 선배회원님들 의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협회가 우 리나라 건축계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임을 민 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들의 창립의지를 받들어 보다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명실공히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로 육성발전해 나가도록 도모하는 일 뿐입니다.

결국 협회의 발전이 회원 개개인의 발전이며 곧 이 시대 건축문화의 용성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건축사가 되도록 각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협회의 새로 운 장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가 원하면서 이반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會員作品

제일은행 창원지점

金基雄

건축설계연구소 삼정

서소문 KAL 빌딩

洪英熙

주 : 신한엔지니어링

점포주택

鄭求殷

삼예건축

주·세신실업본사 및 공장

安日成 극동설계사

국립경상대학교학생 및 교수회관

黄一仁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KOREA FIRST BANK CHANG-WON BRANCH

Kim, Kee Woung Sam Jung Architects, Engineers & Planners

KAL BUILDING

Hong, Young Hee Sin Han Engineering Co., Architects & Planner

◆SHOP & RESIDENCE

Choung, Koo Uen 3 Architecture & Interior

• SESHIN COMMERCIAL CO., LTD.

Ahn, Il Sung Kuck Dong Architects & Engineers

•STUDENT HALL, KYUNG SANG-NATIONAL UNIVERSITY

Hwang II-in

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 Il-K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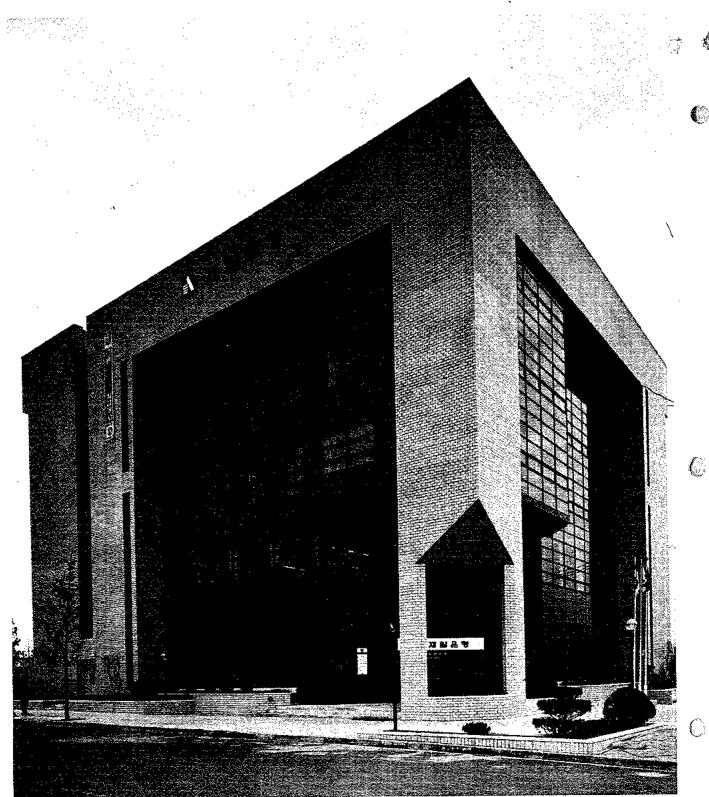
제일은행 창원지점 KOREA FIRST BANK CHANG-WON BRANCH

金 基 雄/건축설계연구소 삼정

Kim, Kee Woung / Sam Jung Architects. Engineers & Plan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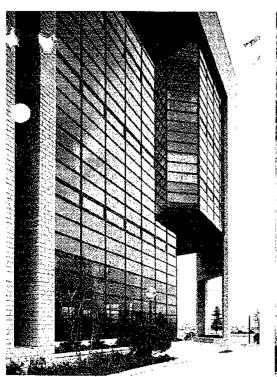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중심 상업지구 ● 대지면적 / 3 ,044 .63㎡ ● 건축면적 / 844 .75㎡ ● 연면적 / 2 ,999 .82㎡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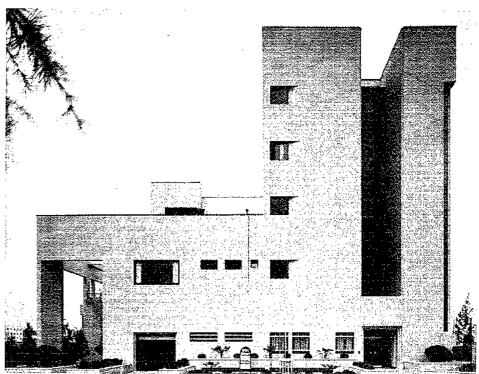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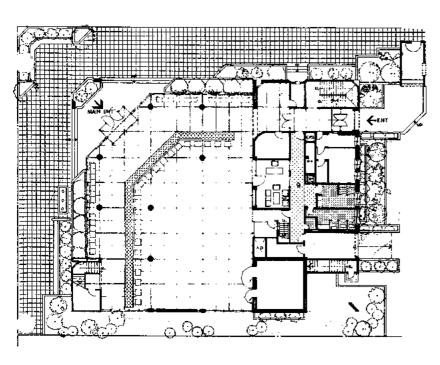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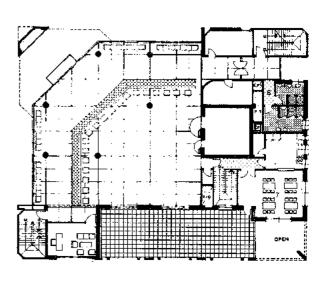
배치계획에서 장면 70m 광로와 창원시청 및 보타리를 의식하여 계획축을 설정하였으며 대지를 건물부분과 주차장·정구장의 3개 Zone으로 나누어 주차장을 대지 후면에 배치시킴으로써 보행자 동선과 자동차 동선을 분리하였다.

조형 및 외장계획에서는 창원시외 도시계획적 배경과 평활한 주위 대지외 도시적 스케일에 맞추어 건물의 전면을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주출입구 부분의 오픈 스페이스에 적극적으로 조경계획을 하여 전 면의 단순한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1 충평면도

2 충평면도

서소문 KAL빌딩 KAL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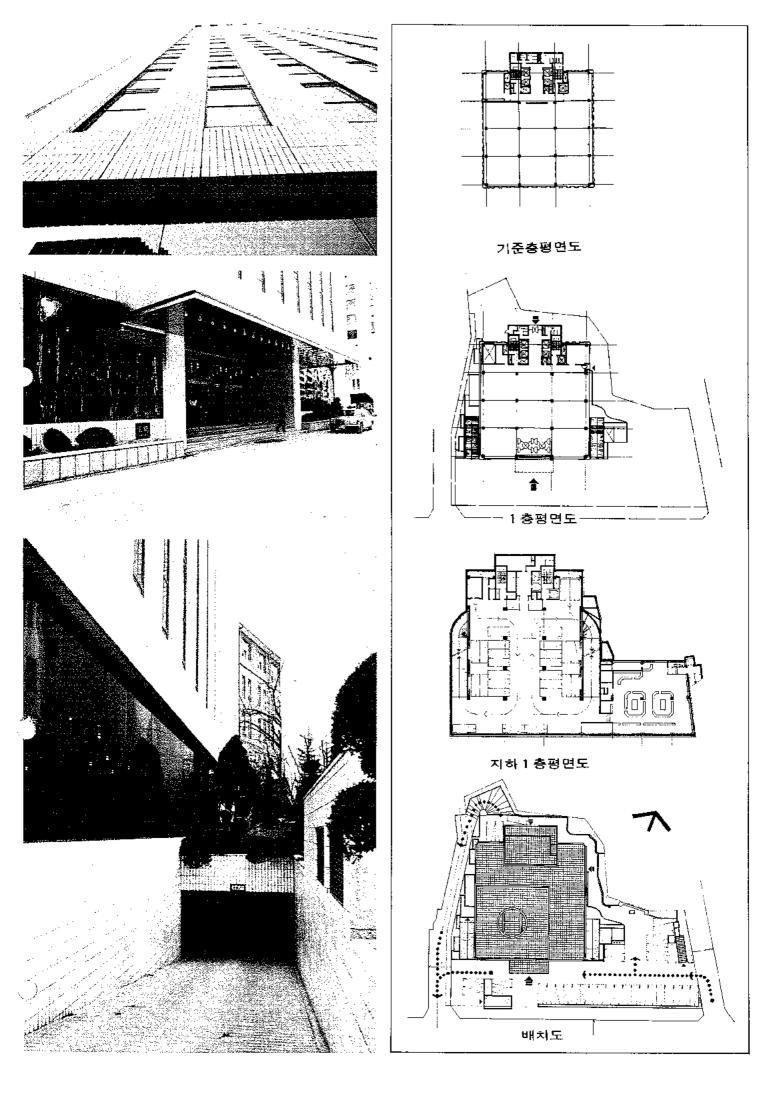
洪 英 熙/주·신한엔지니어링

Hong, Young Hee / Shin Han Engineering Co., Architects & Planner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통●대지면적 / 3,101.09㎡ ● 건축면적 / 1,238.99㎡ ● 연면적 / 28,293.68㎡ ● 규모 / 지하 4 층 • 지상16층







점포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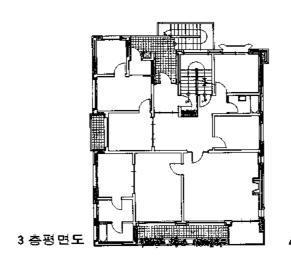
SHOP &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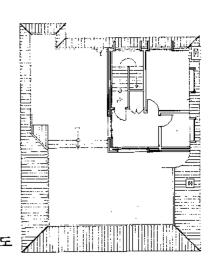
鄭 求 殷/삼예건축

Choung, Koo Uen / 3 Architecture & I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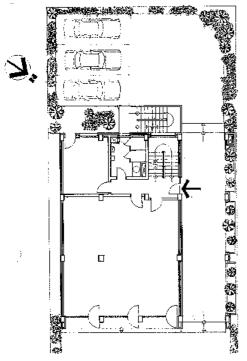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연회동 ● 대지면적 / 451.3m ๋ ● 건축면적 / 224.95m ๋ ● 연면적 / 868.6m ๋ ● 구조 / 철근콘크리토조 및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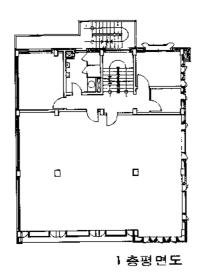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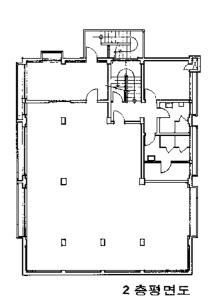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주·세신실업 본사 및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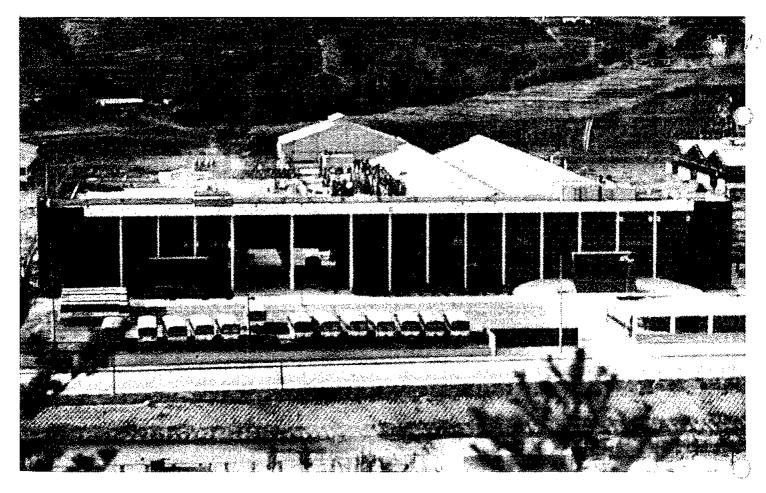
SESHIN COMMERCIAL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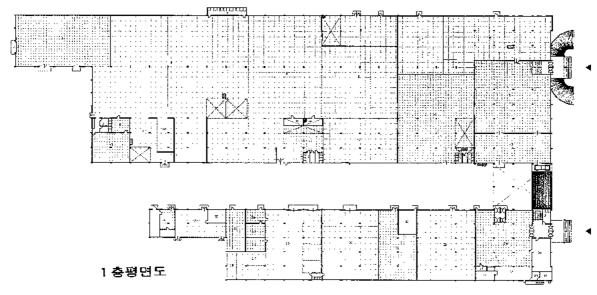
安 日 成/극동설계사

Ahn, II Sung / Kuck Dong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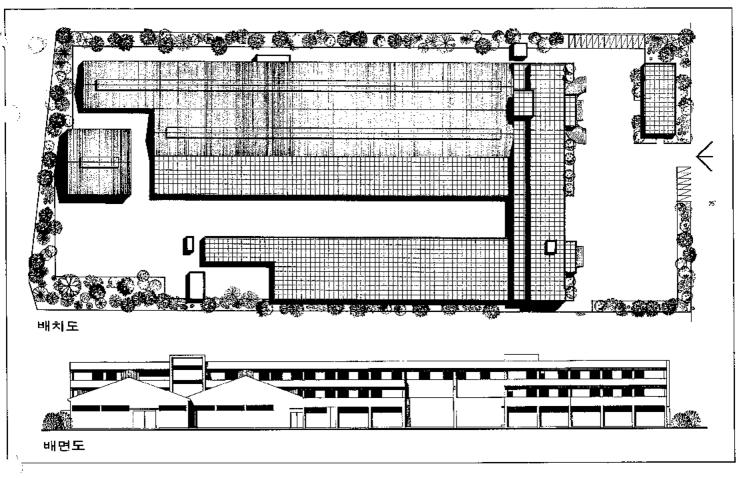
● 소재지 / 경남 양산군 양산읍 물금면 유산리 ● 대자면적 / 33, 897㎡ ● 건축면적 / 16, 906㎡ ● 연면적 / 22, 044㎡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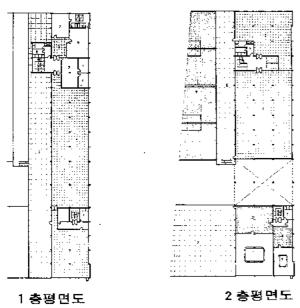






전면 오피스건물과 후면의 生産라인의 유기적 연결로서 관리 자와 생산자가 함께 용화되도록 건물의 양면성을 조화시켰다. 동양제일의 洋食器 공장으로서 시설과 건물의 외판을 살려 보았다.





국립경상대학교 학생 및 교수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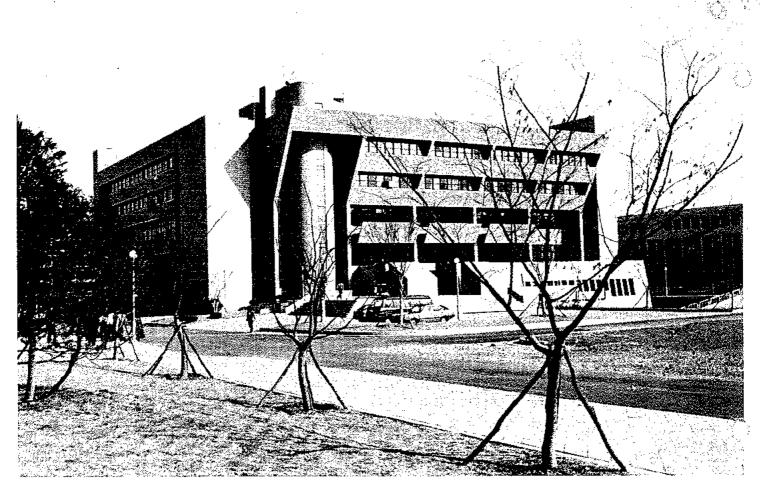
STUDENT HALL, KYUNG SANG-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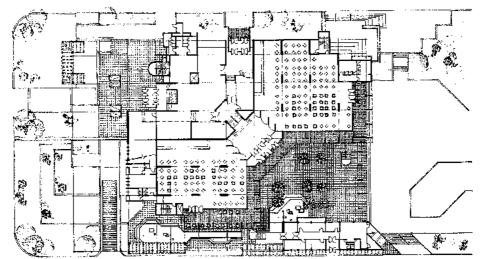
黄 - 仁/종합환경연구소 일건

Hwang II - in / 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 · II - K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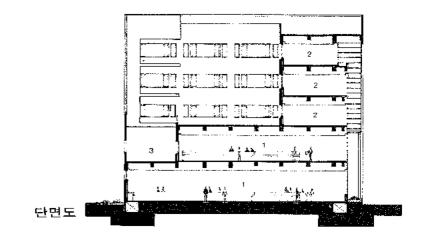
● 소재자 / 경남 진주시 가좌동 ● 건축면적 / 2,905.7㎡ ● 연면적 / 7,492.5㎡ ● 규모 / 지하 1 층 ◆ 지상 6 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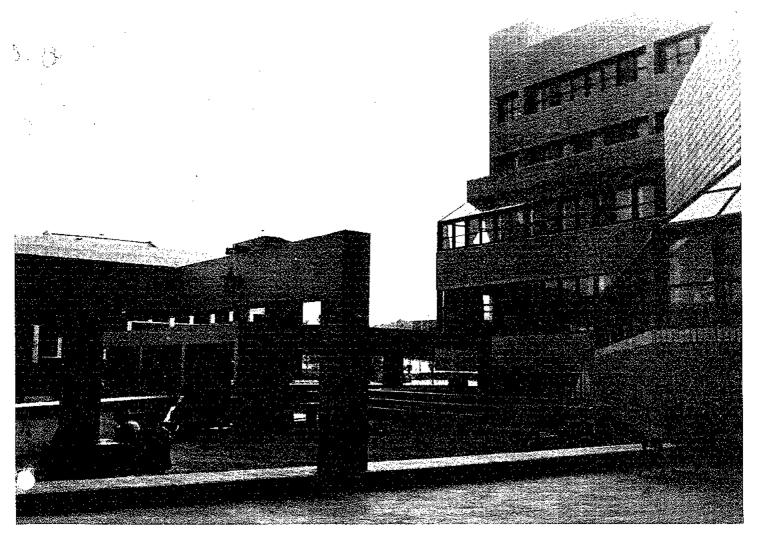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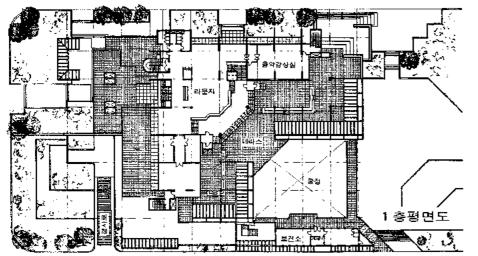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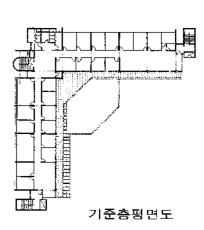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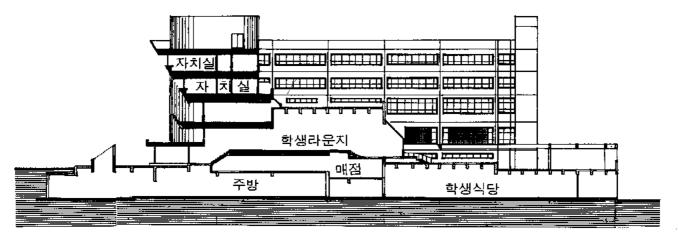
지하충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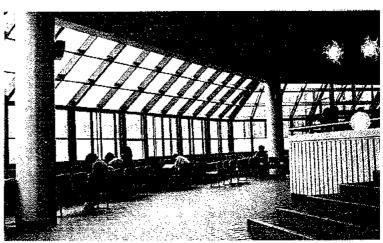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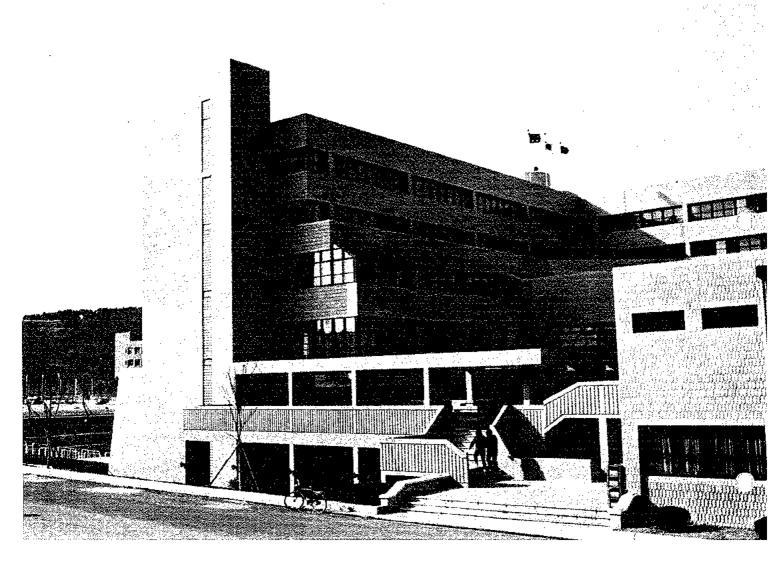




횡단면도







「建築士 有感」

姜 哲 求/동우건축설계사무소·소장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설계사(歌計士)란 용어를 쓰는 일이 있다. 일반적인 어휘구성에서 가기 다른 뜻을 갖는 두 가지 말을 合成하여 새로 달 단어를 만드는 것은 점점 정보량이 확장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필연적이겠으나 그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좀더 신중하여야겠으며 더구나 우리 작업에 관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에는 정확한 이해와 사용이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를 자·타가 부르는 정확한 용어는 「건축사」이다. 이 용어와 近似한 말로는 「설계사」, 「설계가」 (대백과사전에 이런 용어가 있다), 「설계자」, 「건축가」, 「설계기상」, 「설계기술자」 등등… 이 중에서도 아마「설계사」라는 말이 시중에서는 「건축사」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같다. 「설계사」의 어감은 「제도사」와비슷하여 기능적의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에 때로는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쉽다. 말이란 자주 쓰고 보면 그대로 정착되므로 잘못하면우리의 이름까지도 갈 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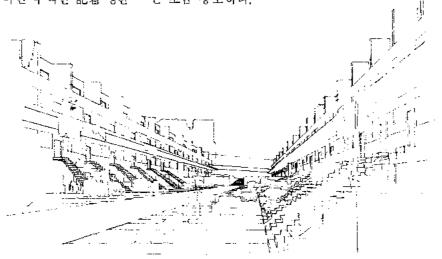
뭐 새롭게 비분강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무슨 현상설계에 어떤「설계사」가 당선되었다느니 하면 신경을 곧추 세워서「이런 무식한 記者 양반 들 같으니라구…」하며 개탄하기 일 쑤이다.

UDC(국제도서분류기호)나 KDC (한국도서분류기호)에 보면 건축에 관하여 큰 항목으로 建築工学과 建築 術로 분류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분 류에 상관없이 「ARCHITECT」로 한마디에 표현되지만 우리 나라에서 는 工学이냐 術이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 工学 쪽이 강할 경우에는 「設計 士」,術쪽이 강할 경우에는 「建築家」 라고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 쪽에 치우침이 없는 우리로서는「建 築士」라는 말이 算術平均的인 合成語 로서 훌륭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런 데 이런 용어를 두고 왜 「설계사」라 는 말이 많이 쓰이는지 - . 결국은 인식부족으로 돌릴 수 밖에 없지만, 많은 건축물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일 반인에게는 「建築士」라는 말이 아직 도 생소하게 들리므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법조계에서 는 판ㆍ검사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서 로를 「영감」이라 부르고 변호사들은 「아무개변호사」라고 뒷켠에 자기들의 직업명을 붙이며, 博士는 꼭 이름과 같이 따라다니니 자연히 선전되는데 우리는 「ㅇㅇㅇ건축사」라고 하기에 는 조급 생소하다.

그러나 자꾸 쓰다보면 금방 익혀질 것이므로 앞으로는 상호존칭에 포함 하여「×건축사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우스개 소리에「専門職業으로 는 建築土가 웃으며 돈 번다」라는 말 이 있다. 의사는 몸의 어디가 불편해 서 찡그리고 찾아오는 환자를 상대하 며, 변호사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만 찾아가는데, 건축사에게는 돈 벌 어 어떻게 하면 근사한 집을 짓는가 하고 싱글벙글하는 사람만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 웃으며 돈번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돈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법정 설계비 이상으로 받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이래서 세상은 공 평한 것인지 모르겠다.

요즈음 세상에「사」자가 붙은 직업이 많이 나도는데 이것도 경계할 일이다. 잘못하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 평가되기 쉽기 때문이다. 稅務士,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공인중개사, 영양사, 운전사…

어떻게 하면 고고하게 진흙창에 흙 안묻히고 살아 갈 수 있을까. 아마도 해결책이 전혀 없을 것같다. 그냥「建 築士」로 있게 될 뿐이다.





제 1회 臨時総会 개최

淨化決意大会도 겸해



84년도 제 1 회 임시총회가 지난달 27일 경남 부곡관광호텔 대회의실에 서 열렸다.

金枝泰희장 주제로 이날 상오 10시 부터 시작된 임시총회에는 재직 대의 원 1백21명중 89명의 대의원이 참석 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정화결의대회를 검한 이날 총회에서 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육성 발전의 첩정은 회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할 때가능하며, 그길만이 회원의 사회적 지위와 권역 항상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논의되어 온 건축계부조리도 결국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까 닭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金회장은 이어서 협회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보다 굳건한 협회발전을 통한 회원 각자의 성장을 꾀하기 위해 "장래를 투시하는 안목을 갖추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학구적인 연구자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회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회도 눈을 밖으로 들려 보다 폭넓은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기 위해 국세교류를 통한 새기술 새정보로 세계 속의 한국건축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어서 이번 임시총회를 위해 특별 히 참석한 이규효경남지사의 직려사 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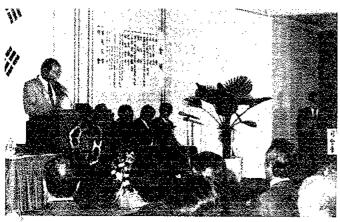
이규효정남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이 그동안 전문건축인 들의 노력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음"을 작적하고 "그러나 세데가 바뀜에 따라 보다 새로운 새시대의 건축문화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효경남지사는 이리한 점에서 "건축 부조리는 사회정화적 차원에서도 적 결돼야 하며 건전한 풍도 위에서 한 축한국의 성숙성을 지향할 때만이 새로운 건축문화가 꽃뵘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서 회순에 따라 제18회 정기총 회 회의록에 대한 승인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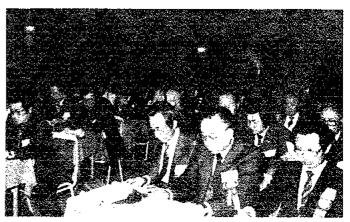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정기총회 이후 3월현재까지 협회가 수행한 업무 중 8.한 사항에 대한 보고로서 모두 27개항에 달하는 업무내용이 보고되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감사보고가 진행되었다. 지난 2월13일부터 3월22일까지 본부를 비롯 13개 시도지부를 대상으로 朴弘雨감사와 李春相감사가실시한 감사내용이 보고 되었다.

정리사항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나누어 보고된 이번 감사의 총평에서 "이빈 감사는 지난 정기총회를 대비한 감사시에 지적된사항의시정여부와 제반업무에 대한 확인지도 감사를 통한 직원의 근무자세 확립과 책임외식 촉진을 위한 감사"였음을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①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며 ②사무처의 행정질서와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으나 ③ 아직도 부문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어 좀더



그 격려사를 하는 이규효경남지사



□ 회의중인 대의원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가 요망된다고 지직 보고했다.

이어서 부의안건처리에 들어갔다. 83년도 수지결산승인을 위한 첫번 째 의안은 지난해 결산안(약17억 2 천 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두번째 의안으로 84년도 제 1 차 일 반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이 상정 되었다.

의안처리를 위한 질의답변과 대체 토론을 거쳐 상정원인대로 승인되었다. 다만 회비세입항에서 실적회비산 출기준공사비인상조정에 따른 실직회 비장수율인하건은 보류키로 하고 현 행대로 집행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회관건립에 따른 금년도 제 1 차 특별 회계추가경정수지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약 2 억 8 천 4 백만원) 대로 승인 되었다.

이어서 네번째 의안인 정관 개정의 건은 차기총회에서 심의키로 하고 기 타사항 처리로 넘어갔다.

기타사항에서는 제도개선과 건의 사항에 대한 참석 대의원들의 의견개 잔이 있었다. 이날 개진된 주요의견 으로는 건축사보제도에 대한 효율적 인 운영방안 모색과 임원취임에 따른 현행의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전 환하는 방안강구, 그리고 건축부조리 정화작업에 이은 대용해 강구, 협회 및 회원업무와 건축전반에 대한 대민홍보활동전개 촉구, 아울러 회원업무와 관련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강화에 따른 회원보호체 강구 등이 논의되었다.

또 경북지부대의원이 공동채택한 회 원행정처벌에 따른 전의사항은 집행 부에서 최종 검도처리키로 하고 이탈 임시총회를 끝마쳤다.

한편 임시총회에 앞서 참석대의원 들은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참조)

제 4 회 理事会 열어

울들어 네번째 이사회가 지난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金枝蘂회장 주재 로 오후 2 시부터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모두 9개에 달하는 의안이 상정처리되었으며 이 보다 앞서 전회회의록승인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사회에서 상정된 주요안건으로는 84년도 건축사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비 결정과 사업비에산목간전용, 복무규정을 비롯한 인사규정, 보수규 정, 휴·페업에 관한 규정, 경조비 지급규정 등 제규정개정안, 그리고 건축물조사감성업무규정안 승인, 회



관 입대차계약서안 결정, 유공공무원 에 대한 감사패수여의 건 등과 기타 사항이 상정 처리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상정 처리된 안건 가운데 예산목간전용건과 제규정 개 정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건축 물의 조사감정업부 규정안은 축조 심 의를 거쳐 조항 및 자구수정 후 승인 되었다. 이 규정은 건축불의 조사감정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권위있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 된 것으로 모두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6월1 일 부터 시행케 된다.

한편 주요입무보고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계최했던 급년도 제1회 임시총 회 개최결과를 비롯해서 84년도 건축

決 意 文

우리 建築士는 正義社會具現을 위한 建設의 役軍으로서 建築士 憲章을 바탕으로 周邊의 非理를 果敢히 剔抉하므로서 遵法精神 昂揚은 물론 意識 構造 改善에 앞장서야함을 깊이 認識하고 다음과 같이 決意한다.

1. 우리 建築士는 自負와 矜持를 가지고 品位損傷 行 爲를 스스로 自制하여 國民으로 부터 信賴받는 斬新한 建築士像을 定立한다.

- 2. 우리 建築士는 違法 不當한 建築物의 發生을 防止 하기 위하여 建築設計와 監理業務 를 誠實히 遂行한다.
- 우리 建築士는 부정심리 追放을 위하여 어떠한 非 理에도 妥協하지 않고 良心과 誠意

로서 맡은바 任務에 充實을 期한다. 4. 우리 建築士는

社會安定 沮害行爲를 排撃하고 忍 해와 努力으로서 建築主와 施工者 에게 遵法精神을 啓導한다.

 우리 建築士는 無事安逸을 追放하여 先進祖國創造 의 役軍이 될것을 다짐한다.

大韓建築士協會 會員一同

사시험 및 특별전형시험일자 확정에 따른 전형요강과 신축회관 공사 제개 결과 그리고 지난 4월3일에 있었던 국무총리초청 건설무산하 사회단체장 오찬회에 金枝泰희장 참석 내용 등이 차례로 보고되었다.

□ 바로 잡습니다.

지난 3월호 협회소식 중 16페이지 우단아래서 9 행의 부산지부임시총회 관련기사는 이사회에서 '부 경'된 것의 잘못임을 바로 잡습니다. 秉旭건설기술교육원장 등이참석했다.

건축계 전반적인 사항과 판련 단체의 현황파악을 위해 마련된 이자리에서는 그밖에 각단체의 당면문제를 비롯, 이에 따른 폭넓은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金枝泰희장은 본협회 현황과 회원업무와 관련된 세반 사항 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당국의 적극적 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金희장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이 현실과 맞지않 는 부분이 많아 건축설계업무에 지장 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찬회는 낮12시부터 오후 1 시30분까지 진행되었다.

国務総理 招請 오찬회

金枝泰회장 참석

陳懿鍾국무총리의 초칭으로 마련된 건설부산하 사회단체장 오찬화가 지 난 3일 중앙청 후생관에서 열렸다. 陳懿鍾국무총리 주재로 있었던 이 날 오찬회에는 본협회 金枝泰회장을 비롯, 李載將건설협회장, 李承潤해 외건설협회장, 鄭錫潤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安京模건설기술연구원장, 安

建築分科 研究활발

건축연구위원회 산하 각 연구분과 위원회가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 갔다.

8개 연구분과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화의를 소집하고 선정된 주제에 따른 연구과정을 점점하는 등 지속적인 황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 이후 위원회를 연 분과위는 모두 5개 분과로, 지난달 22일 구조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이 용하)에서는 84년도 연구사업으로 우 선 보조사를 위한 구조현장감리 체크 리스트 작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상세도 해설에 대한 연구도 진행키로 했다.

또 지난해 연구사업인 구조 기준도 는 설계도서분과위의 연구사업이었던



□ 전통건축연구분과위원회

건축구조도면 제작시 첨부하여 발간 토록 하되 내용을 수정보완키로 했다.

한편 설비연구분파위(위원장 박용한)도 같은날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책사로 발간키로 했으며 설비관계시방서를 삭성가능한 한회원들에게 배포토록 했다. 또 고층건물의 공조설비에 대한 연구와 전기설비연구를 위한 전담위원 선정이 있었으며 건축법과 대조하여 소방법상의 문제점연구 및 수질조사연구도 진

담위원을 선정했다. 그밖에 전기통 신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계획방안 도 전담위원을 선정했다.

4월11일에 개최된 전통건축연구분 과위(위원장 장기인)에서도 연구과제 별 담당위원 선정이 있었다. 연구과 제로는 정자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서 동현, 신라탑, 원구단, 객사 등이며 연구결과를 회지를 통해 발표키로 했다.

또 설계도서연구분과위(위원장 한

종언)에서는 단지계획이나 지역설계 업무를 건축사도 수행할 수 있다는 근 거자료를 차기화의 때까지 수집키로 한데 이어 공사감리 보수요을 개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따라 용어해 석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외 명확한 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표준설계도 발행은 구조기 준도의 삽입에 따른 관련분과와의 협 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에너지연구분과위(위원장 성훈섭)는 간 13일 회의를 갖고 자연형 단 열시스템의 설계와 사공방법에 대한 도서를 총회전까지 배부토록 결의했 으며 이에따른 분야별 전담위원을 선 성했다.

대한생명빌딩 답사 서울지부 350여명회원

서울지부(지부장 呉雄錫) 소속회원 3 백50여명은 신축중인 국내최고충빌 딩(대한생병빌딩) 공사현장을 답사했 다.

지난 7일 오후 2시 동지부 회원들은 현장에서 시공자측으로 부터 건물 개요 및 새로운 시공법에 대한 종합 브리핑을 받았다.

여의도에 자리잡고 있는 동 빌딩은 63층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익힐 수 있었다. 한편 브리핑이 끝난 후 참석회원들은 시공자측의 안내로 현장을 두루살펴 보았다.

구역별 회원간담회 대구지부 대화통한 유대

대구지부(지부장 黃觚周)는 회원상 호간의 친목도보 및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역별 간 단회를 열고 있다.

동 지부의 이같은 간담회 개최는 회원들이 안고 있는 업무상의 여러가 지 예로사항과 협회발전을 위한 좋 은 외견을 대화를 통해 개진해서 문 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모색을 꾀하고 나이가 회원상호간의 폭넓은 천목도 모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建築士 정기교육 실시 2박3일간 職員교육도

금년도 건축사보수교육이 오는 30 일부터 10월 6 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에 걸쳐 실시된다.

2박3일간 건설기술교육원(인천시 만수동 소재)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공분야 8시간 교양 및 정신 교육 11시간 기타 7시간으로 모두 26시간을 받게 된다.

본협회 소속회원 전원이 받게될 이 번 교육은 특히 일정기간에 참석치 못 하는 회원을 위해 보충교육기간을 마 련하기도 했다.

한편 협회 간부직원에 대한 국민정 신교육도 4기로 나누어 오는 5월9 일부터 2박3일간 실시된다.

회원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기=4. 30일~5.2일 □ 2기 =5.9일~5.11일 □ 3기=6.7일~ 6.9일 □ 4기=6.13일~6.15일 □ 5기=9.13일~9.15일 □ 6기=9.17 일~9.19일 □ 보충교육=10.4일~10.6일



□ 서울지부 / 현장답사

□ 대구자부/구역간담회

이같은 일련의 목적으로 지난달 20 일에는 제7구 회원간담회가 세기건 축에서 있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이지역 회원 11명 이 참석한 가운데 뜻값은 대화를 나 누는 등 약 3 시간의 모임을 갖고 밤 9시에 막을 내렸다.

건축사보 및 보조원 교육

인천지부 사무소 직원대상

인천지부(지부장 高昌永)는 소속화 원사무실에 근무하는 건축사보 및 보 조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3일 상오10시 부터 12시까지 두시간 동안 지부회의실에서 건축사보 및 보조원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업무와 관련된 설무교육을 비롯해서 정신교육을 지부강과 사무국장이 각각 담당해서 실시했다. 특히 실무교육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한일반적인 사항과 세무경리 등에 대한

기본 사무행정 절차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浄化決意大会 열어

인천·경기지부소속회원

건축부조리를 자율직으로 뿌리뽑아 건전한 건축풍토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정화절의대회가 각 지부에 서 열렸다.

인천지부와 경기지부는 지난달 19 일과 30일 각각 자율정화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부조리 척질을 다짐하는 걸 의문을 채택, 이를 생활화 할 것을 절의했다.

인천지부 회원 49명은 19일 오후 5 시 30분 지부회의실에서 대회를 열고 정의사회 구현에 선봉이 될 것을 굳 게 다짐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30일 수원 보라운 관광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소속화원 1 백 15명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했



□ 인천지부 / 정화결의대회

으며 동지부산하 의정부, 성납, 송탄. 부천, 안양분소 소속회원 1백43명도 부조리척결에 알장설 것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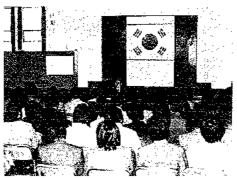
건축행정교육 받아 인천·전남·경북지부 등

건축부조리석결대체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교육이 인천지부와 경북, 전남지부에서 각각 열렸다.

관할 시도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건축행정의 원활화와 건축부조리를 근 절하기 위한 것으로 각지부 소속회원 들이 참석했다.

인천지부는 지난달 19일 하오 3시부터 두시간 동안 인천시 제2회의실에서 소속회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전축과장이 교육을 맡아진행했다.

전남지부 소속회원 1백7명도 자 난달 13일 상오 10시부터 도청회의실 에서 도주택과 주관으로 교육을 받았



□ 충북지부 / 업무교육

으며, 경남지부 회원 52명도 3월21일 오후 2 사부터 3 시간 동안 역시 도청 회의실에서 도주택과 주관하에 교육 을 받았다.

防衛誠金 기탁

경기지부 5백만원 경기도에

내고장을 내힘으로 지키기 위한 지역방위성금 모금에 앞장서기 위해 경기도지부(지부장 林龍洙)는 소속회원이 모은 5백만원을 냈다.

지난달 29일 동지부는 성금을 경기 도에 기탁하고 지역방위에 유용하게 써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역자체방위를 위한 범도민적인 성금모금을 펴 도내 각계의 적극적인 호응아래성금을모으고있다.

한편 동지부는 지난 한달동안 경기 도청입구 로터리에서 거리질서 캠페 인을 장기간 벌인데 이어 지난 3월24 일에는 남한산성에서 소속회원 68명 이 참가한 가운데 자연보호 운동을



□ 충복자부 / 캠페인

벌였다.

건축행정업무 교육 충북지부 대청소 캠페인도

총복지부(지부장 吳世炯) 소속회원 및 시군 위반 건축행위 단속 상설점 검반원 등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양 일간에 걸쳐 건축행정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충청북도 주택과 주최로 실시된 이 번 교육은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일 선 실무자의 주안점을 중점적으로 전 달했으며 아울러 부실건축물 근절을 위한 실무교육도 병행되었다.

한편 동지부는 세바을운동 중북협 외회가 주최한 세봄맞이 대청소 캠페 인에 소속회원 26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3일 청주사내 일원에서 실 사된 이날 캠페인은 봄철을 맞아 시 가지를 손질하고 나아가 명랑한 분위 기 조성을 위해 벌인 범시민캠페인이 었다.

放送통한 協会弘報 벌여

3 · 4 月에 적극적으로

협회홍보를 비롯해서 건축 전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TV 및 라디오 방송이 지난 3월과 4월 중에 계속되었다.

지난 9일 김지네희장은 KBS-TV 월요기획(콘크리트의 서울)시간에 출 연해서 도심지 고흥건물의 효율성과 이용가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도시 와 고흥건물의 기능을 상세하게 설 명,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임인혁사무처장도 출연, 여 의도 샛강의 효율적인 개발조건과 아 용가치에 대해 소견을 피력해서 도시 기능의 극대화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3월18일에는 KBS-TV 뉴스파노라마시간에도 건축사업무와 건축설계에 대해 임인혁처장이 상세하게 설명, 회원업무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비롯해서 협회PR의 기회를 가졌다. 이어서 3월26일 부터 30일까지 5일간 연속으로 오전 7시30분 KBS-TV 뉴스80시간에 본협회 임원및 회원이 출연, 건축사의 역할과 건축 선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서 깊이

있는 홍보효과를 거뒀다. 이 기간중에는 윤봉원이사(건축사의 역할과 집마련·봄철에 집을 구하는 요령 26일 27일, 2회 출연)과 정정치회원(이사철에 유의할 사항 28일 출연)임인혁처장(집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요령 29일 출연)그리고 29일과 30일에는 유경철이사(협회의 기능과 역할)와 이세훈서울지부감사(건축행정 상담실운영)가 각각 출연했다. 한편 본협회는이같은 매스콤을 이용한 협회 홍보를지속적으로 퍼기로 하고 4월20일과 21일에는 KBS를 통해 한국의 고층건물 발전상과 협회와 건축사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방송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4)

TeTa (Chethole 1) e se ace e e e

宋 **盿 求** 송민구건축연구소

BER RESERVE (CERTARY ARK TO PROPER LOSS A LOS

① 평면의 비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량수전 은 측면 38.20척, 정면 61.90척으로 서 비례가 1:1.62인 완벽한 황금분 할비를 이루고 있다. 그 주위를 폭 7.70척으로 기단이 축조되어 있는데 기단의 폭이 7.70척으로 되어있는 것 은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된다. (그림 26)

7.70처을 5배하면 38.50적으로서 측면 38.20척보다 0.30척이 크고, 또 8배하면 61.60척으로서 정면 61.90척보다 0.30척이 작을 뿐이다. 말하자면 7.70척을 한 단위로 하여 5:8의 비율로 건축물의 규모와 조화물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8이라는 비는 황금분할비의 근사값의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거니와 그들 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는 오황국(五皇極)으로서 모든 도리의 근본을 이루는 대중(大中)의 도(道)를 뜻한다. 8은 유외 모체인 무,즉 태극에서 파생하여 양의(両義), 사상(四象), 팔패(八卦)로 분기한 바로 팔패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금분할비는 그러한 동양의 고대사상으로서 삼라만 상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웅장한 사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된다. 사실 그러한 의미가 부가되어비전되어 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기단의 전체 크기의 비례는 7:10 이다. 그것의 절반으로서 7:5는 1:1.40로서 1:√2=1:1.414 ···에 극히 가까운 비를 이룬다. 다시말하여 정4각형의 한 변과 대각선의 길이의 비이며, 3재(三才)에서 인과천 또는 지와 천의 비인 것이다. 이렇듯 기단 하나에서만 하더라도 통사적 코드는 황금분할비를 내포한 √2구형으로서 복합된 의미적 코드를 지나고 또 선묘가 석룡(石龍)으로 변하여 무량수전 밑에 묻혀 있다는 전설도 함께 간직하고 있어 그곳을 찾는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그 위에 아름답게 오랜 세월을 사 있는 무량수전은 그림 27·28에서 알 수 있듯이 황금분할비의 특절을 유간 없이 이용하고 있다. 즉, 정4각형 ABCH, EDCJ, EFGL, GHIN, IJKO, KLMP 등이 서로 접하고 회전하면서 점차로 크기가 축소되어 간다. 그리하여 불상의 좌대의 크기 와 어떤 관련이 있게한 것이라고 생 각된다.

또, 북촉 중앙의 출입문이 있는 부분의 외부 하인방에는 그림 29와 같은 목재 장식물이 붙어 있다. 그 신방목(信朸木)의 곡선은 앞에서 설명하였던 황금분할비의 특질의 하나로서 선회와 성장의 목선이다. 그림 30은 그것을 분석한 것인데 이러한 사

실물을 미루어 보아 무량수전을 조영 한 법사 또는 장인은 분명히 황금분 할비를 완전히 터득하고 있었던 것으 로 떨어진다.

평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평면구 성의 기본이 되는 것은 AB 경간 18. 00척이다. AD가 24.00척이므로 BD 가 30.00척이면 직각 3 각형 ABD는 3:4:5의 신성불가침의 직각 3 각형 으로서 정확한 직각을 구성하게된다. (그림 31)

구형 EFGH는 불상의 좌대의 크기이며, EF는 18.00척 FG는 9.00척으로서 비례는 1:2이며 천의 수와지의 수의 비례이다. 그것의 대각선의 절반 OH는 길이가 10.06척이 되며 단협간 DH의 길이와 거의 같은데 오차는 0.04척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구형 OPDQ는 작은 황금분함비 구형을 이루며 그것으로써 불상의위치를 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릇 불교사찰건축의 규모는 불상의 크기와 조화되는 규모로 조영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공간의 크기를 정하는 테는 장인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구사되었음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3:4:5 직각 3 각형에서 천의 수 5와 인의 수 3의 비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는 황금분할비에 가까 운 형태이다. 다만, 전면 38,50척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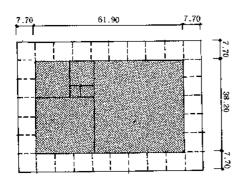


그림 - 26

면 23.10척으로서 비가 5:3이라 할 때 측면이 0.10척 작기는 하다. 홍국 사대응전은 전면 49.20척 측면 36.90 착으로서 비가 4:3인 완벽한 것이다.

그렇듯 고대에 있어서는 직각구성을 기본적으로 피다고라스정리의 정수해에서 구하며 그 비를 그대로 건물규모 결정에 이용하면서 수가 지니는 의미에 집착하였다고 믿어지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경우라고 추정되는 평면의 비례를 열거하여 보았다.

- ●보림사 대응전 44,40최:55,10척=1:1.24≒4: 5
- 청평사 극락전
 24.45척:27.35척=1:1.118=2:
 √5 (황금분합비의 변형임)
- 환성사 대웅전 31,68최:39,60척=1:1.25=4: 5
- 전등사 대용전
 24.80척; 27.90척=1:1.125=8
 : 9(8:15:17과 관련되는 비례이며 8과 9를 더하면 17이되고 두 수의 의미는 팔패와 전(乾)을 나타냄)
- 범어사 대응전 32.00척:38.60척=1:1.206=5 :6(5:12:13 또는 3:4:5와 관련되는 비례임)

송광사 국사전
 13.80척:36.20척=1:2.623≒5
 :13(5:12:13의 비는 고대 Mesopotamia 지방에서 주로 쓰

인 비라고 함)

● 장곡사 상대응전 25.50척: 41.25척=1:1.617(완 전한 황금분할비 임)

- 화엄사 대용전 37.50척:62.50착=1:1.33···= 3:4
- 창덕궁 인정전 61.40척:81.70척=1:1.331=3 :4

그러므로 무량수전은 한 차원 높은 기법을 구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그림 31에서 AB=18.00척, AD=24.00척, BD=30.00척으로서 정확한 직각을 구하고 불상의 위치를 작은 황금분할비 구형에서 정한후 단협간 DH=10.10척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AD=24.00척에서 DH=10.10척을 감하여 HA=13.90척으로서기타의 기둥간격을 정하고 전체 평면의 크기를 황금분할비에 맞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기단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 거나와 평면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붕의 평면적 크기도 기단의 경우와 같이 평면의 황금분할비 구형 과 같은 비례로 정해질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에서 건물 ABCD의 주위를 같은 폭으로 지붕이 돌출할 때 자붕 EFGH 와의 사이의 AE, BF, CG, DH는 45° 방향에 놓인다. 건물 ABCD와 지붕 EFGH가 닮은 꼴이 되려면 대각선 AC, BD상으로 돌출하여야 하며 추녀의 짚이는 동일하게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맛배지붕은 정면과 측면의 지붕이 돌출폭이 서로 다를 수었으나 발작(八作) 지붕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무량수전은 지붕의 크기의 비가 기단과 같이 EF:FG=1:1.402로서 √2구형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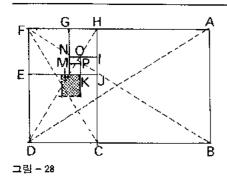
√2구형도 실로 신비스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림 33에서와 같이 √2구형을 아무리 2동분하여 작게 만들어도 √2구형이 된다. 왜냐하면, 구형 BCEF는 2동분된 구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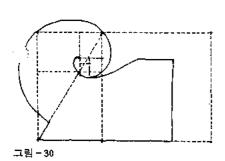
그러므로 BC : EC =1:√2 / 2

 $= 2 / \sqrt{2}$: 1 = $\sqrt{2}$: 1

위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어떻든 간에, 지붕크기가 1:1.402=5:7이 되는데 5:7이라는 비는 5:12:13연 비에서 구하여진다. 즉, 5:12:13의 직각3 각형의 높이에서 밀변의 길이 를 빼면 된다.

5:12:13은 누차 설명하였듯이 고대 Mesopotamia 지방에서 천문과 말접한 관계를 지나면서 상용되었다





고 한다.

만일에 5:12:13의 이용의 관습이 불교의 전파의 경로를 따라 인도ㆍ아 프가니스탄·Silk Road를 거쳐 전래 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옛 문화 를 바라다 보는 시야는 더욱 넓어져 야 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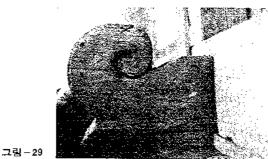
② 내부공간의 형성

다른 사찰건축과는 달리 불상은 서 쪽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극락정토라는 것은 서쪽 10만역의 불 토(仏土)를 지난 곳에 있다는데 그러 한 상징적 의미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쪽 멀리 선묘가 바 다에 몸을 던진 등주를 머리에서 지 、울 수가 없다.

보 높이 18.00척 기둥간격 18.00척 으로서 대략 정4각형 속에 불상과 불단이 자리잡게 되는데, 동쪽 끝으 로 부터 두번째 기둥에서 불상까지의 거리는 기둥간격 18.00척의 두 배의 거리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고주(高柱)의 높이는 14.56척인데 14.56척은 9척×1.618=14.5623척으 로서 불단의 크기에서 황금분할비로 완전무결하게 유도된 높이이다. 평주 (平柱)의 높이 10.86척은 고주의 높 이의 1/4이 낮은 높이이다. 계산치 는 14.56-3.62=10.92척이나 오차는 불과 0.06척의 차밖에 나지 않는다.

평주가 고주의 높이의 1/4 차가 나 는 그 부분에 후술하겠으나 실로 오







10.10 13.90 1

그림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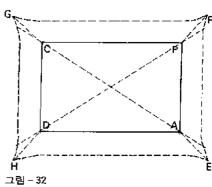
묘한 주심포(柱心包)의 공포(棋包)가 짜여져 있다.

그러므로 기둥간격・기둥높이・공 포·평면의 크기 등이 전부 불상의 좌대를 기준으로 하여 황금분할비에 서 유도된 크기로 내부공간이 구성 되어 지금의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움 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마치 현대전 축의 거장 Le Corbusier의 Le Modulor의 기법을 약 600년 전에 우리 들 조상은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단면구성의 기본적 구상은 그림 34 와 같다고 생각된다. 정3각형 ABC 속에 정4각형 DEFG가 내접하여 정 4 각형의 1 변이 18.00척일 때 BE 또는 FC,즉 단협간은 계산상으로는 10.36척이 되며 실측 결과는 10.10척 이다. 지붕을 구성하는 3각형 AHI 외 < A 는 120°이다. 120°라는 것은 정 6 각형의 내각의 크기이며 원과 직 결되는 도형이다. 원은 윤회(輪廻) 사상을 상징하는 도형으로서 불교예 술의 바탕에는 어딘가에 내재하고 있 다.

정 4 각형의 중심을 원의 중심으로 하여 그림 35에서와 같이 원을 그리 면 변화 속에 어떤 질서를 느끼게 한

한편 그림 36에서 알 수 있듯이 팔 작지붕의 형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는 맛배지붕 주위에 차양을 달아 낸 남방계 건축이 발달한 것이라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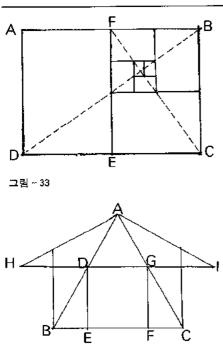
일본 학자들간에서 정리되어 온 설이 다. 말하자면 그림 36의 구형ABCD 가 맛배지붕이고 구형 EFGH가 차양 을 주위에 달아낸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형 ABCD는 평면에서 단 협간을 1/2 축소한 크기이며, 구형 EFGH는 단협간의 폭 10.10척을 더 한 크기이다. 이에서 AB와 BC의비 는 28, 10 척 : 51, 80 척=1 : 1,84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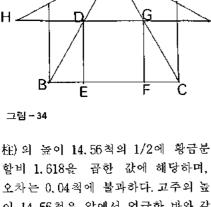
√<u>√5</u>)이며 황금분할비의 하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EF: FG-48.30척:72.00칙=1:1.491 ÷ 2:3이며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로써 지 붕마루 끝이 11.82척까지 돌출하여 고건축의 가장 지배적인 형태인 지 붕의 모양이 가다듬어져 다음과 같은 비례의 형태를 이루어 놓았다.

③ 입면의 비례

무량수전은 기둥의 높이가 중앙에 서 끝으로 감에 따라 점차로 높아지 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하여 도리・ 창방 등이 처마곡선과 상용하여 경사 져서 모서리의 기둥다음의 기둥의 높 이는 실측치가 11.22척이 되며, 네 모서리의 기둥은 약 11.82척이 된다. 이 네 모서리의 기둥높이가 입면의 비례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그 치 밀한 계획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

11.82척이라고 하는 것은 고주(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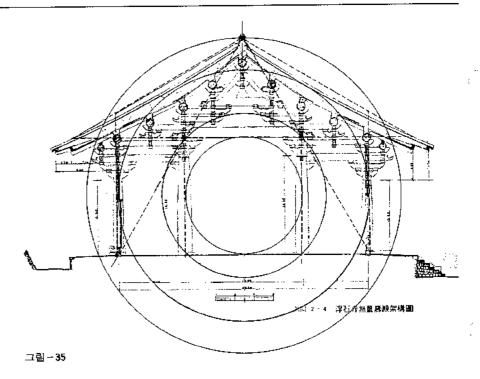




이 14.56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갈 이 불상의 좌대의 폭 9,00척에 1.618 을 곱한 값이므로 모서리 기둥의 높 이도 역시 그것과 연관된 치수이다.

그림 37에서와 같이 모서리 기둥의 높이의 3배가 건물의 높이가 되며, 지붕끝 또한 주심에서 기둥높이에 해 당하는만큼 돌출하였다. 그리하여 처 마가 현수곡선을 그리며 높이 올라 간 끝이 또한 11.82척에 황금분할비 1.618을 곱한 19.12척의 높이에 해 당한다. 팔작자붕은 모서리 기둥의 2 배의 높이에서 형성되어 완벽한 비례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한편 정면은 61.90척 측면은 38.20 척인데, 처마끝 높이의 2배 또는 모 서리의 기둥을 1번으로 하는 황금분 할비구형을 2개 연결한 폭은 38.25 척으로서 오차가 0.05척인 측면의 크 기와 일치한다. 그림 38에서 구형 A-BCD 및 BEFC가 그것이다. 정면은 11.82척을 1번으로 하는 정4각형 2 개를 중앙에 또 11.82척을 1 변으로 하는 항금분할비 구형을 양측에 배치 하였을 때의 폭은 61.88척으로서 정 면의 실측치보다 0.02척이 작은 것으 로써 정면의 크기와 일치한다. 그림 38에서 황금분할바구형 ABCD 및 E-FGH와 정4각형 CDIJ 및 IJEF가



그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 처마끝은 황금분할 비 구형 AKLM에서 높이 · 기타의구 성을 알 수 있다. 황금분할비구형 NOPQ에서는 용마루·지붕마루 등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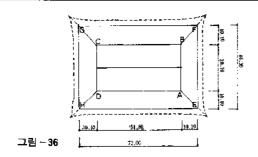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공간의 구성이 철두철 미 하거니와 공포(棋包)의 도학적(図 学的)구성은 분석하는 사람으로 하여 금 더욱 놀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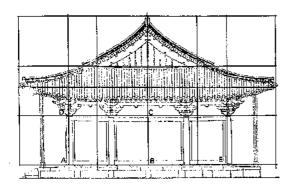
공포는 그 양식이 주심포계(柱心包 系) 와 다포계(多包系)로 구분되나 같 은 계열 속에서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말하자면 공포의 외각이 직선 적으로 변화한다든가, 안으로 굽어진 다던가, 밖으로 굽어자는 세가지 형 태가 있는데, 유독 무량수전의 경우 는 두공부분은 완전무결한 타원 속에 내접한다.

그림 39는 고주의 경우의 공포와 타원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점 0는 타원의 중심, 점A는 정점, 점B 및 C는 촛점으로서 OA=3.71척, OB =4.94척, AB=6.18척으로써 타원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3각형 ABO 또는 ACO는 3:4:5의 직각3각형 이다. OA, OB, AB 등의 길이는 평 주와 고주의 높이에 관계되는 길이라 고 생각된다. 바닥이 다소 경사가 져 서 평주와 고주의 높이에 차이가 있 기는 하나, 불단이 있는 부분의 고주 로서 얕은 것의 높이는 14.96척이다. 이것의 1/3은 4.99척으로서 OB와 0. 05척의 차에 불과하다. 평주는 11.12 최으로서 이것의 1/3은 3.71척이므로 OA의 길이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A B는 평주를 5/9한 길이로서 6.18 척 이 된다.

한편, 타원위의 임의의 접A'와 촛 적 B및 C와 연결한 A'B 및 A'C의 길이의 합계는 A'점을 타원위 다른 어느점에 취하여도 AB와 AC의 길이 의 합계와 같으며 변하지 않는다. 그 러한 기법을 구사한 것은 <mark>아마</mark>도 직 각 3 각형의 빗변인 AB 및 AC는 3재 의 천에 해당하는 것이며 두개의 촛 점 말하자면 음양의 극에서의 길이의 합계가 불변이라는 의미론적 해석으 로써 도상적(図像的, Iconographic) 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임의의 점A/률 이동시키 면서 촛점B 및 C와 선을 연결시키면 그림 39에서와 같이 가장 장식적인 공포의 짜임새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 그림 40은 공포가 정4각형 및 황금분할비구성 의 비례 속에서 짜여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정사각형의 1변 AB는 실측 치가 5.95척이며, BC는 실촉치가 5. 90척으로서 오차가 0.05척밖에 안된 다. 5.95척이라는 것은 타원의 단축 AO=3.71척에 1.618을 곱한 6.00착 보다 0.05척이 작다. 그러한 정사각 형 ABCD를 2등분하는 선 FG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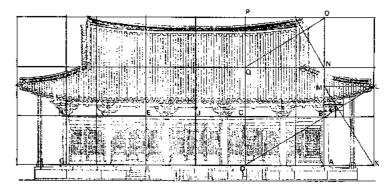


그림 - 37

그림 ~38

특이한 단면의 모양을 지닌 큰 보의 저변이 놓인다. 큰보의 측면이 곡선 은 역시 3굴법의 곡선 또는 황도의 곡선의 변형이라고 함 수 있다.

그림 40에서 AB의 1/2인 EF를 1 변으로 하는 황금분할비구형 EFGH 를 작도하면 EH=5.95×1.618×0.5 =4.81척으로서 단장혀(短長舌)의 길 이의 실측치 4.64척과 비교하면 0. 17척이 크다.

황금분할비구형 EFGH 속에 그것의 특절에 따른 정4 차형과 대자선동을 작도하면 굽소로(굽小累), 첨차(寶應), 뜬창방(뜬片時)등의 크기・위치 등이 잘 일치한다. 다만, 단장하의 길이가 4.64척으로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의장의 목적보다 구조상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기등간격 13.90 척을 1/3하면 4.633척으로서 오차는 0.007척에 불과하다. 이상은 실내에서의공포의 짜임새에 관한 것이며, 외부또한 같은 이치이다.(그림 41)

외부에서의 단장혀의 길이는 실측 치가 6.60척으로서 그의 절반인 3. 30척이 기등잔격 13.90척의 약 1/4을 지지하므로 구조적으로 안정된 길이 이다. 그러한 단장혀의 길이의 차는 외목도리의 직경이 1.35척과 1.10척 으로서 지지하는 하중의 크고 작음 을 생각한듯 하다.

그렇듯 정교한 기법은 도대체 어떻

게 전승된 것일까 하는 의문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하나의 가설을 세워 본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황 금분할비구형과 정4가형을 조합하여 조형의 크기를 정하는 수법은 고대 인도의 석굴사원에 많이 나타난다. 비단 석굴사원만이 그러하였던 것은 아니겠으나 그와 비교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하여 원형이 잘 남아있고 우 리돌에게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 다. 그림 42는 그러한 예를 분석하 여 본 것이다. 또, 우리나라 불교예 술에 한해서는 인도의 불교예술의 강 한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석굴암 의 경우에도 그러한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 후술하겠다.

4) 배치에 관해서

불교는 크게 나누어서 소승불교(小乘仏教) 와 대승불교(大乘仏教) 로 나누어진다. 소승불교는 전통적·보수적 불교로서 오직 석존 한분만을 불타(仏陀: 진리를 깨달은 자)로 모시는데 대해 대승불교는 모든 곳에 불(仏) 또는 여래(如來)가 있으며, 석존은 그 중의 한분이고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가호를 구하여 그 자비의 힘으로써 중생이 구하여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승불교는 사리신앙(舎利信仰)을 근본으로하여 Ceylon,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는 다수의 불상을

만들었으며 서역을 거쳐 중국·우리 나라로 전하여진 북전불교(北伝仏教) 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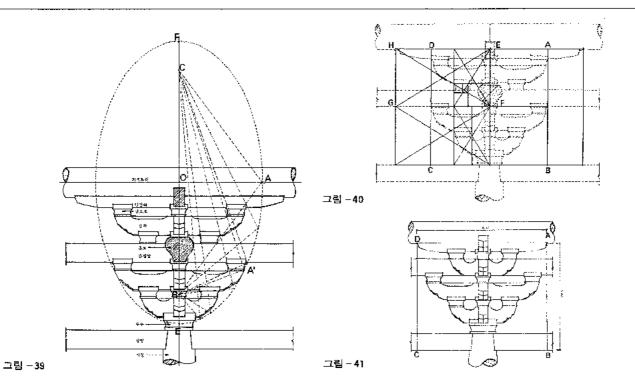
석촌이 입멸(入滅) 한후 그의 유골은 화장되어 불사리(仏舎利)를 8개국의 왕에게 분골하여 Stupa에 물개되었는데 Stupa가 탑의 원형이 된 것이다.

한편, 대충불교에서와 같이 많은 부처님을 인정하는 사상은 많은 불상 과 불화(仏画)를 안치할 법당이 필요 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교사찰의 배 치는 탑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에서 탑과 법당이 병존하는 신앙으로 또 이에서 법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으로 변천하여 그에따라 배치가 변하 게 된다. 불국사의 경우와 같이 대웅 전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것은 법당 중심의 건 물배치방법으로서 강한 대승불교의 신앙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한 배치방법의 예로서 사천왕사(四天 王寺), 망덕사(望徳寺), 감은사(慇恩 寺), 경주 천군리사지(千軍里寺趾) 등 이 있다.

이들 사찰의 회랑의 장단변의 비 또한 피다고라스정리의 정수해를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 사천왕사

남북 300척=5×60척 동서 240척=4×60척



(3:4:5에서 구한 것임)

- 감은사 남북 280척=7×4×10척 동서 250척=25×10척 (7:24:25에서 구한 것임)
- 불국사 남북 215척=5×43척 동서 172최=3×43척
- 경우 천군리 폐사 남북 260척=13×20척 동서 200척=5×2×20척 (5:12:13에서 구한 것임)

이상과 같다.

기타의 경우는 탑을 전면에 배치하고 뒤에 대응전을 배치하는 말하자면 법당과 탑이 병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승과 소승의 사상 이 혼제하는 형식이다.

원래 사찰이라는 것은 지금의 학교 와 같은 것으로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시설로 강당·경장(経蔵)·종루·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 편, 불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지혜로써 고뇌를 초월한다 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의 힘이외의 타력에 의존 하는 것은 금하여졌으며 우상숭배도 그 하나로서 금하여졌다는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불타의 임멸후 사 리를 숭배하게 되면서 많은 상징적인 조형물과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배치에 있어서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엄격한 좌우대칭을 지키는 것과 달리 불규칙한 배치방법 은 여러모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부석사의 경우 외상대사는 화엄종 개종조(華厳宗開宗祖)로서오진(悟眞), 지도(智道), 표훈(妻訓), 전정(眞定), 진장(眞藏), 도융(道融), 양원(良円), 상원(相願), 능인(能人), 외적(義寂) 등 10성제자(十聖弟子)를 낳게 하였다. 말하자면 수도장으로서 가장 으뜸가는 제자들을 양성한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창 또는 수도장은 평지에 있지를 않으며, 속세와 먼 산중에 있게 마련이다. 산중에 자리잡기에는 풍수지리설을 따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풍수지리실에서의 이상적인 곳은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되 기본적으로 배경은 높고 소위 좌청룡 우백호는 그보다 낮으며 앞이 트이는 동시에 반드시 그 앞에는 내(川)가 흘러야 한다.

부석사의 배경이 태백산맥의 불길 같은 연봉의 계속이라면, 납쪽은 구릉지대로서 오행의 화생토(火生土)에 해당하는 상생격(相生格)의 산세에다 일주문(一柱門)을 들어서기 전에 동에서 서로 흐르는 계곡의 내가 있어소위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명당자리에 부석사는 자리잡고 있다.

인도에서 불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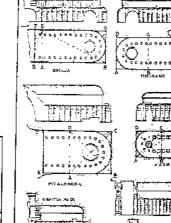
브라만교의 여러 신의 조각을 장식물에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밀교·도교의 기법 등을 두루 구사하는 까닭에 여러 가닥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격식을 타파하는 것이 화 엄종의 사상과 일치하는지도 모른다. 화엄종은 법계평등(法界平等) 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도를 닦고 불심(仏 心)을 지니게 되면 모두가 불이 될 수 있다는 자극히 대중적인 사상으로서 그것이 건물배치에서 격식을 타 과한 하나의 요소가 되었을지도 모른 다는 것이다.

중국의 불교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불교가 국가의 지배체제와 결부되어 국가적 색채가 농후한 북위시대(北魏時代)와, 왕법(王法)과 불법(仏法)이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예를 들어 동진(東晋)의 혜원(慧遠)이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편 것과 같은 남조(南朝)의 불교사상의 대립이다.

제왕과 종교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은 물론이거나와 북위는 북방기마민족으로서 선바족(鮮卑族) 척발부(拓抜部)가 중국 북부에 일으킨 나라다. 일찍기 불교를 받아들여 유명한 대동(大同) 운강(雲岡) 석굴의방대한 불교예술을 남겼다.

이에서는 그러이스의 초기 아이오 낙양식의 기둥이라던가 기타 서방의 영향을 짙게 받은 장식들을 도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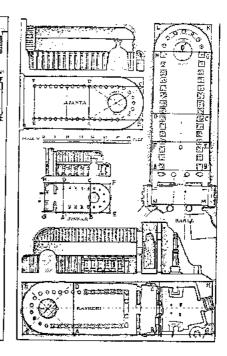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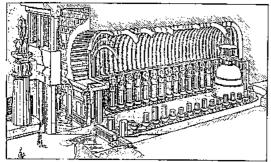


그림 - 42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3국시대에 북위와도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까닭에 북위 말하자면 북조예술(北朝芸術)의 영향을 받게되며 불국사와 같은 국가적차원에서의 사찰이 건립되고 건물배치 또한 법당 중심으로서 임직한 격식에 따르게 된 것이다. 부석사는 그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교사상의 영향이라고 본 것이다.

또 한가지는 조형에 선적(禪的) 요 소를 지니게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며, 선의 목적은 이에 따라서 성불(成仏)하는 데 있다. 성불한다는 것은 불성을 지닌 인간이 그 맑고 깨끗하였던 것이 점차로 때문게 되어 처음의 정체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선의 방법으로서처음의 정체로 돌어켜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선에는 1,700여의 공안(公案)이 있으며, 이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무(無)자라고 한다. 공안이라는 것은 공부(公府)의 안독(紫牘)이라는 뜻이며, 마치 정부의 법률로 비유되고,어떤 사사로운 정실로써도 이를 굽힐수 없으며 그 정한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선종의 조사스님들이 정한 법문을 공안이라 한다.

예를 들어 세존념화(世尊拈花)란 공안은 달마와 양무제와의 분답, 그 리고 달마와 폐가와의 문답을 엮은 것이며, 후세에 와서 공안으로 쓰였 다고 한다. 공안은 문답을 요하는 형 식을 취하며, 모든 공안은 의문으로 되어 있어 그 의문을 풀려는 데에서 선의 노력이 시작이 된다. 예를 들어 '無'자를 주야로 외우며 '無'란 어 떤 것인가 하고 그에 대한 의문을 일 으킨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망각의 경지에 이끌게 된다. 그리하여 공안 과 한 몸이 된 때를 견성(見性)이라 고도 하고 각오(覚悟)라고도 하고 도 통(道通)이라고도 하고 깨침이라고도 한다.

한편, 어떤 일정한 법칙야래 인간의 행동을 계속 규제하면, 대상물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과 의식을 잊어비리게 되고, 그가 있는 공간에 있어서의 척도의 인식과 판단마저 무화(無化)되는 현상에 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교의식의 하나로 미 명에 기단이라던가 탑의 추위를 몇회 고 돌며 염불을 외우고 목탁을 치는 행동만으로도 자아를 외식외의 세계 로 이끌어 가게 된다.

그러므로 전축물에 있어서 동일물의 반복이 계속되는 것도 의착의 무화를 유도하는 수법의 하나로 볼 수있다. 또 공간의 변형으로서 이화감을 품게 하는 것도 선이 요구하는 무

아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여 의문을 던진다든가 의문을 품 게 하는 특정적인 형태가 이루어진다 는 것은 개체를 부화하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석사의 경우 대석단은 동지인출의 방향인 동남동 30°로 쌓여졌다. 서쪽으로는 멀리 등주보 이를 것이라 라. 석단이 끝나고 종투 앞의 계단으로 부터는 정남을 향하게 되며, 종류와 무량수전이 이루는 축선은 엇비슷하게 보이게 된다.

그러한 기법은 바단 부석사의 경우뿐이 아니라 의상대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십성제자들이 이룬 10대사찰해인사(海印寺), 범이사(梵魚寺), 화엄사(華嚴寺) 등 전부가 자연과 조화하면서 불규칙한 배치기범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도 규칙성을 지닌 배치를 하는데 필경 그것은 불교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생각된다.

이렇듯 배치에 있어서만도 1차적 기능은 종교적 이용에 목적이 있겠으 나 그 이면에는 복합된 의미를 지닌 2차적 기능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다.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金 自 浩/건축연구소 間·三

서 론

요즈음 뜸해졌자만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매스컵의 화제촛점은 갸수 조 아무개군의 결혼식 소동이었다.

지난 해부터 각 신문·주간지·잡지·TV·방송 등은 심심해서인지, 아니면 화제가 없어서 그런지 조아무개군의 약혼이 사실이다, 아니다, 결혼한다, 안한다, 일년 더 연장한다, 그대로 강행할 것이다, 신랑이 참석 안해도 좋다, 우리는 면사포를 쓰고 나갈 것이다라는 드릴만점의 추적 보도가 심심치 않게 있은 뒤에는 극적으로 일년 더 연기할 것에 합의 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며칠뒤에는 결혼신고가 되었다는 주민등록 등본의 사진이 기재되더니 마침내는 도둑결혼까지 거행하는 것으로 길고도 긴 씨리즈의 막은 내리고 말았다.

항간에는 이 도둑결혼에 대해서 부도덕이다, 뭐다, 말이 많더니 마침내는 이중인격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이나오기도 하고, 그의 인기가 드디어하락하고 말았다는 기사가 마치 증권시세의 폭락을 보도하듯 후일담으로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어쨌든 그가한시대를 풍미하는 가수이므로 그의일거수 일투쪽이 그만큼 매스컴의 바람에 포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대중가요의 우상인 조아무게 군의 사생활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운 위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의 결고 도 긴 줄다리기식의 결혼논쟁이 다름 아닌 그의「인기관리」때문이었다는 목과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관리(Management)의 時代

한 가수의 명성과 빛나는 영광 뒤에는 그를 관리하고 선전하고 홍보하며 일사불란한 팀웍으로 일정을 짜고

운영하는 보이지 않는 조직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오직 그들 조직의 핵인 한 가수의 이미지와 세련된 용모와 보다 확산된 인기를 위해 머리를 짜고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헤어스타일에서 부터 복장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쓰고 사생활을 간섭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인공을 뉴스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화제거리를 만들어 일종의 기사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언제인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영동의 대포집에서 어울려 한 잔의 술을 하다보니 과거에 유명했던 섹스폰주자 길아무개씨와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이때의 화제 중에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묻길래 이야기해 주었더니 자기네들의 작곡하는 과정 역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아마도 모든 전문적인 직업(Profession) 인들이라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추구하는 과정이란 건축세계 뿐만이 아니고 Pro字가 붙는 운동선수·음악인·작가·정치가 등 전문적으로 금전을 받고 일을 해주는 직업인은, 가수와 비교하여 안되었지만 거의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같다.

벌써 유행한지 오래된 말이되어 이제는 낡은 구태어가 되었지만, 한때 「현대는 자기PR시대」란 말이 유행된 적이 있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앞장 서 말하기보다는 물러서서 침묵 하는 겸손만이 미덕이었던 옛 사고방 식에서 어떻게든 극렬한 생존경쟁에 서 살아 남으려면 보다 능통적으로 자 신을 노출시키고 어떻게든 남의 눈에 띄게 하려고 스스로 신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대문명사회의 특징을 단적 으로 표현한 유행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작극적인 사고방식, 능동적인 사람, 부정적이기 보다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 햄릿형 보증을 는 돈・키호테의 인간, 그런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문명사회는 필연적으로 눈부 신 Management, 즉「관리」의 테크 닉이 최첨단의 두뇌사업으로 각광 받 는 그런 시대를 예고하는 것같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서양건축이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선배님들이 쌓아올린 수 많은 업적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만 그동안 몇번에 걸친 전쟁과 일제침략 등으로 인하여 피압박 민족이란 오명 을 받게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만은 틀림없다. 여기에서 나는 과 거 선배님들의 업적이나 역사를 말하 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다만 현재 우 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하여야만 되는지에 대하 여 몇자 적어볼까 한다. 그 중에서도 건축사 자신들이 작품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빼 놓을 수 없는 설계감리 용역보수에 대하여 나 자신 나름대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 무엇 인지 점검해 보고 싶다.

어떤 지면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설계비를 깎이지 않으려고 비탈 줄도 알게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차피 속 물적인 전문가의 지경에 나도 빠져들 고 바는구나… 라는 이 문구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설계비란 건축 사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준 훌륭한 댓가이므로 깎여서도 안되고 이것이야말로 자랑스러운 값어치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속물이 된다기 보다는 당연하고 떳떳 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 보자. 1978년말 모잡지사에서 설계료에 대하여 전문 건축사 4,500人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까지 조사한 몇가지의 앙케이트를 소개하면

① 설계감리보수를 의식하게 된 것 은 언제부터인가?

20세대전반: 14.5% 20세대후반: 43.3% 30세대전반: 19.8% 30세대후반: 12.1% 40세대전반: 3.9% 40세대전반: 3.0% 50세대이후: 2.3% 의식한적없다: 0.6% 불명무답: 0.5%

② 설계감리료의 현재기준에 대하여 Case에 따라 틀리지만 현재 설계 감리료는 업무의 댓가로서 비싸다고 아니면 싸다고 생각합니까?

83.7% 싸다고 생각함 3.3% 비싸다고 생각함 12.5% 걱정하다 불명무답 0.5%

③ 설계감리료의 금액에 만족하고 있읍니까, 불만입니까? C : 감리를 적당히 한다. 16.3%

D : 건축주와 콤뮤니케이숀이 없 어진다. 11.9%

불명무답 3.6%

⑤ 설계감리료의 금액이 불만일 때 어떠한 자세를 택합니까?

A : 설계일을 거절한다. 4.2%

B : 설득하여 금액을 올려받도록 노력한다. 23.1%

C: 불만이지만 타협하여 일을 하고 전력을 다한다. 50.5%

D : 일의 질이 떨어질 것을 생각 하면서도 타협하여 일을 맡는 다.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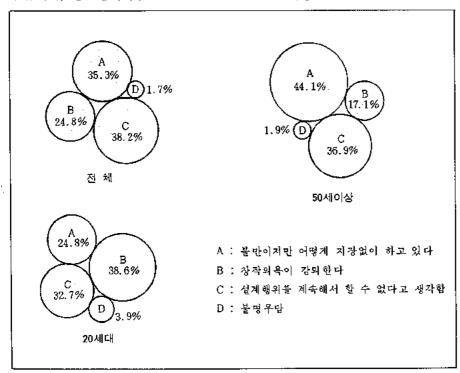
불명무답 5.6%

⑤ 현재설계감리료가 적정하지 않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A:설계감리업무에 대한 건축주 외 평가인식이 낮다. 63.7%

B: 설계자가 너무 많아 과다경쟁 이 되어 있다. 29.1%

C : 의사나 변호사에 비하여 상대 의 생활이나 사업의 뒷면까지 깊이 알아 가볍게 보수를 청 구하기 힘든 설계자의 특수한 입장, 10,3%



④ 설계감리료가 낮을 경우 어디에 영향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한가지를 선택하십시요.

A : 설계자의 인건비나 생활에 압 박이 온다. 55.1%

B : 설계도가 조잡해진다.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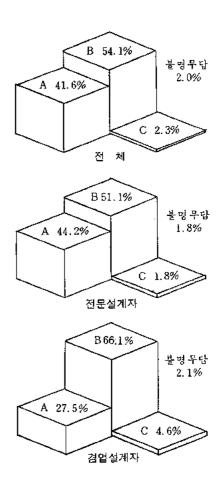
D : 설계감리료에 판하여 설계자 측의 진지한 태도가 모자란다. 22.8%

E:기 타 6.3%

⑦ 설계감리료의 산정방식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A : 종래 관계단체의 보수 기준대 로 한다.

B : 총래의 각단체의 기준은 필요 없고 새로운 산정방식이 필요.

C : 산정방식 등은 필요없다.



이 앙케이트는 ②변까지 계속되지 만 여기에서는 전부 소개를 생략한다. 새로운 설계비 보수기준을 만들 당시 건축사들에게 조사한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가까운 이웃 일본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7년 전의 당시가 현재의 우 리 것에 비교하면 1.5배 이상의 보수 기준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앙케이트를 보고 느낀 몇가지는 우선 90% 이상이 현재의 보수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물론 설계내용이야 우 리 것에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는 나 겠지만 건축을 하는 행위는 어느 나 라이고 간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 각된다.

또한 건축주의 설계에 대한 저평가 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 리나라는 더 하면 더 했지 낮을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 한가지 느낀점 역시 불만스러운 보수일 경우 일에 대한 능률 문제는 우리와 마찬가지 기분인 첫같다. 이러한 자료가 우리 것에는 없기에 이웃나라 것을 인용하여 보았지만 실제우리 건축사에 똑같은 앙케이트를 받아 보았을 때 희망적 답변 보다는 이웃에 비하여 더하면 더 했지 좋은 결과는 못나오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Professional 한 행위를 못하여서 그러한 것인지, 건축사 자신들의 나약한 자세가 사회에 대하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나자신뿐 아닌 선배님 후배님 다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느껴진다. 아무리 훌륭하고 모두에게인정받는 작품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아마도 거기에서 만족하는 건축사라면 아마츄어 밖에 되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서울 장안의 우수한 대형건물의 설계를 어느 것이라 지적은 안하겠지만 대부분 외국설계자가 상륙을 하여 설계를 하였고 파압박 민족의 근본적인 사대주의에 얽매인 건축주들은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그들을 욕하고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들도 잘하고 있는 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Pro 가 되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어떻게든 이상품이 기존시장을 파고 들어 갈 수있도록 선전방법과 각종의 디자인·색채·문안이 연구되고 거기에 접증적인 투자가 반복되어 최면을 보기 시

잔한다

그리하여 일단 시장에서 인기상품 으로 안정세를 구축하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구매열을 유지시키기 위해 서 고도의 관리 테크닉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어느 한 전자 Maker회사의 단면을 바라보며 느낀 점이었지만 이 는 어짜 상품뿐이겠는가.

정치가는 물론, 작가 · 영화배우 · 가수 · 코미디언 · 사업가, 모든 현대 인들은 보다 나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 하여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 디어를 개발해 내고 한번 인정 받은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다. 우리 건축사 역시 달 리 행동할 바 하나도 없는 것같다.

코미디언은 자기자신이 저질 옷음만을 남발하는 코미디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대중에게 심어 주려고 Pro적인 이미지를 찾아내고, 자가는 자신이 아픈 시대의 고통받는 사람을 대변하는 지성인으로 불려지기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여 자신의 Pro로의 이미지를 찾으려 하고, 권투선수 역시 자신의 화이팅 Money를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무수한 스파링과 땀을 흘리고있다.

정치가는 자신이 청빈하고 정직한 민중의 대변자라고 평가받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예전에는 그러한 평가를, 주위에서 남들이 민 후일 혹은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 내려주던 것을 현재는 그러한 평가를 살아 있는 당대에 받기 위해 서 아이디어를 내고 소문을 퍼뜨리고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화제를 만들며 필사적인 Pro의 경지를 유지하며 한 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만이……

작가가 세월을 초월하여 위대한 작가로 남기 위한 최고의 관리 방법은 오직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이며 사업가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도 (*)**** 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같다.

우리 자신들이 정당하고 응분의 설계감리용역의 보수를 요구하기 이전에 최고 최대의 방안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좋은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야만 되는 것같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조아무개 가수도 여러가지 관리보다는 좋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라면 결혼쯤이야 하면 어떻고 인기가 떨어진들 어때라.

어떻게든 좋은 작품을 만돌려고 하는 노력이야말로 피와 땀과 국기를 요구한다. 이 노력에 매어 달릴 때 비로소 남의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은 소 원하는대로 시대를 초월한 좋은 작품 을 만들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한발양보 거리질서 한밤빠른 선진조국

정의(Justice) 란 개인의 덕목이라고 생각되어 왔으며 모든 인간에게 어떤 불변하는 지속적 목적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정직의 원칙이며 또한 인간상호 관계를 다루는 원칙이기도 하고 인간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즉, 사회적기계 내지 개인적 삶에 정당성의 기준을 제공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정의(Social Justice)는 정당한 노력에 대하여 합당한 댓가가 주어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고, 법 과 신뢰와 화합 속에 살아가는 상태 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법 이 용납되지 않고 불의가 규탄되며 불 량공사, 불량품 등과 같은 부실이 규 제되는 사회인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보호 받는 법치사회이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스 스로 법을 지키는 준법사회인 것이다.

선진조국을 창조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우리 건축사들도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외식을 갖고 건축부조리 제거에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의 근대화 를 통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하 였고 발전을 향한 외욕과 자각 또한 도처에서 활발히 싹터 왔으며 민족적 자신감과 궁지로 소생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1인당 국민소 독, 산업구조, 기술수준 등 실로 많 은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과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세계 속의 한국으로 로 발돋움 하였으며 70년대의 고도성 장 속에서 특히 건축분야는 여타 분 야에 비해 그 성장도가 눈부셨음을 우 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 민경제에 까친 공헌도 역시 여타 분 야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이 한 시대를 여실히

歷史의 거울에 '모습'을 비취보며…



반영하는 역사적 유물임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실상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볼 일 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경제성장으로 인한 건축물의 양적 증대는 커졌으나 건축문화를 가름하는 질적인 발전은 만족할만 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닐 것이다.

그 원인은 건축계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부조리는 사회악으로 지청되어 국민들로 부터

지탄의 표적이 되어 고질적인 사회병 폐외 하나로 사회정화 차원에서 건 축풍토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구조적 부조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 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건축사상을 말하기 전에 우리들의 지난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건축사들은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체 속의 한부분에 속한다.

따라서 건축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 행할 때 우리 건축문화는 발전하는 것이고 또한 국가도 발전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계의 고질적인 병패로 서 우리 주변에 잔손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 행위 등이 지탄의 대상이 되 어 왔으며 이러한 제 요소들이 건전 한 건축풍토를 해치는 약성요인이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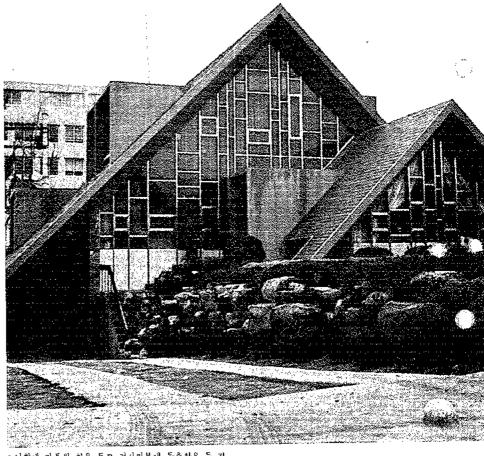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악성 요인들이 근 절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미래 를 지향한 전진 또한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하였다.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등에 지고서 벗어날 수 없는 신의 섭리에 의해 이 시대의 소명인 위대한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박중한 임무와 이 나라의 건축계를 이끌어 나가야한다는 역사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새역사 창조는 한마디로 부강한 선 진조국을 이룩하는데 있으며 우리에 게 주어진 이 시대의 건축문화가 역 사 가운데 찬란한 금자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는 전축 행위에 의해 조형되는 각종 건축물들이 그대 로 유산으로 남아 후손들에게 울려주 게 되며 그 유산 속에 우리의 의지와 정성이 담겨 전달된다고 생각할 때 어 느 한순간도 소흥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리라 생각된다.(*) gran analizad, distribusci distribusci adali a

주택의 찻

趙聖烈 큐빅디자인연구소 대표



납향에 커튼월 창을 두고 경사지붕에 돌충창을 둔 집

새집을 지올 때 창을 어떻게 낼 것 인가 하는 문제에 많이 집착하게 된 다. 주택의 창은 집의 숨통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을 하나의 막힌 상자라고 볼 때 창이나 문은 숨통의 역할을 하 게 된다. 그 숨통이 알맞게 뚫려 있 어야 쾌적한 인간생활을 누릴 수 있 게 된다. 주택에서 창은 세가지 기능 을 가지고 있다. 채광, 환기, 방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 기 능 중 채광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가 고 있는 경향이다. 그래서 주택의 창 문 계획은 채광 면적을 확대 시키기 위해 넓게 계획하게 된다. 실제로 건 축법에서 주택의 창 면적은 그 바닥 의 10분의 1 이상의 채광 면적을 설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넓 은 창을 계획하는 데는 두 가지 문 제점이 있다. 하나는 보온의 문제이 며 다른 하나는 열고 닫는 문제이다.

보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꺼운 유리, 패어 글라스 등의 열차단 유리를 사용하며 여닫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창을 설계할 때 고정 부 분과 개폐 부분을 구분하여 고정 부 분은 넓게 배치하고 개폐 부분을 작 게 두어 열고 닫기 편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의 자연체광은 적절한 밝 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인 체의 보건 위생상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창을 통해 채광을 조절하는 것 은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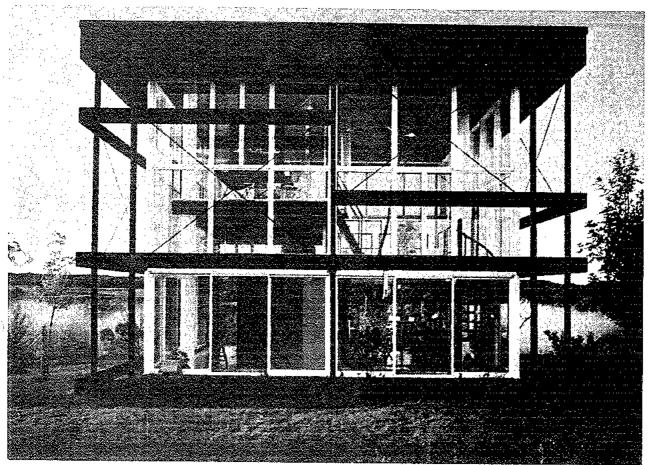
한낮의 직사광선은 사람에게 유익 하지 못하며 실내의 조도분포도 고 르지 않게 되므로 창에 커튼을 치거 나 차양을 하여 빛을 조절한다. 창의 면적이 적어 채광을 많이 받지 못할 때는 반사율이 높은 내장재를 사용하 고 실내 색조를 밝게 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대기권에 확산되어 비추고 있는 태 양빛은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가 각 다른 조도, 다른 분위기를 만든 다. 채광창은 그러한 자연의 빛을 실 내얘 적절하게 유입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창의 계획은 채광면적을 확대시키 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 창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창은 실내의 채광 이 잘되는 한 벽 또는 두 벽에만 배 치하는 것이 좋다. 재래주택에서는 작은 창을 여러 군데 두는 경향이었 으나 이는 실내 공간에서 산만한 느 낌을 주며 따라서 불안정한 실내가 된다. 또한 작은 창이 사방에 뚫려 있는 집은 외부 경관도 조잡해지기 쉽다.

환기는 주택의 내부에 외기를 공급 하거나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내공기를 맑게 하고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것을 공기조화라고 한다. 창을 열고 닫는 일은 공기 조~ 화를 위해서이다. 환기의 적절한 조 정은 공기 정화 이외에 악취 제거, 부패 방지 등을 같이 해 줄 수 있어 야 좋다. 인체는 온도와 습도의 변 화에 민감하다.

주택에서 환기의 목적은 맑은 공 기외 공급과 유지로 실내 공기를 조 절하여 인간이 쾌적함을 느끼는 실 내 환경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실내 환기의 효율을 위해 남・북 또 는 동ㆍ서의 방향으로 창 배치를 하 게 되는 현대주택에서는 남북, 동서 방향의 통풍을 위해 창의 반대 방향 에 작은 구멍을 뚫어 주는 일이 있 다. 그런 배기구도 개폐식으로 하여



●사방의 자연 환경을 실내와 연결시킨 글래스 하우스

실내와 옥외에서의 장식적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한 실내에서 외창을 두는 경우는 채광 면적의 확대와 외부 경관의 시각 확대를 위해 창을 넓게 배치한다.

요조음에는 채광 기능의 창과 환기 구를 독립시켜 창의 기능을 다 하게 하는 설계가 되고 있다. 체광 부분의 창은 고정시키고 환가창은 개폐식 그 될 창으로 하여 도난 방지와 열손실 방지 효과를 내게 한다. 여태까지 주 택의 환기는 외기에 의존하여 왔으 나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서는 와기 조건이 환기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불충분하므로 도입와기용 에어필터 (Air Filter) 같은 것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 배치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창의 전망이다. 창을 통해 내다보는 전망이 좋아야 한다. 창의 전망은 주택 배치 계획에서 부터 고 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거실 과 식당에서 내다보는 전망은 특히 좋은 곳을 택한다. 작은 정원 또는 넓은 자연의 파노라마가 창을 통해 전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택은 자연의 재해로 부터 목을 보호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고, 창은 주거공 간과 자연공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반든다. 창의 디자인은 그 기능 충족에 입각하여 디자인 되어야 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창의 디자인은 1 차적으로 건물 전체의 균형을 생각해야 하며 다음으로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고려하여야한다. 창의 윤곽을 만드는 창틀과 창살은 장식적인 선을 이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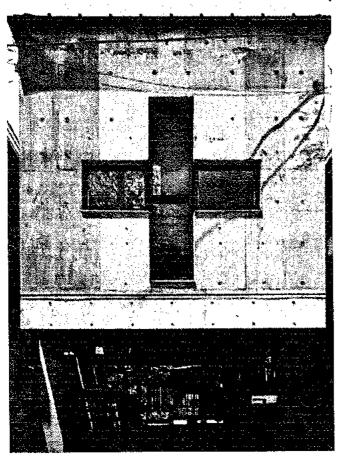
창틀과 창살은 창 전체를 분할해 줌으로써 창을 구성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창에서는 흔히 창틀과 창살을 목재로 제작하여 목 질감을 살리고 있다. 현대주택에서는 디자인에 따라 항틀이 감추어지고 유리면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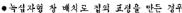
그러나 창 부분에 포인트를 준 경우의 주택에서는 창틀과 창살의 윤곽을 강조하기도 한다. 창살 디자인은 규칙적인 분할 원리에 의한 것과 선의 구성적 원리를 살린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칙분할의 창은 가능한한 단위창이 정사가형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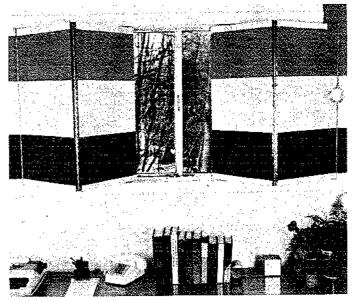
전체 창의 면적에 비해 세분할 된 작은 창틀의 안정감과 균분감 때문이 다

구성적 창살은 수직 수평선을 포함하여 사선, 곡선까지 혼합될 수 있는 상점이 있다. 유리의 대형제작이 가능해진 요즈음에 와서는 대형창을 많이 만들게 되었다. 대형창의 경우는 창살을 가능한 한 줄여서 디자인을 단순하게 해야 창이 넓고 시원해 보인다.

대형창은 집의 인상을 강하게 해준다. 창이 작고 구조가 복잡한 구식창과 현대건축의 내형화된 창은 그 표정이 같지 않다. 방범의 기능에 치중한 창은 창틀의 디자인에 치중하여 방범창의 복잡하고 차거운 느낌을 커버해야 한다. 원래 우리나라 주택의고유한 창은 목재 구조물에 창호지를 붙여서 만든다. 창의 주마감재를 유리로 하는 것은 서양식 창이다.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창을통해 전망을 볼 수 있으며 유리를 통해 전망을 볼 수 있으며 유리를 통해 작사, 굴절되는 자연광선을 받으므로 건강상 좋은 면이 있다. 그러나 한낮의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아고디온 장식 판넬로 창박을 형성한 실내

커튼을 치거나 유리면을 반투명의 상태로 만들기도 한다. 벽면의 일부로서 벽에 면해 있는 창은 거의가 수직면으로 고정된다. 경사진 창은 건축 외장적으로 일반창과 판이하게 다른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것은 건축의 외관에서 그렇게 느끼게 되며 내부공간에서도 다른 맛을 느끼게 해준다.

경사지붕을 따라 설치하는 창은 대체로 체광 중심의 고정창이 많으며 지붕창이라 해도 개페식 수직창으로 서 창처마를 돌출시켜 독립시키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사창은 태양열 주택과 온실에서 이다. 솔라 하우스나 온실은 경사진 창의 높은 채광 기능과 물매를 살린 대표적인 경우이다. 현대주택에서 경사창이 자 주 계획되고 있는 것은 경사창의 장 점 자체보다는 창의 상식적인 개념을 넘어서 새공간을 창조해야 한다는 의 지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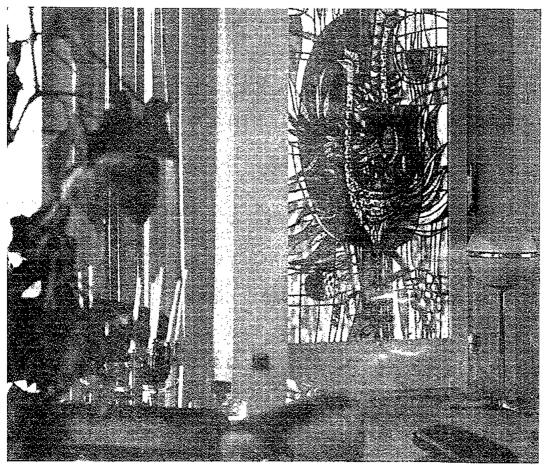
경사창은 창의 배치와 설치 방식 이 기존창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 준다. 경사창온 곡면창과 같이하늘에 면하기 때문에 벽을 넓게 살려 주어 시원한 공간을 느끼게 해 준다. 경사진 지붕에 배치된 창은 주로지붕에 면한 방을 위해서 낸다. 그러나 피라밋형 주택에서는 집 전체가 삼각추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창을 돌총시켜 내게 된다. 그래서 경사지붕 위의 창은 마치 그 집의 눈과 같은 인상을 주계된다.

·대개의 경우 지붕 위의 창은 돌출 된 창지붕을 다시 형성하여 수지으로 창을 설치한다. 지붕방이나 경사 진 벽의 실내에서 그 창은 외부로 돌 출되며 그만큼 실내공간의 용적이 커 진다. 경사벽 실내에 뚫린 창은 직 각과 사각의 대비를 형성하며 시원 한 외부를 전망하는 곳이 된다. 현대 주택의 경사지붕은 그 각도가 45% 또는 그 이하로 설계한다. 45%로 경 사진 지붕의 창은 그것이 수직으로 되고 창지붕이 수평이 될 때 안정감 이 생긴다. 창지붕은 수평 슬라보가 되고 돌출 부분의 측면은 한 개의 직 각과 두 개의 45%로 이루어지는 삼 각형이 지붕에 면하게 된다.

사진의 지봉창은 그런 비례로 설계되었으며 자연 슬레이트 지봉 위에 노출 콘크리트 창지붕이다. 원형실내의 창은 원형으로 둘러진 벽과 같이 곡면으로 되어야 한다. 벽을 따라형성되는 구부러진 창은 지금까지 창살을 많이 두어 여러 개로 분할된 평면의 연속이 되게 하였었다. 그러나현대에 와서는 창살이 없는 투명 창을 많이 설계하고 곡면 유리 가공기술이 발달되어 벽체와 똑같이 곡면 창을 내고 있다. 곡면 유리창은 대형화하여 고정창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곡면창에서의 개폐 부분은 고정 부분과 독립시켜 양쪽으로 분할시켜 배치하며 슬라이딩식보다 스윙식 방 법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형실내의 채광창으로 잘 쓰이는 것 중 글라스 볼록이 있다. 글라스 블록은 곡면 형성이 가능한 작은 단 위의 유리제품으로써 투광율, 단열효 과, 내구력이 높은 건축제료이다. 창 은 외관으로는 주택 표정의 포인트 가 되며 실내에서는 실내의 눈 역할 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창은 사각



●장식창의 표본이 되고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 창

형으로 디자인 한다. 창의 고정형이 사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에 비해 원형창과 삼각형창은 개성적인 장으로 눈에 잘 뜨이는 형 이다.

창이 뚫린 실내에서나 창이 보이는 건물에서 창은 하나의 경관을 이루 는 것이므로 그것이 아름답게 인식 되어야 한다. 창외 본래의 기능인 통 : 풍 채광원의 역할을 하면서 장식적 가치를 지뎌야 하는 것이다. 창의 아 름다움은 근본적으로 창의 윤곽, 창 외 배치, 창살 디자인에서 유발되는 것이지만 창의 장식은 문양유리, 창 호지, 커튼, 창막 등으로 하게 된다.

창 장식은 창의 윤곽 부분에 하는 경우, 창년에 하는 경우, 창년에 하는 경우, 창 가리개로 하는 경우 등 몇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창의 윤곽 장식은 거의가 진축계획에 의해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창물 부분에 첨가하여 장식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벽면을 장식하는 것은 투명 상태의 유리에 디자인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에 문양을 부식시키거나 문양 유리를 사용하는 것, 유리에 코팅을 하는 것, 유리 위에 장식지를 바르 는 것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창면 자체를 장식면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스테인드 글래스이다. 창면의 장식은 채광 기 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채광의 반차단, 시작 공해의 차단을 고려한 장식면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창면 장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창호지이다. 엷은 문양이 들어 있는 창호지나 문양을 인쇄한 창호지는 촉감이 부드럽고 장식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또 창면장식에 많이 쓰이는 것은 접착 비닐 테이프는 비교적 쉽게 다를 수 있는소계이다. 창면 장식으로 쉽게 오랫동안 써온 방법 중에 유리 표면의 샌당이 있다.

투명 부분에 샌딩 처리를 하여 유리면을 재미있는 장식면으로 바꾸는 것이다. 필요한 디자인을 테이프와 종이로 메꾸고 나머지 부분을 센당처리하면 엷은 문양유리가 되며 반영구적인 장식면이 될 수 있다. 창 장식을 하는 데 있어 창가리개 장치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다. 창 덮개, 창가리개로 하는 창의 장식은 커튼, 블라인드 커튼, 창막, 발 등 을 창과 독립시켜 치는 것인데, 투명 유리창이 제 기능을 하도록 두고 창 에 면해 설치한다.

창가리개 장치는 다양한 소재의 장 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소재를 이용하든지 그것은 창과 분리되어 치 장되며, 창과 벽과의 관계에서 장식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창면에 장식을 넣는 것은 고정장치라는 제한 성이 있으나 창가리개 장치는 개폐식 조정 장치라는 장점이 있다. 창의 윤 과 또는 벽의 윤곽에 맞추어 설치하 게 되는 커튼은 한 실내의 차장벽 역 한을 하게 된다. 창가리계는 그 어떤 방법이거나 광선 조절과 시각 차단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광선과 창가리개의 관 계에서 생기는 장식 효과는 온은하고 선명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超에너지 절약형 施設에 대한 試験成果

— 日本, 大林組 技術研究所 연구결과 조개 —

다음은 지난 2월19일부터 8일간 일본 건축사회연합회 초청으로 渡日했던 대표단 이 (株)大林組技術研究所署 방문. 同 연구 소가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署 위해 각종 에너지 절약사설에 대한 시월성과을 종합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金 — 榮/ 통신건설공사대표·본협회 에너지연구분과위원

우리일행이 大林組技術研究所(OH-BAYASHI-GUMI Technical Reserch Institute)를 방문한 날은 아직도 잔설이 녹지않은 쌀쌀한 2월 21일 오전 10시반경이었다.

大林組技術研究所 건물이 들어앉은 下清戸(Shimokiyato) 란 이곳은 東京 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清瀬市 (Kiyose) 전철역에서 택시로 10분거 리에 있는 전원적인 분위기로 둘러싸 인 아늑한 곳이였다.

우리들은 本館(Super Energy Conservation Bldg)에 있는 상황실에 안내되어 약 30분에 걸친 연구소장의 현황 설명을 들은 후에 각 研究棟의 현장 답사를 하였다.

동연구소는 1948년에 大阪에 연구부를 설치하여 1965년에 이곳으로 옮기면서 技術研究所로 조직 개편하여 (지금은 연구소장 아래 차장이 있고) 1개 사업부(3개課)와 10개 연구실을 가지고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음향, 화학 등 모든 분야에 건찬연구를 하고 있는 곳으로써 대지면적 71.486㎡ 위에 10여동의 연구건물들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超에너지 절약 건물(Super Energy Conservation Bldg)에 관한 것으로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로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분야였다.

동연구소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이 건물은 태양열이용과 동시에 건축 물 자체의 에너지 절약형 기법을 연 구개발하여 일반건물에도 응용하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실험적으로 건축한 超에 너지 절약형 건물은 건축면적 886.85 ㎡, 연면적 3,775.84㎡의 지하 1층 지상 3층과 옥탑층이 있는 사무실 건물로서 에너지 자원이라고는 전력 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난방을 위한 보일러 시설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冬節期(에는) 난방문제는 태양열에 의하여 18°C ~23°C의 온 도를 유지하고 夏節期에는 23°C~25° C의 온도를 유지하는 건물을 건축 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 기후 조건, 특히 日照量 문제 및 경제적인 문제 등이 뒤따로는 문제이긴 하나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분야인 것만은 틀림없기에 이들이 超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완공 후 1년간 측정한 연구결과 중에서 효과적으로 입증된 局部에너지 절약 수법 4가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의 업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동연구소에서는 超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총 98가지의 수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세부사항은 1983년도 3월호 建築土誌에 한국동 력자원연구소 朴相東氏가 소개하였으 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먼저 이 연구소에서 超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완공한 후 1년간 측정한 에너지 소비 상대와 이 건물에 근무하는 164명으로 부터의 설문서 내용을 그들의 자료에 의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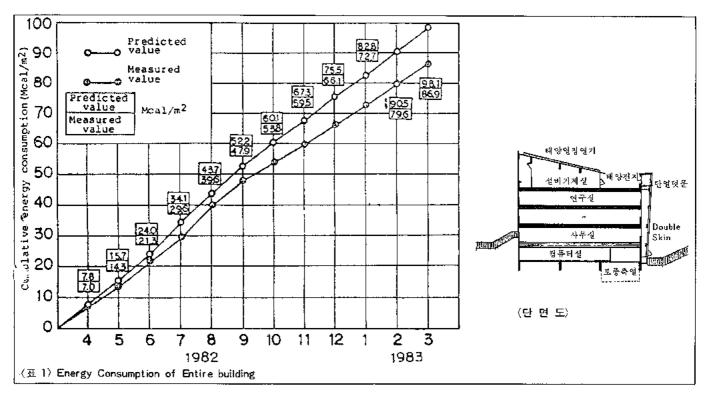
1. 에너지 소비

(Energy Consumption)

1982년 4월부터 1년간 측정한 이 건물의 단위면적(㎡) 당 전체 에너지 소모량은 図表 1과 같으며 이 건물의 에너지 원은 전력뿐으로서 전기 소모량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1Kwh=2. 45M.cal/㎡年이다. 図表 1에 표시된 予側値는 에너지 절약 계획과 동연구소에서 개발한 수법에 의해 얻은 수치이다.

그런데 본 건물의 실측처는 86.7M. cal/m 年으로서 예측치 98M. cal/m 年으로서 예측치 98M. cal/m 年 보다 12%나 적은 수치로서 일본에 있는 동 규모(정도)의 일반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378M. cal/m 年에 비하면 1/4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정말로 超에너지 절약형 건물이라고하겠다.

図表 2는 전체 건물의 월간 에너지



소모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에어 콘옵 사용하는 8월에 최대로 소모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는 11월 로서 8월 소비량의 57%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는 에어쿨링을 사용함 으로서 8월 소모량의 5~8%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에어콘 외에도 에너지 소 모는 연중 계속 되는데 이 중 최대 소모는 照明電力이며 전체 에너지 소 모량의 9%가 자동제어에 사용되는 데 이는 에너지 절약 향상에 많은 장 에가 되고 있으며 위생과 환기용 에 너지 소모는 그리 많지 않다.

図表 2참조(도표에서 기타는 사무실 자동장비, 컴퓨터, 복사기 등이다.)

2. 室内환경(Indoor Environment)

이 건물의 온도, 습도, 탄산가스농 도를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図 表 3은 에어콘을 가동하는 상태에서 의 연간 室温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하점기와 동절기모두 쾌적한 온도 분포임을 알 수 있으며 하절기의 평균 온도는 23°~25° C 이고 동절기에는 18°C 에서 23°C임을 나타냈다. 각층 온도 측정결과도온도가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습도는 하절기에는 60%, 동절기에는 40%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에어콘을 가동치 않는 상태

에서 농축탄산가스 회석법에 의하여 축정한 자연환기 회수는 대체적으로 0.06회/h로서 이 진물의 공기 밀도 가 높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동절기와 중간기(春秋)의 연구실· 회의실 그리고 사무실의 空気純度는 표준보다 낮고 또 실내 공기가 따뜻함 을 알았다. 특히 코발트 농도는 표준 치(10. PPM)의 1/5 보다도 작으며, 탄산가스, 먼지의 농도도 표준치 (1.000 PPM, 0.15 mg/m)보다도 20 %~40% 낮은 상태임을 나타냈다.

다음의 설문서는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164명의 응답 내용으로서 응답 자의 60%가 室温과 습도에 대하여서 긍정적 답변을 하였으며 室内 照度와 칸막이 설치에 대하여서도 만족한 상 태임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局部 에너지 절약 수법의 실행 수법 4 가지를 차례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 局部 에너지 절약 수법의 実行 (Performance of Distinctive Energy Saving Techniques)

1. 二重外皮(Double Skin)

이 건물에는 온실기능과 흡사한 이 중외피수범(단면도 참조)이 채택되어 하절기의 냉방負荷를 감소시키기위하여 이중외피 내의 더운공기를 상하로 뚫린 드래프트(Draft)를 통하여 자연배출도록 하였으며 동절기에는 태양열에 의하여 더워진 공기를

給気장치름 이용하여 실내로 유입토 록 하였다.

하절기의 이중외피 내의 추간 온도는 外策 온도 보다 3°C~4°C 정도밖에는 높지 않으며 이때 이중외피내의 환기 회수는 50~100회/h 정도이며 유리표면 온도는 태양의 복사열 흡수 때문에 45°C 까지 도달하게된다. 대체적으로 유리표면이 받는 태양복사열의 50%~60%가 외부 유리면에 의하여 차단되고 있으며 30% 정도가 드래프트에 의하여 배출되며 결국 태양 복사열의 10% 미만이 냉방부하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중외 피의 熱負荷 저하 효과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차 열부하 로서 주간 절정기의 17%와 평균적 으로 8월과 9월의 21.8%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었다.

冬節期의 쾌청한 날의 유리표면 온도는 40° C, 이중외피내의 공기는 대략 30° C에 달하였다. 그리고 높은 集熱温度 때문에 集熱効率은 대체적으로 수직복사열의 16%이며 하루평균 $150 \, \text{M. cal}$ 의 열량을 얻게 된다.

1월과 2월 사이의 평균 集熱은 2차 부하의 24.1%와 같다.

2. 土中蓄熱(Underground Heat Storage)

이 건물에서는 중간기(특히 가을)

〈표 4〉雨水利用시설개요

	지붕면적	870 m²	
	도로면(아스팔트 포장)	270 m²	
물이보이는지역	빅 면유리(수작돌출민)	700 m²	
	간디·타일(잔디 490㎡, 타일 20 ㎡)	510 m′	
	그릿드쳄버(Grit Chamber)	4 m²	
te talk A =1.	침전탱크(지하팟드)	9 m²	
水槽용량	雨水 제장 탱크	28 m²	
	고가수조(잠수용)	— 2 m	
처리 방법	모래 침전, 침전		
雨水 利用	화장실용, 냉각답용수, 소화전		
	청소		
사용시작	1982. 6. 1		

〈일람표 1〉설문서(실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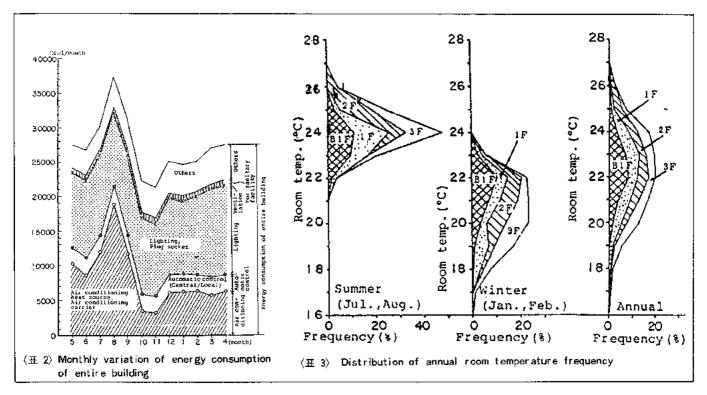




항 목		결	i	eł	
(겨울) 室温자동조철 (여름)	11% 아주 좋다 13%	47% 비교적좋다- 48%		25% -조금나쁘다- 24%	13% 상당하나_ 쁘다 5 9%
室内온도 (겨울)	출다 9%	조금춥다 44%	و	날맞다 44%	뎣다 3%
수직온도변화(겨울)	불만 7% 조금 ·	불만 31%		관하나 62%	0.4/57-58/0.5/65/2
(겨울) 슙도조정 (여름)	李	2적종다 45% 51%	조금불인 15%	[2] 20	물가 % 만 판단분기 3 14%
때 (겨울) 室内공기유동 (여름)	로불만 조규 6% 12% 7% 8%		관없다 70% 80%		7%
室内 환기	비교직좋다 19%	조금불만 37%		상당히불면 36%	7%
카켓 사용	따뜻하게느낌 19%	비교전	적따뜻한 <u>+</u> 66%	= 낌 상당하	기총게느낀다. 10%
실내 조도	아주좋다 12%	바교적좋다 37%	15%	1070	상당하불만 10%
칸막이 설치로 인한 잡업용이도		용이하다 48%	불편 9 %	판단불가 25%	불응답 18%

〈일람표 2〉설문서(조명)

항 목		걸	과		
책상조도	밝다 22%	직당하다 50%	판단쑾	가2 여	서둡다 25%
데스크 조명상	상관없	다 58%	판단불가 3 -	불 쾌	39%
베일의 반사	상관없	다 51% 판단	 난불가 4 ↓	불만	45%
그림자	상관없	다 60%		불만	40%
책상과ambient 조명의 照度차이	상관없	다 51%		불만 49	%
주변디밍(dimming) (100~50%)	상관없	다 62%	판단불	가18%	불만20%
주변디밍(50~100%)	상관없	다 69%	Į.	단불가1	8% 불만13%
휴게실 조도	저당하	다 64%	판단불가 	11%	기품다 25%
타불렛 스위치	찬성 5	8%	판단불	가 35%	불완성 7%



의 남는 태양열을 건물 밑에 매설한 코일을 통하여 축열하고 이를 통질기 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하에 축 열된 에너지는 바닥 스라브를 통하여 지하층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열재생 펌프의 低温熱源으로서도 이용되기도 한다.

1982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지하에 축열하였는데 이 기간의 축열량은 2.42G cal가 되었다. 또한 난방기간 동안의 온수탱크 내의 남는 열도 축열되며 부분적으로는 동절기의따뜻한 기온으로 인하여 온수탱크 내에 발생하는 상당량의 과잉 태양열과 동절기 전체 축열량은 중간기의축열량을 초과하고 있다.

지하에 누적 축열된 量은 3월발 경이면 7.04G cal 에 달하며, 地下 蓄熱槽에서 부터 바닥을 통하여 各室로 방출된 누적열량과 지하 Heat coil을 통하여 회복된 열량은 각각 2.01 G cal과 0.81G cal 이였다. 다시 말하면 2.82G cal 로서 이는 전체 축열의 40%가 난방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말한다.

3. 에너지 절약형 조명(Energy Conservation Lightion)

- 이 건물에서는 조명절약을 위하여
- 1) Task/Ambient Lightion 方式
- 2) 昼当 利用照明 方式
- 3) 타브랫트(Tablet)형 스위치 사

क्र

시간세 계획조명 제어방식 등과 같은 수법

이 체택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연간에너지 소비량을 34,2M. cal/m'年으로 절약할 수 있었으며 이 소비량은 일반 건물의 1/3 정도이며 일본에 있는 다른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1/2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 건물의 昼光利用으로서는 남측 창 옆의 조명기구들이 昼光의 투사정 도에 따라 100%, 50%로 자동통제되고 있으며 나머지 방들의 조명기구들 은 자동적으로 ON-OFF 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명상황에 따라 작업 테이블의 照度는 균일하게 誤誇照度 (6501x)를 초과하였다. 그 외에 설문 서에 대한 답변으로서도 이 건물의 조명환경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만족 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4、雨水利用(Use of Rain Water)

자원절약적인 면에서 지붕, 도로표면 그리고 정원의 잔디표면에서 흐르는 빗물을 저장하여 간단한 처리를 한 뒤 화장실이나 냉각탑 용수로 이용하였다. 여러 곳에서 흐르는 빗물은 Grit Chamber에 보내지고 또 참전탱크로 보내진 뒤 흙이나 모래등을 걸러낸다. 표 4는 雨水利用 施設의 개요이다. 1982년 6월부터 1983년 5월까지 1년간 측정한 결과

에 의하면 화장실 용수의 86%와 이 건물 전체 소비수량의 35%를 雨水와 설비시설에서 排出되는 물로 충당하 였다.

주기적인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최초 사용에 나타난 조금 높은 PH (수소이은의 지수)를 제거한다면 이 빗물은 화장실용이나 냉각탑 용수로 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결론적으로 동연구소에서는 超에 만들기 위하여 너지 절약형 건물을 총 98가지의 수법을 이용하여 연간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86.7M. cal /m'年이란 획기적인성과를 얻었으 며 이 수치는 목표치 98M. cal/m 年 보다 12%나 적은 수치로서 日本에 있는 일반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의 1/ 4 이란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러 므로써 위에서 설명한 局部에너지절 약 수법 즉, 이중외피 수법, 土中蓄 熱 수법, 에너지 절약형 照明, 그리 고 雨水利用 수법 등의 効果는 입증 되었다. 앞으로 측정과 평가는 계속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일반건물 건축 에도 적용될 것으로 믿는다.

참고/OHBAYASHI-GUMI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Environmental Laboratory Letter

□傳統建築/現住所

韓国建築의 平面

金 東 賢

(文化財研究所/保存科学研究室長)

● 平面의 概念

평면을 설정하는 것은 예나 지금 이나 건축계확의 기본요소이다.

현대건축의 평면계획은 건물이 요구하는 목적을 충족시키고 기능화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평면분석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형태의 결정이 計劃学的 방법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환경조화성· 수용성· 기능성(動線問題)·収藏性·생활존중 성 등등의 갖가지 여건을 어떻게 파 악하고 어느 정도 평면에 함축시키 느냐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낸다.

人知発達과 생활의 복잡화 경향은 평면에 함축할 내용을 잡다하게 갖게 되므로 점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든 난제가 된다.

난제를 해결한 후예야 형상의 구상 이 시작되고 기능의 합리화 검토, 또 意匠計劃이 수립된다. 형상(형태)과 意匠은 종국에는 数理学的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므로 바레나 조화미를 얻 는 작업이 그것을 도외시하고는 이 루어지지 않는다. 한자 혹은 두자의 가감이 美醜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 며 건물의 하나 하나, 하나하나의 室 空間은 건축목적에 따라 그 형태나 크기가 결정되지만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척도이며 척도의 응용이 비례의 기본이 된다. 비례는 基本単位尺 (Moudule) 이라는 기준이 없이는 형 성되지 않으며 모든 여건이 제시하 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그 것을 具象化하는 것은 기본 단위적으 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건축 평면계획 방식은 현대의 평면계획법과 꼭 같은 내용을 충족시키려고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생활이 현대보다 단순하고 건축에 대한 요구조건이 복잡하지 않았던 당시는 지금보다가벼운 평면을 계획하는데에 이르고있다.

내용은 그러하더라도 평면을 구성 하는 방법은 즉,基本単位尺을 써서 비례를 잡는 수치에 대한 개념은 마 찬가지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비례를 애호하고 어떤 특정수치를 즐겨 사용하였는지의 구명은 당시의 조형사상과 종교의 儀軌, 그리고 당시의 数理內容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시대의 내용을 구명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上下의 시대와 연관지어 계통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통화되고 종합된 정보를 다시 분류하고 분석하면 근본적인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는 일 은 장차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여기 에는 그것의 기본자료를 검토하고 거 기 어떠한 기초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는가의 방향만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한 방법으로 조사된 木造建築의 평면 실축치를 모아보고 그것을 몇가 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조사된 목조건물이 전시대를 통하여 가장 대표적이라거나 통계학에서 말하는 어떤 자료의 채취법 같은 것을 적용하여 抽出한 것은 아니나 기왕에 조사보고된 자료를 기계적으로 모아본 것에 불과하다. 이 중에는 직접 실촉한 것도 있지만 타인에 의하여 보고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실측치를 근거로 하여 평면의 정면 対측면 비례를 잡아보고 비례는 曲尺을 用尺으로 한 실측치를 이용하였다.

曲尺파 각 시대 用尺에는 相差가 있어 비례치가 完数로 떨어지자 않았 으나 비례를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平面의 種類

평면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정방형 ·장방형·육각형·팔각형·십자형· 방형의 결합형과 扇形·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정방형은 고구려 고분에서 정방형 평면유형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고 려 및 조선의 건축물과 삼국시대 이 래의 塔婆에서 볼 수 있다.

정면과 측면의 비가 1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비례치라 볼 수 있다.

静的均斉理論이나 動的均斉理論에서 비례기준이 1이라는 수치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일차원적 길이比나 이차원적인 면적비에 보편타당한 수이 그 그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이다.

정면 1間 측면 1間의 건축은 이와같이 그 비례가 기본적인 유형을 보인다.

정방형평면은 동양인뿐만 아니라 고대 서양인들도 즐겨하였음을 유적 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美学者들은 정방형을 통일적이고 단순한 것이라고 하며 장방형을 원시형 태라고 한다. 장방형은 정방형 보다 복잡성을 띤 것이라는 견해인 것 같다.

장방형 평면유형은 東·西洋건축의 평면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이에따라 ¾ 事 横이 어떠한 비례로 결정되어야 가장 아름다운 사각형이 되는 것인가 는 학자들의 이론이 많으며 실제 시 혐도 많이 되었다.

서양학자들은 전체성·통일성·상 관성 등이 静的均斉理論과 動的均斉 理論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고 이는 자연계의 현상과 인위적인 현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즉 이것이 장방형 평면유형 등 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목조건축에 이러한 이론의 바탕이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다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아름다움을 추 구하다 보니 그 결과를 얻게된 적이 있었는지 또한 가장 아름다운 사각형의 개념이 어떠한 것이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흥미있고 유 익한 일이라 생각된다.

지역성의 차이 때문에 사각형의 설정개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아름다움의 본질은 같은 것이라는 것에 따라 서양의 아름다운 표상과 끝을 수도 있다.

장차 형성될 한국식 건축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 시 딛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우 리나라 건축의 대부분이 장방형이므 로 그것을 구명할 자료는 충분히 찾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팔각형과 육각형 평면은 우리나라 의 경우 그리 혼하지 않다.

건축물로는 고구려시대의 평양 清 岩里寺址(伝 金剛寺) 및 평양 元五 里寺址의 八角殿址와 고려시대의 개 풍군 興王寺址八角塔殿址 등이 보고 되어 있고 八角円堂을 본뜬 浮屠나 月精寺石塔 등을 위시한 몇몇의 유 물들이 있을 뿐이다. 六角·八角形 평면유형이 적은 것은 건물이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육각형은 평면으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여 경복궁의 香速亭 등 소규모 亨榭類에 이용되었을 뿐이다.

혼하지 않다는 뜻은 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정복궁에서는 香 遠亭이, 비원에서는 尊徳亭이 하나의 액센트로 전체 진물배치의 点睛과 같 은 역할을 하고 있다.

圓에 내접하는 육각형의 일변을 羨 道로 통하는 개구부로 이용한 석굴암 의 평면은 圓에 내접하는 육각형 평 면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이다.

八角의 실제 구성은 정방형의 대각선을 2등분하여 전개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듯 하다. 지금도 古建築大木들은 道里나 둥구리기둥을 治木할 때이와같은 방법을 쓰며 그 수법은 오래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八角構成이 정방형을 기조로 대각선 전개법을 썼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을만한 数理学과 幾何図法의 이론과 훈련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것을 소화할만한 지식이 삼국시대에 이미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前漢代에 이미 周髀算 経이라는 高等数学이 나와 피타고라 스의 정리라는 것과 대등한 이론을 설과하였고 圓과 方과의 관계를 구명 하였다.

後漢末의 九章算術도 周髀算経과 같 이 開平・開立・聯立方程式에 관한 문제와 圓周率의 문제를 말하였다.

그리고 宋나라의 李明仲은 営造法 式이라는 책에 諸径圍斜長에 관한 摘 記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그는 圖方 과 方圖에 대하여 圖面으로 설명하였 다. 圖方에 圓에 내접한 정방형을 말 하는 것이고 方圖은 정방형에 내접하 는 圓을 외미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數理를 기조로 하는 算法 이나 정방형을 기본으로 면적을 산출 하는 방법 등은 稅政上에 뿐만 아니라 조형예술분야에 까지 파고들어 특히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되다

고구려유적 중 古墳天井과 평면·도성·궁궐이 방형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된 것이라든지 井田制의 方格区分法 등의 기술은 幾何図法応用을 말하

여 주는 것이다.

정방형의 대각선 전개에 의한 矩形 設定은 낙양의 助王里6号墳과 평양 清岩里建物址, 부여 軍守里寺址의 金 堂址 등에서 밝힐 수 있다. 또 勾股 弦法(소위 피타고라스정리)을 응용한 矩形을 불국사와 千軍里寺址에서 찾 아볼 수 있다.

十字形 평면유형은 六角·八角平面처럼 혼하지 않은 특수한 것에 속한다. 장방형을 교차시키는 発展形의이 평면은 기교를 싫어하는 선인들에게는 별다른 흥미를 주지 못하였던듯 조그만 정자나 石造塔婆 등에 이용하였다. 敬天寺址多層石塔과 圓覺寺址多層石塔이 이 평면을 가졌다.

창덕궁 비원의 부용정은 十字形平面을 한층 더 발전시킨 아주 드문 평면을 보인다. 부용정은 정면5間 측면 4間 背面 3 間의 3 対 4 対 5 의 기법으로 평면에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평면형식은 고대 서양의 Vesica Piscis(魚類・부래) 이론의 평면계획수법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부용정의 평면이 고대 서양의 그것 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도 그 유형이 흡사하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方形과 圓形이 합쳐 한 평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前方後圓 혹은 前圓後方이라고 부르는 드문 유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암을 대표적인 것으로 자목할 수 있다. 이 合成平面은陰陽思想에서 陽은 天, 陰은 地로 또는 天은 圓, 地는 方이라고 해석하는 이론에서 연유된 것인 듯하다. 인도나 그리이스의 아트레우스 宝庫 혹은로마의 판태운 신전 등에 즐겨 사용한 예도 알 수 있다.

神殿・幽宅의 평면으로 적합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고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의 특성은 모두가 목조건물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시공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積疊構築으로 짓는 건물의 평면으로 사용되었다.

合成平面에 方形이 겹치는 것이 또하나 있다. 이것도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흔하지 않은 평면유형인데 앞에의 목적을 같이하는 건물을 목조로지을 때 흔히 사용되었다. 中原 硼物堂里 석굴사원법당이 이 평면 위에

만들어져 있다.

方形平面의 변형은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 수원 訪花隨柳亭, 평양 崇仁殿, 밀양 讀兩樓, 남원 廣寒樓 등은 각기 특유한 모양을 한 것이고 正殿 애 翼舎가 붙는 것, 丁字形으로 된 것 등 다채로운 예를 열거할 수 있다.

평면은 權威建築의 경우 건물 架構 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것 같다.

궁궐의 正殿은 권위를 상징하는 七 樑이나 九樑으로 짓기 위하여 그에 맞는 평면을 택하였고 寝殿은 법규에 따른 평면 위에 지어졌다.

문은 큰문과 작은문이 구별되어 큰 문은 그에 따른 평면에, 작은 문은 또 그에 합당한 평면에만 지어졌다.

목조건축만이 갖는 한제성 때문에 이러한 규약이 저절로 만들어 지게 되었고 그것이 체계화됨에 따라 평면 도 몇가지로 집약되기에 이르렀을 가 능성이 크다.

기본이 되는 방형유형의 평면에서 법전이나 사원의 金堂은 平柱群 전 체의 병면을 폐쇄하고 정면에만 출입 구를 개방(경우에 따라 축면과 배면 에 또다른 출입구를 만들기도 함)하 였으며 高柱群에는 병체를 만들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文廟‧鄉 校의 정전은 高柱群을 전면에만 두어 槌륨 만들지 않고 前面平柱群全間을 개방하고 高柱群과 三面 平柱群간에 병을 치는 것이 기본으로 되었다.

사원건물의 조그만 殿閣들은 高柱 群을 後列 한줄만 두는 방법을 창안 하여 측면이 3間으로 박유되도록 의 장된 것도 있다. 이에따라 평면을 호 청하는 용어도 다채롭게 발전하였다.

중국에서는 건물의 규모를 크게 잡기를 회망해서 高柱의 대거 등장으로 한층 복잡하여져 일일이 그 이름을 열거하기가 번거로운 정도이다.

동양과 서양의 평면 중 특이한 것 은 개구부 설정에 있다.

서양에서는 평면의 단변에 개구부를 두어 출입할 시설을 만드는데 동양에서는 장변에 출입구를 만들어 門扉를 단다. 이에 따라 개방면적도 차이가 생기고 실내장치와 収藏性에도 相差가 생기게 되고 門扉와 가구처리도 서로 다르게 되었다.

동양건축평면의 또 하나 특색은 2 층의 평면이 아래층 평면에 영향을 주는데 있다. 서양진축은 2층 평면을 2층에서 해결한다. 이는 사용자재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인 듯하다.

목조건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2층 평면을 구성하는 隅柱를 하층 평면 평면에서부터 끌어 올려간다. 따라서 하층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隅高柱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多層塔婆의 경우에는 初層中心点에 刹柱를 세워 상충에까지 치솟도록 한다. 이럴 때에는 初層平面에 초충과 는 직접 연관이 없는 隅柱와 刹柱가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塔婆이지만 雙峰寺大雄殿같이 心柱 와 隅柱를 2층부터 처리한 예가 전 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예외에 속하는 것이다.

평면의 설정은 기본단위최(Moudle)에 따르는 것이지만 반대로 평면이 목재의 규격을 한정하기도 한다. 가 령 5間짜리 집에 쓸 크기의 재목은 7間에 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평면의 방향은 남향을 정면이라 하여 長辺을 道里間이라 부 르고 동·서면은 측면이라 하고 短辺 을 楔間이라 부른다.

도리간은 그 위치에 따라 中央問을 御間이라 하고 중앙간 좌우의 問을 夾間이라 한다. 협간 좌우의 端을 退 間이라 하며 그 위치에 따라 동·서 퇴간으로 구별지어 부른다.

보간의 중앙간은 역시 어간이라 하고 중앙간 좌우를 협간, 그 좌우를 퇴간이라 부르나 위치에 따라 전·후 퇴간으로 나누어 부른다.

도리간 5간은 중앙간인 어간 1간과 좌우 협간 각 1간 및 좌우 퇴간을 통 들어 말하는 것이고 보간 3간이라는 것은 御問単問에 전·후퇴간 2간이 불은 것을 지칭 한다

●柱間数 比

우리나라 현존목조건축평면의 도리 간과 보간의 柱間数를 보면 도리간은 下限이 1간이고 上限이 15간이며 주 로 奇数間, 즉 1·3·5·7·9· 15간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다. 보 간은 1간으로 부터 6간까지의 奇数 와 偶数를 자유로이 구사하였다.

도리간은 대부분 기수이지만 간혹 偶数를 쓴 것이 없지 않다(예: 전주 松廣寺応眞殿) 偶数는 대부분 주택건 축에 偏在하며 권위건축에는 이용도 가 회소하다.

偶數로 도리간을 나누면 정면 중앙에 기둥이 오게 되며 건물중심이 기 : 등 하나 때문에 効用率을 감소 하게 된다.

내부공간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 입구가 갓으로 처지는 것에 따른 여러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가 구의 구조상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기능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 이고 일차적인 것은 당시의 사상과 조형심리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동·서양이 정면간(서로 개념과 경상은 달리하였지만)을 기수로 설정하는 데에는 그에 필요한 신념이 있었을 것이다.

권위건축은 민중을 제압하고 민중 에게서 복충을 강취하려는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민중이 가질 수 없는 未統함과 권위를 표정하는 갖가지 요소를 가미하여야만 되었다.

기수로 정변을 잡아 列柱의 중앙이 통로가 되게 한 것도 그러한 의도의 하나이었다.

道里間과 보간의 平面構成

		_			
보간 도리간	1	2	3	4	5
1	1×1	1×2			
2	2×1	2×2			
3	3×1	3×2	3×3	3×4	3×5
4	4×1	4×2	4×3	4×4	
5	ľ	5×2	5×3	5×4	5×5
6		6×2	6×3	6×4	
7		7×2	7×3	7×4	7×5
8				8×4	
9				9×4	9×5
10				10×4	
11			:	11×4	11×5
12					
13					
14					
15		15×2			15×5

정면의 길이를 정한 후에 축면을 처리하는 것도 동서양이 같았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떠한 수의 間을 즐겨 썼는지 또 도리간과 보간 의 비례가 어떠하였는지를 나누어 보 면 대략 다음과 같다.

도리간 1간과 2간의 평면형식에 보간을 2간 이상 잡지 않았다.

도리간 3간은 1간부터 5간까지 의 보간을 가졌다. 도리간보다 2간 이나 더 많은 보간을 잡은 점은 주 목된다. 도리간 3간에 보간 3간이 상의 평면은 정면의 길이가 짧고 측 면의 길이가 긴것 같은 인상을 주나 실제로는 도리간의 주심간 거리는 넓 고 보간의 거리는 짧게 잡아 조화를 의하였다. 도리간을 3간으로 잡는 평면형식은 우리나라에서 즐겨 쓰였 다. 또 다채로운 변화도 있다. 앞에 민찬 도리간보다 보간을 많이 잡은 것도 이 도리간 3 간형식에서만 찾

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도리간 4간의 평면형식도 많다. 이 偶数間은 궁전이나 사원에서 침전 이나 僧寮로 많이 쓰였다. 민가에서 가운데에 대청을 두고 좌우에 방을 드려 3간으로 잡는 기본법에 대청 한간을 추가한 형식이다. 정전이나 법당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 평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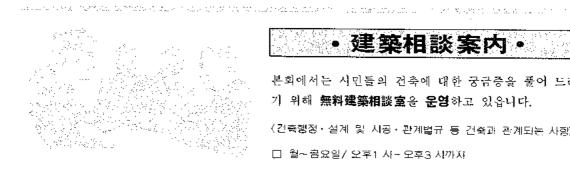
도리간 5간의 평면은 도리간 3간 의 평면형식과 더불어 많이 쓰였다. 보간은 2간에서 5간까지이며 사원 에서는 講堂類의 건물과 궁궐에서는 법전 등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또 한 보간을 3간이나 4간으로 잡은

젖이 通式이다.

도리간 6간 이상의 평면형식은 큰 규모의 건물평면에서 볼 수 있고 그 중 도리간 7간 평면은 도리간 5간 평면형식과 함께 도리간 3간평면 다 음으로 많이 쓰였다.

도리간을 종류로 나누면 대략 12종 으로 분류되고 보간은 6종으로 구분 된다.

보간으로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은 4간이며 그 다음이 2간이다. 보간 으로는 間数가 적은 1간이 평면형식 중 제일 적게 사용되었음도 읽을 수 있다.(*)



• 建築相談案内 •

본회에서는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 기 위해 無料建築相談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설계 및 시공·관계법규 등 건축과 관계되는 사항》

□ 월~ 꿈요일/ 오후1 사~ 오후3 시까지

□ 서울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별관 723 - 6258 · 8059

소비자는 국산에호 기업기는 품질향상

in the property of the companies of the second of the companies of the com

感傷紀行 2

金 錫 澈/건축연구소 아키반

●건축은 예술이나 공학이나 사회학적 체험이 아닌 도시에서의 인간집합이 갖는 본래적 언어 인 것……

필라델피아('83.1.19)

워싱턴에서 인터스테이드 하이웨이 를 북상하여 필라델피아로 왔다. 인 디펜던스파크와 여러 유적들을 보았 다. 생각보다 스케일이 작았으나 하 나 하나의 장소들이 미국 독립과 관 련된 중요한 증거들이고 주위가 200 년 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새로 선 건물들은 이 장소들을 의식하고 지어져 비교적 기념적 장 소로서의 구색을 갖고 있다. 인디펜 던스홀은 그림에서 많이 보던 독립 선언 당시의 광경을 그대로 보존하 였다. 외자며 첵들이며 펜들까지 당 시 그대로의 상태로 있고 중앙홀 건 너의 의화도 본래인 13주 대표석은 물론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복원 되어 있다.

일층은 우측이 독립선언 당시의 홀 작측이 펜실바니아 의회다. 아층은 점무실과 식당인데 당시의 식탁보와 테이블웨어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독립 당시의 그들의 집단 목적이었던 자유에의 신념을 일상 속에 역사 속에 사회 속에 환기케하는 중요한 장소적 확인일 것이다. 자유의 종은 기울골라의 새 설계에 의해 유행첨단적으로 지어 있다. 이 작가는 세련된 감수성을 가진사람이나 좀 기교적이고 약간은 현학적인 사람인데 역시 이 작품 그러하였다. 역사적 유물을 위한 장소로서의 품격이나 분위기보다 건축적 백락

인디펜던스홀의 광장측 건너편의 그의 고층 오피스도 패턴지향적인 디 자인이 주위의 느낌에 배기의 역할 을 하는 듯하였다. 오래된 건물의 가 로적 연속성을 유지케 하는 화사드 의 잔해를 그대로 두고 옆길 같은 형 식으로 전면을 처리한 점이나 옆 건 물보다 더 높이 서게 되므로 북촉 가 로에서의 임면을 전경형식으로 처리 한 점이나 입구촉에서 7층까지를 띄

의 유희에 더 편향되어 있다.

위 저층부의 보존 건물을 위호하고 이 건물과 그 사이의 가로적 콩고스 를 자연스럽게 성취하며 상층부의 지 붕 부분에서의 저층부적 해결 등이 의표를 찌르는 해학의 맛이 있으나 이것들이 다 모인 것은 오히려 평범 한 일상적 세련에 머물러 있다.

자유의 종의 집도 그러하였듯이 과 감한 사선의 도입, 신선한 부분공간 의 처리, 설정의 신기함 등이 건축적 쾌감을 주고 있으나 감동적이기 보다 는 감탄적이다.

인간의 격식과 도시형식 등과는 빗기어 가는 자존의 해확측에 더 경도되어 있는 듯하다. 그런데 바로 근처로비트 벤츄리의 폴랭클린코트는 충격적인 현대건축의 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 현대건축은 과거의 건축이 가졌던 장소들의 형식을 잃고모든 지점이 일종의 원점이 되는 공간격식의 무정의한 네트워크로 일관하여 왔다.

따라서 내부공간은 독립적 의지가 없어진 것이다. 벤츄리의 "건축에서 의 복합과 모순"속에 현대건축의 반성과 과거의 전통이 갖는 공간식의 여러 논의를 읽은 것이 십수년 전이고 그를 아마 처음으로 잡지의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오늘 처음 그의 건축을 실지로 대하였다. 여기에는 한건축가의 건축 역사에 대한 언명 만이 아니라 이러한 장소에 대한 삶의 교이와 폭을 느끼게 하는 작가의 외지가 분명한 건축언어로 표현되어있다.

플랭콜린코트에서 그는 건축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의 깊이와 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건축은 비자립적이므로 건축이 큰 전체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세계 구조의 전체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한 길드의 장으로서의 건축가는 오늘의 도시에서 실은설 장소를 잃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건축이 당면한 수세기의 여러 쾌적과의 공존, 도시문제들과의 흔접, 새로

이 부각된 도시 공동체의 장소 등을 그는 선견적으로 이해하였고 위악적 으로 실현하고 있다.

모든 기능은 지하에 있고 1층 입구할만 노출되어 있다. 오래된 집들로 둘러싸인 빈터의 이야기에서 그는 시작하고 있다. 동서 양측 길 사이에 걸쳐 있는데 다 막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위의 길들, 집들 사이에 벤츄리는 그들의 오래된 묵은 사연들과 이를이 가진 마을의 개연성으로부터 모든 구석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기히 있었던 곳, 이미 있어온 것들과 새로이 시작되는 장소들 간의 대화가 있다. 나무로 만든 볼트와 추상 철골격자, 지하 전시장으로 가는 입구 홀, 건물과 앞의 철골 콜로베이드와 철근현수선들이 실현적으로 조작된 바닥 공간의 리듬을 타고 문득 한 허공간의 실상을 실현한다. 여기서 모든 걸음은 충분히 어량되고 예정된 시각의장을 구성하고 움직임속에 건축적체험의 윤곽을 보여 준다.

건축은 예술이나 공학이나 사회학 적 체험이 아닌 도시에서의 인간 집 합이 갖는 본래적 언어를 가지고 있 는 것은 물론, 표현예술로서의 건축 언어를 가지고 있다. 로버트벤츄리의 이 건물은 이러한 건축적 표현의 한 전형적인 예인 듯하다. 그리고 이러 한 건축표현은 지하램프로 전시장으로 이어 가면서 또 다른 감흥의 전개 가 연속된다.

사방 유리인 전실과 난데없는 레온 사인 그리고 전시장의 유리통속의 거 울들은 특수한 장소의 상황을 준다. 그것은 도시의 축도 같기도 한 복합 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플랭클린에 대한 각 계층의 견해를 말해주는 장 난스런 전화대의 해학에 이르러서는 미소로운 감격까지 있다.

벤츄리는 플랭클린을 잘 아는 사람 인 것은 물론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 ●정치의 로맨티시즘을 보여준 멋진 정치가 케네 디. 그러나 그의 기념도서관은 그의 사상을 건축언어로 표현 못하고 있어 ·····

는 이 건축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적절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곳은 주제에 대한 감응력과 주제를 건축언어로 표현하는 기법과 그것들을 하나의 실체로 구현하는 계기들인 상상력들이 혼현 및 최근에 우리가 본 가장 탁월한 건축외 한 예가 될 것이다.

리차드 메디칼센타를 보았다. 겨울이어선지 다섯시인데 벌써 어둡다. 어두운 저녁 이 저명한 건물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60년대의 가장 영향력 이 첫던 건물을 당도한 느낌은 그리나 가벼운 실망 속에 건축가의 건축 가를 위한 건축가에 의한 건축에 대한 어느 구석을 보는 느낌이 있다.

건축은 그 건축이 서는 곳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필연적으로 구속되어 있다. 건축가는 자기가 설계하게 되는 건축의 명제에 대한 견해는 물론 그 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 리차드 메디칼센타가 들어 선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이 거리는 백수십년 된 나무들과 건물들과 사람 들의 사연과 역사가 쌓여 있는 곳이 다,

건축가는 자기의 시일연대에 깊이 구속되어 있으나 그 캠퍼스에 의해서 부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큰 윤곽 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개진하는 것이다. 루이칸의 아름다운 시적인 여러 글들의 감격을 아직 기억하고 있으나 이 건물은 펜대학의이 장소에 하나의 불꽃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첫단계의 십자형에서 한축이 더 이어진 두번째 단계에 이르기까지 명제에 대한 과도한 편견의형이상학과 이 토지에 대한 문학적견해가 반복의 극복이 아니라 반복에서의 탈피에 그친 감이 있다.

조적조의 맞붙은 그래비티 사이에 부유하는 떠 있는 공간군들과 이를 받치고 있는 마치 나무등결 같은 성 벽둘은 표현의 기교를 위한 이론의 산물이다. 구조형식을 위한 주제의 범주화, 건축형식에 얽매인 다테일 등이 건물이 가졌던 저간의 엄청난 평가에 미래 실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이 토지의 분위기의 역사성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의 새로운 단생을 계기케 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건축형식을 제안하였으나 과도한 방법론의 강행이 시행착오를 빚은한 건물이다.

물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정경도 있고 그 전의 건축이 가졌던 방식으로부터의 해방도 있으나 유행적인모든 사조들이 그러하였듯이 인간의유산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그 연속선상에 어떤 이포크를 만드는그런 정통적인 것은 아니고 반복의탈출을 신기의 이론과 문화적 감수성으로 보인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었다.

보스톤('83.1,20)

장변을 따라 캠브릿지가 보인다. 항구 특유의 어수선함이 있다. 하바드스퀘아 옆 쉐라톤 카멘도 호텔에 묵었다. 주위의 3,4층 낮은 건물들이고풍스러운 자태를 하고 눈에 싸여 있다. 170개의 객실을 가진 정갈한호텔이다. 도무지 사람이 없는 듯 조용하다. 후론트에 한명, 로비에 한명이외 직원이 보이지도 않는다. 식당도 작고 조촐하나 오래된 호텔다운 기품있는 실내장식이 오히려 품위를주고 있다. 조그만 엘리베이터 한대만이지만 다른 사람이보이지 않는다.

문득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우규 숭행의 안내로 해변 케네디메모리알 라이브러리로 갔다. 잡지에서 여러번 보았던 건물이다. 두개의 사각형을 대각으로 서로 불리고 한 사각은 괴 채로, 한 사각은 속이 텅 비게한 이 원구조다.

괴체로 된 부분은 괴체를 더욱 강

조하여 반원형으로 파인 반이 잘려진 삼각형으로 처리하였다. 바깥으로 물 린 부분은 낮게 이어지면서 원형의 공간이 걸려있다. 피체로 처리된 부 분은 모두 회고 오히려 빈 부분이 검 게 포지티브하게 표현되어 있다. 형 비가 어색하고 내부공간의 크기에 비 해 공간감이 느슨하다. 대각으로 만 난 부분끼리의 사선과 저층 원통과 연결부분간의 비례가 애매하여 항상 별일없는 평론가들의 말과 달리 대수 로운 느낌이 없다.

케네디는 정치의 로맨티시즘의 멋을 보여 준 새로운 시대의 기수였다. 이 기념도서관은 그러한 그의 어떠한 것을 건축언어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플랭클린코트에서 벤츄리가 보여준 플랭클린에 대한 이해와 성찰에비해 케네디 기념도서관은 불필요한 과장과 건축가의 취향만 강조되었지한 시대의 열망을 대변 하였던 지금생각하면 미소롭기까지 한 정치적 로맨티시즘의 시대를 상징한 그리고 그중언이 비극적이어서 더욱 사람들의기억에 한 과거를 성립시켰던 인간에빠진 기념관으로서 미흡하다.

전시 방식 역시 세편되기는 하였으나 드라마틱한 연출이 부족하다. 인디펜던스 메몰리안을 같이 진품, 장소, 사실 위주의 기념관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일종의 상징형식으로 기념하여야 하는 경우 워싱턴의국회 옆 국립자료관 같은 진적만인엄청난 공간 속의 전시나 플랭클린코트의 본질적 해석에 의한 공간형식의 창조가 아닌 이와 같은 파장과 세련의 전시는 오히려 어색하여 보인다.

보스톤 청사-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요란한 현상설계였던 보스톤 시청사를 보았다. 아직까지는 많은 아류를 거느리고 있는 한 시대의 한 페이지에 속하는 그런 집이다.

주위에 큰 건물들파 가로와 상가 들 가운데의 광장 같은 장소에 주워

● 하바드 캠퍼스는 하나의 도시이며 사회다. 호 텔이 있고 트롤리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를 넓게 바워두고 사방에서 쉽게 접 근되도록 띄어져 있고 그러한 사방 어디서나의 흐름은 사방에서부터 이 총의 메인콩코스와 지하층의 콩코스 로 연속되고 이층의 메인콩코스는 갤 러리를 가진 더 큰 공간으로 상승하 여 지하층 콩코스의 상부로 이어진다.

사방 어디서나 큰 공간적 변주 속 에 건물 전체로는 내부였던 것이 어 느름에 새로운 외부가 되는 옥내외 공간의 상호 관입과 변조가 드라마틱 하게 실현되어 있다. 공간기법도 엄 청난 단면의 노출파 두 겸인 격자보 형식의 반복이 압도적 크기로 클로즈 업되어 여기 저기의 상부 오픈 스페 이스도 그 스케일이 거창하다. 도시 의 한 가운데 자연스러운 인구의 호 름과 기능의 만남이 요구되는 가장 데모크라틱한 기능이 강제적인 표현 으로 제안되어 있다. 흐름의 다이야 그람이 갖는 자연스러워야 할 건축형 식은 오히려 강압적이고 위계적인 압 도적 스케일과 스케일이 탄압적 조작 으로 왜꼭되어 있다.

꼬르뷔전쇼크가 만들어 놓은 보스 톤적 모뉴먼트라고나 할까, 아직 20 년도 되지 않아 이 거리에서 동떨어 져 보인다. 앞의 라라바반즈가 설계 한 고층 오페스 빌딩이 오히려 더 보 스톤 답다. 서측의 루돌프가 설계한 시빅센타는 재능있는 건축가의 자의 식이 도시를 나쁘게 만드는 전형을 보는 듯하다.

대조적으로 시청사에서 바닷가로 향하는 거리의 켄시마켓트는 도시에서의 건축이 어떠해야 하는지 건축의 어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도시와 건축에서 인간이 차자하는 공간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집들이다. 낡은 세 건물을 복원 재활성화 한 마켓트 플레이스다. 여기 많은 날은사람들이 사만가까이 모인다고 한다. 사만이면 엄청난 장치를 해 놓은 디즈니랜드의 피크시 일일 관람객이

다. 사만 가까운 도시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저절로 이리로 모인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스스럼 없이 이웃이 되어 먹고, 마시고, 사고, 놀수 있는 장소이다. 안과 밖이 가운데와 중간공간들과 얽혀 자연스러운행위의 연장선에서 이어진다.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투자된 실내장식의 공간 속에서 선택된 소수로서의 쾌락을즐기는 외에 도시의 어디에서도 이런 장소를 가져보지 못하였다. 황학시장, 남대문 시장은 도시적 활기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불결하고 무질서해서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롯데쇼핑센타나 명동에서 우리는 제한된 소수로서의 도피적 자존을 본다. 여기 이 퀀시마켓은 보스톤에서 사는 일의 여러 많은 맛과 멋이 있다. 포장마차 상점도 있고 지하 술창고가 있는가 하면 복도를 다니며 먹을 것을 고르는 맛의 거리가 있고 이층 로턴다 밑의 정장스러운 레스토랑도 있고 세 건물 사이의 길을 따라 시청사 쪽으로 앞으로 옆으로 거닐기도 하고 옛 건물에 빗대어 잇덴유리통 속에서 들락날락하는 안팎의사람들을 보며 점잖게 밥을 먹기도한다.

건축가들은 기능이라는 이름 아래 행위를 다이아그람으로 이해하지 그 행위들의 사연을 잘 모른다. 사람들 은 기술자에 불과한 건축가들의 빈 약한 상상력 속에서만 지내주지 않는 다.

건축가는 그러나 모든 인간행위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행위의 개연성을 공간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므로 이 행위의 개연성을 상상하고 연출하는 일이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 한 역할이다. 보스톤 시청사나 시박 센타는 그러한 행위의 개연성 대신 행위의 플로트만이 건축가의 표현적 상상력으로 강제된 건축이다.

건축가의 상상력이란 사람들이 사는 일의 내용과 도시의 필연적 사건들과 집단적 체험으로서의 기능이라는 형식의 겹침과 이어짐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떤 윤곽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을 갖는지를 생각해 내는 일이지 표현적 창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적 창의는 건축가에게 필요한 상상력의 마지막쯤에 등장하는 역할이다.

이 권시마켓에는 건축가의 상상 력이나 창의보다 도시와 도시생활의 개연성의 윤곽이 주로 부각되어 있다. 세 건물의 개수와 중간구조의 도입 등은 표현적 창출이 아니라 상상된 행위의 연장으로 기도된 것같다. 시 박센타나 시청사의 제어된 도시적 행 위 대신 여기는 본래 인간이 갖는 자 연스러운 행위의 연장인 이백년 전 피 를 흘려 싸운 목적이었던 자유 그것 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 우리는 정 치적 자유에 집착하여 자유와 민주주 의가 갖는 본래인 내용을 잊고 있다.

건축가가 도시의 자유와 민주주의 를 실현할 때 참다운 의미의 작가가 되는 것이다.

하바드 캠퍼스는 하나의 도시, 하 나의 사회이다. 백수십년 동안 확대 되고 변화하면서 도시와 대학이 하나 의 현상으로 얽혀 있다. 대학 안에 호텔이 있고 트롤리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있다. 백수십년 동안 차츰 성장해 온 변화가 모든 장소에 자취 를 남기고 있다. 하바드 야드로 불리 우는 처음의 장소 이외는 모두 개인 집, 상가들 사이에 강의실, 연구실들 이 있다. 시카고 대학에서도 이런 느 낌이 있었지만 이곳은 대학과 도시가 엉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 학과 도시가 하나의 실상으로 나타나 있어 그 두가지가 비자립적으로 느껴 잘 정도이다. 문법과 범주로만 대학 캠퍼스를 생각하던 관악캠퍼스 당시

● 현대건축의 비극은 어느 시대보다 과다한 기회 와 물량과 주제가 주어지는 데에 있다.

의 가짓 수 모르던 어휘 해석식의 토 론을 상기하고 웃는다.

건축대학 제도실을 보았다. 다섯 개 충 피라빗식의 제도단을 가로질 러 세 곳 계단이 이어지고 뒷측으로 강외실들과 연구실이 붙어 있다. 전 면까 기단부분을 콘크리트로 처리하 고 이 메이저 스페이스는 침골 파이 프 트라스로 구성하였다. 바닥과 벽 천정이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닥이 오개 총을 단충지어 올라가고 전면 캔틸레버된 구조체와 한축면의 콘크리트 입방체로 해서 더욱 선명하 게 느껴진다.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제도실의 풍경이 장관이다. 김 원형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와서 공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 는데 나는 와서 가르치고 싶은 충동 이 있어서 웃었다. 마침 어떤 친구는 개를 제도판실 밑에 두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자전거를 끌어다 놓고 한 친구는 자기가 사먹은 파자 껍질 로 꼴라쥬를 만들어 걸어 놓았다.

마침 현관 홀에 전시회가 있었는데 에콜드보자르의 반복이 시도되고 있었다. 한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이고전 왜곡인 옵타칼아트의 모습을 하더니이제는 고전연습을 대학에서 가르친다. 인간의 견해가 갖는 시한성은 결국 사고와 어휘가 갖는 상황 한정적기능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새로운 생각들의 단계와 그 생각들의 구체화 단계 그리고 매녀리즘과 과거의 어느 시대로의 희귀가 공존하는 단계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쉽게는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도 그러한 사고의 시한성에 연유할 것이다. 교육이 좋은 건축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건축교육은 건축가로서의 가능성과 생각할 수 있는 도구를 줄 수 있을뿐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큰 교육의 하나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과 그들이 만나게 되는 환경들을 볼 수 있는 어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듯이 건축이라는 대상을 구성하는 어휘를 배우는 것이다. 그 어휘들을 통해 그들은 살고 있는 환경이 뜻하는 것, 우리의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일, 건축이 실지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방식 등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교육은 당연히 가능성의 영역과 시야의 영역 두 가지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하고 그것은 교육의 방식에 보다 가르치는 자의 전인격에 더 많이 상관되는 것이다.

하바드에서 새삼스럽게 에꼴드보자 르를 가르치는 이유를 알 듯도 하지 만 하바드 교육이 성공 보다는 실패 가 많았던 것은 60, 70년대의 미국현 대건축의 정체와 최근의 천편 일률 적인 사조의 영향에서 아는 일인데 그것이 교육방식에 보다는 직업적 교 수들에게 더 문제가 있지 않은지 모 르겠다.

이런 생각은 꼬르뷔제의 카펜티센 타를 보면서 더 하다. 기실 개인적 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꼬르 뷔제의 작품들이었는데 우연히 그의 미국에서의 유일한 작품인 카펜터센 타를 보았다. 언뜻 보면서 역시 통뼈 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각과 꼭선의 벽들을 타고 길이된 램프가 집을 지나가고 하늘로 기둥 이 비상한다. 안과 밖이 공중을 떠 가는 램프를 따라 엇갈리면서 두 개 의 내부공간으로 분화한다. 이곳은 사방에 오래된 적색벽돌의 3.4층 건 물들로 둘러싸인 고색창연한 캠퍼스 의 어느 구석이다.

여기 꼬르뷔제는 왜 현대건축이어 야 하나를 보여 준다. 「새로운 건축 율」에서 그는 "이미 지금은 과거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을 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어휘로 만들어진 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건축이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건축의 문법을 말하였 다. 카펜터센타는 현대건축의 로맨 티시즘을 과거의 유적들 사이에서 언 명하고 있다. 문이 아닌 길이 집의 상층부를 떠서 지나고 피막같은 벽면 올 따라 두 괴체가 짙은 음영으로 대 위하고 가늘고 늘씬한 기둥은 입체의 그래비티를 해확한다. 미끄러져 가는 공간, 아무 그래머를 갖지 않은 도처 의 장소들은 우리의 입장에 따라 주 위의 환경에 따라 새로운 장소들로 태어난다.

계절의 성쇠가 스치고 밤과 낮이 바뀌면서 이 장소는 우리에게 건축 체험의 시작 정경을 보여 준다. 불 가사의한 사고의 미로를 거쳐 그는 우리에게 과거의 유적이 갖는 인간체 험의 늪에 한 파문을 기도한 것이다.

물론 파거의 건축은 위대하였다. 현대건축은 위대한 인간의 궤적 위에 새로운 한 더함을 기도한 것이다. 현 대건축의 비극은 어느 시대보다 파다 한 기회와 물량과 주제가 주어진 데 에 있다. 그러나 현대건축은 대다수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거주성의 확보 와 활동영역의 새로운 확대를 성취하 였다. 지금 파다했던 경우는 축소되 어 있다. 건축가들이 현대건축의 시 작이었던 사명에서 벗어나 고전주의 의 미망에 사로잡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나 여기에 와서 그것을 보게 되 어 비소롭다.

이로샤리덴의 MIT 채플과 강당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뉴욕으로 와 서 케네디 공항의 TWA 에어포트 를 또 보았다. MIT 채플을 당도하는 느낌은 꼬르뷔제를 보았을 때 갖게되 었던 압박감과 감동 대신 편안한 감 탄과 약간의 비판이 있는 건축저널리 즘에 대한 야유 같은 것이었다. ●마드리드의 상로렌즈 수도원, 모든 인간의 지식과 예술들이 모여있고, 올리브나무 숲엔 신비로움이……

물론 흥미있고 뛰어나고 새롭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과 사회의 본래 적인 심층의 바닥을 혼드는 그런 감개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사상들로 부터인 창의며 상상력이다. 채플과 강당은 발명적인 느낌이 크고 TWA는 단순구조의 현학에 더 치중된 듯하다. TWA의 모든 화려한 췌사는 가우디의 작은 상점에미치지 못하고 강당과 채플의 기하학은 내부에 와서 혼돈되어 있다.

TWA 에서 그는 에어포트의 드라마를 기도하였으나 형식을 위한 대청적 구성과 동선의 강제된 해방이오히려 구경거리로서인 장소를 만든셈이 되었다. 한 작가의 과도한 집념이 만든 조형의지와 실현 속에 정작 그는 에어포트가 갖는 상황 언어의 실지를 손해보고 보는 자와 사는자의 괴리를 빚은 셈이 되고 말았다.

그는 건축의 본질에 속하는 장소로서의 아이덴디티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엘리엘 샤리넨의 헬싱키 터미날에서 느끼던 도시의 총착 혹은 각곳으로의 출발이 갖는 도시적 해후의 로맨티시즘 대신 여기는 형이상학이 배제된 조형의지의 유희를 보는 감이 있다. 아이엠페이의 크리스찬 사이언스센타 역시 디벨로퍼와 한편이 된 건축가로서의 계산된 연출과 대중 조작적 건축언어의 파장된표현 이외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

마트리드('83, 1, 20)

다시 마드리드에 왔다. 일년 반만에 다시 이 도시로 오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하였다. 새벽 공항에 도착하였다. 보스톤에서 뉴욕을 거쳐 여기까지 장장 10시간 반을 온 것이다.

기내에서 잠시 눈을 붙였으나 잘 잤어야 세 시간일 것이다. 토요일이 어서 오전만 뮤지엄, 왕궁들이 문을 연다해서 짐만 호텔에 두고 세수도 못하고 나선다. 이렇게 서둘 일인지. 이렇게 서두른다고 무엇이 되는지.

어느 시간도 어느 시간의 준비가 아니다. 모든 시간은 다 유일한 시간 이다. 특수한 극한 상황이 아닌 경우 피곤으로부터의 휴식은 시간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졸리고 지친 발등이 다 부르튼 지난밤 잠도 못잔 아침이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일까.

케인즈의 자유정도는 즐길 수 있는 자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없 으니까 무리하게 자신들을 혹사하는 것이다. 이런 자포자기는 우리의 시 간들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다 가난 하고 여유가 없는 탓일 것이다. 엘에 스코리알의 성자의 계곡을 다시 찾는 다. 멀리서 부터 보이는 십자의 탑은 기단이 되는 산세에 밀리어 수직성 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샤르트르 대 성당 같은 직진의 비스타가 아닌 와 류의 호름 속에 느끼는 직립한 십자 의 탑은 최초의 상상에 문제가 있었 던 것같다. 파낸 석재들로 굴을 만들 었다는 앞 선전은 차라리 피라밋드 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제단을 준비 하고 그 속에서의 돌연한 프로세션이 이어졌으면 본래의 생각을 잘 구현한 방식이 되었을 것이다.

근 30여년에 걸친 인력의 불가해한 힘이 만들어 놓은 장관들이 보여 주는 것은 결국 왜곡된 파시즘의 잔해외에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무의비한 역사에 희생된 승고한 인간들의 시체만이 쌓여 있다. 국가지상,민족지상의 구호로 위장된 특수 계층의 이익과 그 이익계층을 받치고있는 보수라는 이름의 위장된 성채를 위해 이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은 인간의 존 엄과 자유의 연속선상에서 그 가치 의 근거를 갖는 것이다. 물론 프랑 코 통치하의 스페인은 하나의 선택 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이런 기 념비는 오히려 진실일 수도 있었던 그들의 애국을 웃게 할 것이다. 아무말 없는 전사들의 무덤은 더 존귀한 형식이 필요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한 잘등이 내란의 형식으로 수많은 피를 흘렸다. 전보에 공감하였던 당시의 지식인들이 파연 옳았을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일은 아니곳 승리한 자들의 40년에 걸친 지배가 정당하였는지는 당사자인 스페인 사람들이 알 일이겠으나 이 엘에스코리알의 지하 성소는 스페인 내란의 희생자들을 위한 사자의 계곡으로서는 엄청난 노력에 비해 습작같은 사이비대중적 열광만이 보여진다.

오는 길의 "상로렌즈"수도원은 대 조적이다. 올리브나무와 숲은 신비스 럽다. 구릉이 이어지는 들판의 올리 브 숲은 겉가지의 부유하는 색깔과 구루터기의 최갈색과 나무들의 짙은 녹색들이 밀리며 엉키어 지평선으로 떠서 움직여 가는 듯하다.

이 수도원 주위는 무슨 다른 세계 인듯한 청정간이 감돈다. 신과 자신 들의 영원을 위한 모든 인간의 지식 과 예술들이 여기 모여 있다. 이 지 식과 예술들은 비록 강제였으나 자기 들의 길을 잃지 않고 있다. 그 일은 구채적으로 어느 누구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지식인들이나 작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에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 다

식민시대를 살아 온 지식인들의 바로 그 식민지 근성이 그 원인일 것이다. 그들은 정작 그들이 참여 했어야 했던 민족적 정통성을 위해 그들이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한갖 도피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기 회복을 위해 저항하고 싶어한다. 그들의마음은 마치 담을 넘는 지렁이와 끝아 보인다. 왜 정부에 대해서 자기나름의 견해들로 자기 현혹을 반복하는지.

● 유태인 학살기념관, 그 엄청난 학살에 비해 이런 기념관이 갖는 의미란 뭔가?

엘에스코라알의 두 성채가 말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케 한다. 불레도를 다시 온다. 지배계층의 민족 이동이 근10세기 동안 네번을 치른 옛 도시 가 지금 얼마간은 비어 있는 채 판 광터가 되어 있다.

지하의 채광형식이 아름답다. 지하성채의 우물실의 황홀한 실내구성에 감탄한다. 필요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것만은 아니다. 건축의 모든 부분은 전체를 감당하는 깊이쁠 갖는 것이다. 예술가는 그가 비록 조적공이나 미장이어도 얼마든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아름다운 도시다.

빠리 ('83, 1, 25)

밤 늦게 다시 노블담을 찾았다. 강 안 밑 길에 앉았다. 고딕은 조적 조의 중력을 승화하였다. 그들은 동 적 균제라는 건축이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던 형비의 미학을 시도하였다.

하우저의 객판스러운 설명이나 러스킨의 감동적 수사와 상판없이 저기 노틀담은 서 있다. 세느강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강 안 호안의 수목은 한 겨울에 푸르고 북측 한편으로 뿌옇게 하늘이 트이고 멀리 고색의 건물이 이어가는 사이를 다려들이 결치어 선다.

해지스탕스 기념관은 군사박물관의한 부분 건물을 쓰고 있었다.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 드골 취하의 망명정부관, 국내의 레지스탕스관, 수용소 교도관 등이다. 망명정부관은 드골이라는 의안화 된 상징형식이 있어설화적이다. 역시 대중형식은 의안화될 필요가 있다.

대중은 사건 형식 보다는 인간으로 표현된 상징형식의 암시에 약하다. 익명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인간 형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연으로 받아들이는 암시 작용을 한다. 방명 정부나 레지스탕소에 대해서 많이 들 어서 알고 있었으나 여기 와서 그자 료들을 다시 보고 감동하였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에 불과하다. 이 렇게 단순히 진열되는 것만으로도 그 과거의 사실들은 현재와 미래에의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많은 박 물관, 미술관, 기념관들이 있고 있어 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과거 의 현실성, 상상력의 실제를 위해 도 시의 일상인 듯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뽕삐두센타 지층 특별 전시실에서 백남준의 비테오 전시회가 있었다. 백수십 티브이가 한층 밑에 위를 보고 누워 계략된 영상을 번쩍인다.

엘렉트로닉스가 주는 기묘한 시각 채험의 한 영역을 본다. 컨비네이션 이 더 다양하고 더 복합적일 수 있 지 않았을까. 신기하고 재미 있기는 한 데 무인가 울리는 것은 없다. 낮 게 말하면 귀엽고 재미있다는 느낌 이다.

5 층의 현대미술 전시장을 둘러 보 었다. 특별전시가 아니고 자기들의 수장품을 전시하였다. 너무 대단하여 머리가 아프다. 칸딘스키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고 드랭도 대단하였다. 립시츠의 유명한 피규어도 보았고 프 란시스 베이컨의 삼부 연작도 보았다. 마티스의 초기, 중기, 후기의 중 요한 작품이 고루 다 있고 샤갈의 것 은 가장 좋은 것들이었다.

아르뚱의 이즈러진 큰 달걀 앞에 한 그룹이 왔다. 미술대학 공부시간 이다. 열심히 설명하고 들고 질문한 다. 패브스너의 좋은 것은 다 모은듯 하고 샘프란시스와 드뷔페는 하나씩 이었으나 대단한 작품이고 자코메티 는 후기의 추상작품의 컬렉션이 압도 적이다. 이런 것을 매일 볼 수 있는 도시에 산다는 일이 얼마나 기분 좋 은 일일까.

연간 그림 살 예산이 천만원도 안 되고 컬렉션은 국내작가의 자기 기증 품 외에 별 것이 없고 현재 공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서울 생각을 하며 잠시 분개하였다. 여러번 다시와 보고 이제는 전시물에 더 신경이 쓰는 경우가 되면서 다시 보니 뽕삐두센타가 좋은 건축이기는 하다.

이들은 좋은 장소를 만들었다. 상징 형식 없이 스페이스를 테크놀로지의 시각언어를 통해서 제조한 듯하다. 새로운 건축의 계시적 예인 것처럼한 동안 떠들었으나 그것은 과장이었고 전통적 의식에 의한 혁신적 방식의 공간조작이였다는 느낌이 있다. 온건 보수라 할 과거와의 맥락이 강인하다.

유태인학살 기념관 - 노틀담 동측 씨테섬 끝 고구마 같은 부분에 섬 끝의 토지적 형상이 그대로 상징 형식을 실현하고 있다. 여러번 이 앞을다니면서도 이곳이 있는 줄 몰랐다. 파리에서 살륙된 20만 유태인들을 위한 기념비다. 건축형식의 함축적 표상이 주는 감동은 컸으나 그러나 도대체 그 엄청난 학살에 비해 이런 기념바가 무슨 소용인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국들은 이렇게 이해해야하나.기념비가 있어서 처참함들이 일상의 기념으로만 남는지. 길에서 한층 내려 선 스무평 남짓한 작은 마당 동축 창살 앞으로 세느강이 소리하며 흐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느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 무참히 뚝어간 그들의 보복을 우리는 알고자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선과 악의 피안을 기념비라는 이름 의 이 기하학은 어쩌자는 것일까.

밤 11쯤 상제르망의 까페드마고로 갔다. 이차대전 직후 그들이 모이 던 곳이다. 길을 향한 온실 그 속에 사회의 온실 식물인 지식인들이 보이 던 곳이다. 기생충 같은 판광객의 일 원이 되어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인 생을 말할 수 없다는 겔바도스를 마 신다. 〈*〉



대한생명 63층 빌딩

이 빌딩의 전립을 모든 면에서 궁 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소개한다.

1. 공사 개요

공사명: 대한생명 보험 주식회사 본사 사옥 신축 공사

소 재 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건 축 주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시 공 자 : 신동아 건설 주식회사

대지면적: 21,427.9 ㎡ (6,481.9평) 건축면적: 9,887.92 ㎡ (2,990.8평)

연면적: 160,084. ㎡ (48,511평)

건 폐 율:46.14% 용 적 율:747.08% 수 : 지하 3층, 지상 60층

건물높이: 249m (해발: 264m)

착공일자: 1980. 2, 19 준공예정일: 1984. 12. 31

계획설계: Som and Associates,

Architects

실시설계 : (주)박춘명 건축설계 사

무소

2. 구조 개요

구 조:

가 초-PIER 기초(REVERSE CI-RCULATION DRILL공법)

저충부-철골, 철근 CONCRETE 조

고층부-철골조(건식구조)

기 등: 장변-6m간격×9m SPAN=54m 남측 피난실 부분 3.05m 북촉 전망ELEV. 부분 3.05m 단변-최단 24.9m (40층 이상)

최장 40.2m (39층 이하)

철골재료 :

BOLT -HIGH TENSION BO-LT (F 11)

기 등 -SM 50A, 50B BOX COLUMN, CES WE-LDING

보 -SM 41A, SM 50A H-BEAM

BRACING - SM 50A

NT ALUMINUM SASH

GLASS-TINTED GLASS 내부 벽 체-경량 CONCRETE BLOCK

> 천 정-ACOUSTICAL PA-NEL

바 닥-화강석

건축을 이루는 5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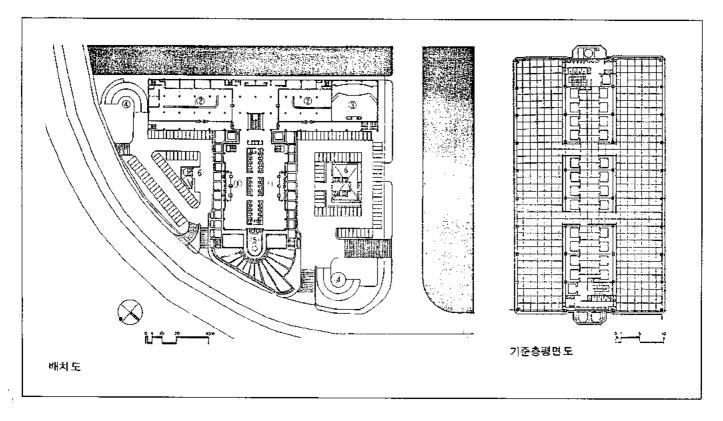
1) 구조(構造)

최근에 와서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지가 앙등과 건물의 대형화 정책 에 의하여 건축에 있어서 기둥이 없 후 성안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이 빌 딩에는 여러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여 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인 안올 협정하였다.

이 빌딩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① 사무실-지상의 대부분은 사무실이 된다. 따라서 고층 부분은 사무용 공간으로서 가장 적절한 기준모듈로 설정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이 기준단위 구간을 입의의 수로 증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 기준단위구간 에는 모든 필요한 설비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

다음, 이러한 초고층건물의 원활한 동선계획에는 엘리베이터의 적절한



3. 마감 공사

고층부:

외부 벽 체-ALUMINUM CURT-Aln WALL

> GLASS-REFLECTIVE GO-LD COATED GLASS

대부 병 체-STEEL PLATE 위 MELAMINE 소부 도장

> 천 정-A COUSTICAL PANEL

바 닥-VINYL 계 TILE . 저층부:

외부 벽 체-화강석

창 -KYNAR-SOOPAI-

는 큰 공간을 형성하는 문제와 고층화 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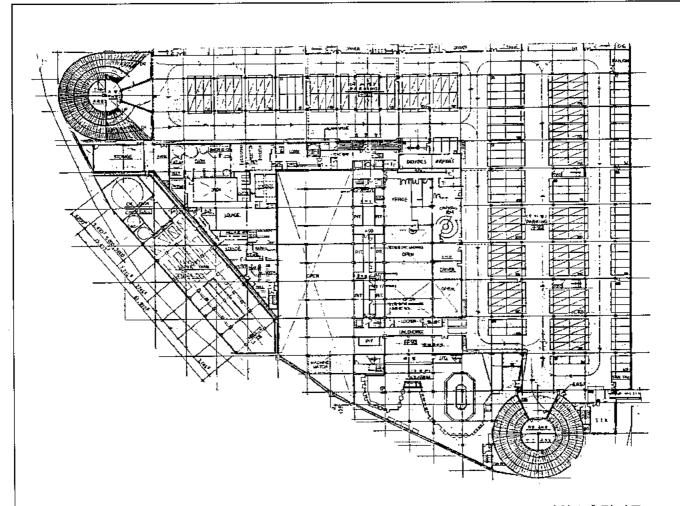
이때 고강도의 재료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을 정밀하게 시공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제할 때 고도로 발전된 역학적 해석으로 구조계산을 하게 된다. 이 계산에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또한 시공에는 각종 최신장비가 동원된다.

2) 기능(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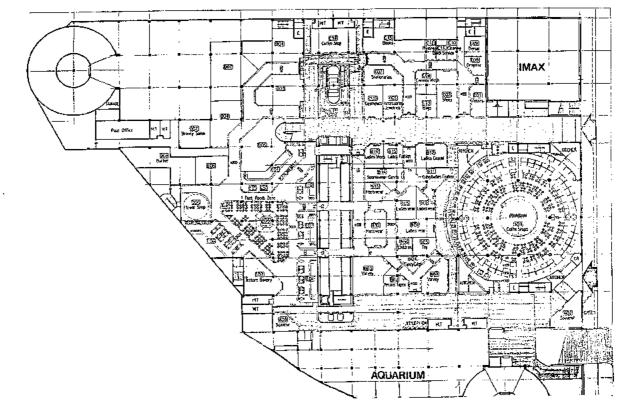
현대에 와서 우리의 생활방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그 생활방식, 그 기능에 알맞는 건축계획이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부문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배치와 속도일 것이다. 이 건물 중심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 코어에는 모 두 26개의 엘리베이터가 저층용(분속 240m), 중층용(분속 360m), 고층용 (분속 540m)의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동방식은 컴퓨터에 의한다.

② 수족관-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수족관이 없다. 이 빌딩 지하에는 대규모의 수족관이 마련될 것이며, 압력회유식수조에는 수백종의 어죽이 유영하게 될 것이다. 관광적 효과는 물론이고 교육적 효과와 어족연구에도 도움이될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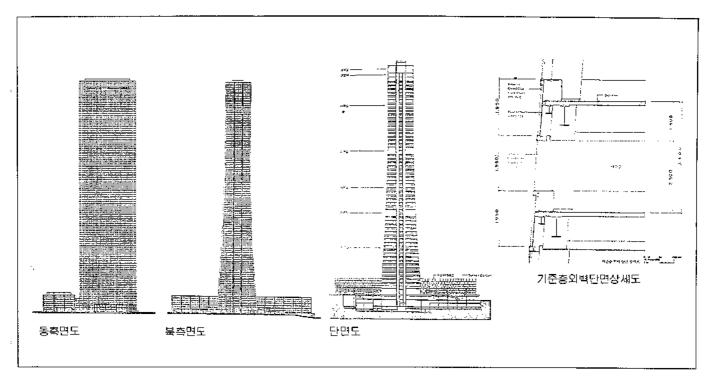
- ③ 유통센터 - 지하 1층에는 각종



지하 1 충평면도



지하 2 층평면도



점포와 식당이 마련되어 서울의 새로 운 쇼핑센터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경향은 이러한 유통 센터는 도심지보다 거주지와 도심지 중간 지 점 또는 거주지 가까이 두게 된다.

이것은 교통혼잡을 피하고 주차장 마련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④ 전망대-초고층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전망대이다. 여기 서는 서울은 물론 멀리 인천까지도 전 망할 수 있어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기타 국제회의 장, IMAX 영화관 등이 마련된다.

3) 심미(審美)

건축의 중요성은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게되면 외부적으로는 형태와 색채로 그 주위환경을 새로운 방향으로 지배하게 되며, 내부적으로 도 형과 색으로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건축은 그것이 좋으나 나쁘나 오랫동안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게 되어 그 나라 문화의 척도가 될 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선 아름다와야 하 겠다. 이 빌딩은 특수처리한 반사 유 라로 건물의 전 외벽이 구성된다. 말 하자면 거대한 유리의 조각물이 여의 도에 서게 된다.

📒 4) 설비(設備)

생물체인 인간이 항상 쾌적한 생활 을 하기 위하여는 건물내의 열, 및, 공기, 소리 등의 관리, 유지를 계속 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축 설비를 의미하는데 건축의 품위를 좌 우하는 큰 요소가 된다.

건축의 구조, 마감 등은 고정적인 투자로서 일단 투자되면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지만 설비에 관한 초기 투자는 계속적인 운영이 진제하고 있 기 때문에 비록 초기의 부담은 많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운영비의 절감을 기하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 라는 더욱 그렇다.

이 빌딩은 건물 주위전체, 벽, 지 붕이 가급적 열손실을 방지하는 재료 와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외부벽은 특수하게 처리한 반사 유리 로 되어 있어 일반유리보다 하절에 몇 배나 열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최신 모델의 기가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것들의 가동은 컴 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가장 효과 있게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예 를 들면 모든 장소별로 불필요한 시간 에는 자동적으로 그 공급이 중단되었 다가 필요한 때에 다시 가동되는 방 법 등이다. 이러한 모든 시스팀의감 시와 조작을 위하여 중앙감시실이 있 어 고성능의 장치가 마련된다. 이상 설비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 로 일반 사무용에도 컴퓨터의 이용이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각층에 이 설 치를 위한 설비와 전산배선 등이 가 능하도록 미리 그 바닥구조를 특수하 게 처리하고 있다.

이와같은 설비의 주원칙은 장기적 인 운영비 절감에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5) 경제(経済)

이 경제라는 과제이야말로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겠다. 위에 말한 여러가지 제목을 논하기 전 에 우선 이 경제라는 제목부터 검토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도시시설의 일부로서의 건축이 성 립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 으나 먼저 대지확보와 건설비를 조달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빌딩은 경제적인 축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실행에 옮 겨진 것으로 보아 그 실현의 의의가 확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실질적인 면 외에 이 빌딩 이 갖는 외외 몇가지를 종합해 본다.

- ① 이 건축은 서울의 랜드마아크가 됨은 물론 국가 경제의 발전상을 과 시하게 될 것이다.
- ② 작주근접(職住近接)으로 주민에 게 많은 편약을 줄 짓이다.
- ③ 새로운 발전된 기술의 축적과 장 비로 국내는 물론 국외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약 1년 후에는 이 빌딩의 완 공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시대의 자 랑으로 기념될 것이다.

□ 계획작품

학봉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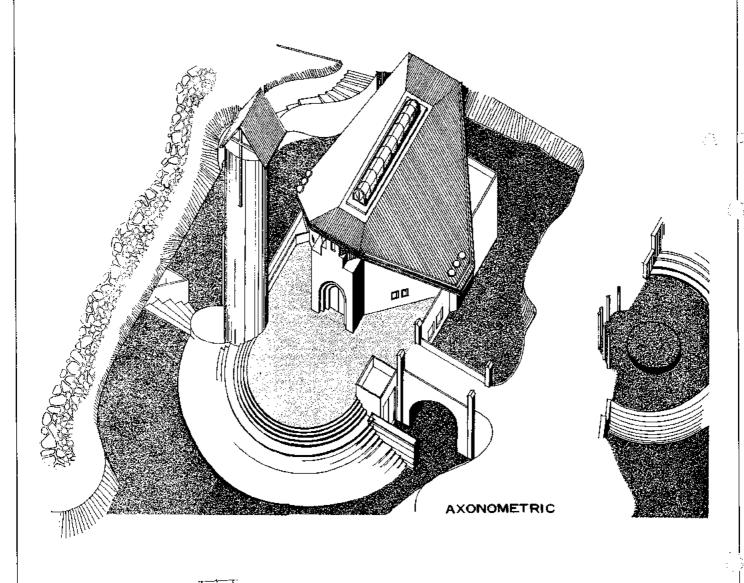
HAK BONG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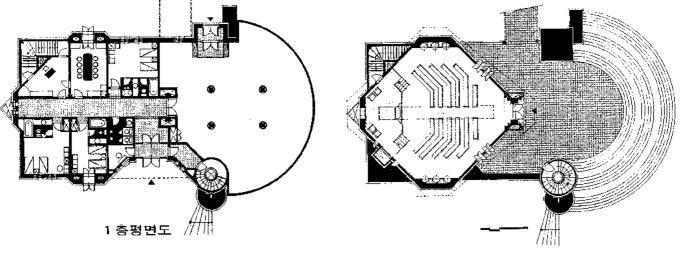
金 琪 碩/아줌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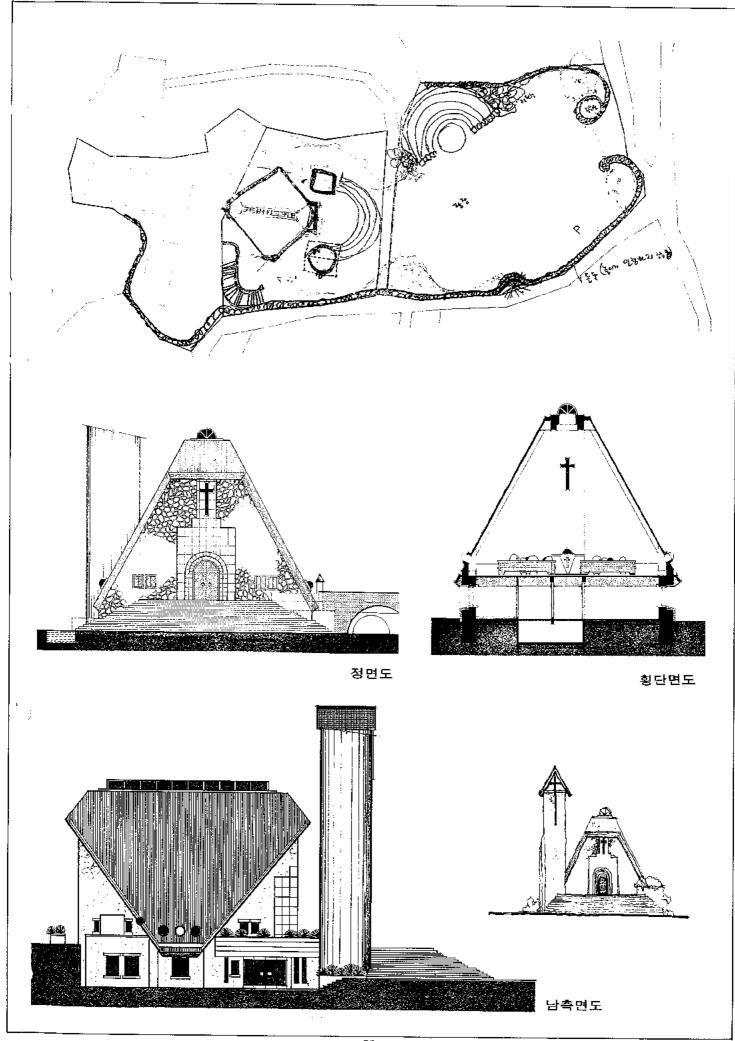
Kim, Ki Sok / Aram Architects Ate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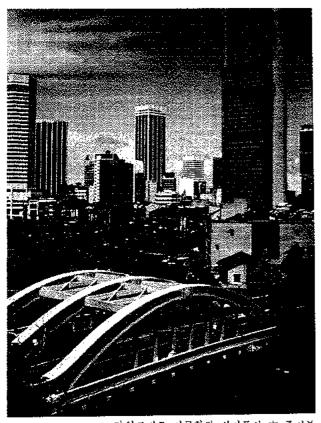
◆ 소재지 / 충남 공주군 반포면 학통리 ● 대지면적 / 2,855m ● 연면적 / 675.23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마감재료 / 벽체 - 현장채

취 자연석 • 지붕 - 백색자기타임









전원도시로 서구화된 싱가폴의 市 중심부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인구의 급격한 증 가현상이란 것은 너무나 상식화된 이 야기다.

지구촌의 존폐를 핵증산보다는 인 구폭증에 더 콘 비중과 우려를 두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닐 것이다.

더우기 아직도 선진화에 뒤진 아시 아의 대다수 국가에 있어서 인구의 문제는 더욱 복잡한 난해성과 위기감 을 잉태하면서 전전궁궁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도시의 인구집중율은 가공할 경지를 넘고 있어 환경의 오 임도와 주택의 구독난은 인간생활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 이다.

산위서 또 하늘로 치솟은 아파트群 가까운 장래 우린 더 심각한 위기

특히 이번의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홍콩대회가 아시아 속에서도 땅이 좁고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린 홍콩을 대표적으로 표현이나 한듯「아시아의 도시팽창」을 토론의 주제로 삼은 것은 너무나 시의적절한 선택의 현명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동부지역 3 차회의에 참석한 12개국 130여명의 조경가와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 가운데 아시아의 도

아시아의 도시팽창과 미래의 환경문제

- IFLA 홍콩대회를 마치고 -

金 榮 洙/建築士・金榮洙建築研究所

시팽창 문제가 홍미와 논의의 촛점이될 수 있었던 것도, 홍콩을 표본처럼보면서 인구와 도시와 건축 그리고조경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연구해보자는 공통의 과제를 너무나 당연하고 실감있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여겨지기도 한다.

IFLA의 부회장을 받고 있는 일본의「키타무라」씨의 말처럼 "아시아의역타 대도시들도 가까운 장래에 홍콩보다 더욱 심각한 도시팽창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홍콩의 문제를 우리들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한 것처럼, 우리의 서울도이미 때늦은 일이지만 口頭禪에만 그처지 말고 과단성있는 정책적 메스를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껴본 감명깊은 회의였다.

실제로 한정된 홍콩의 땅위에 물밀 듯 몰아닥친 流入者들로 기존의 집은 전부 스럽화되어 거지수용소와도 같 이 폐허화하고 모든 사회악과 범죄의 하렘가처럼 변했거나 진행 중인 반면 에, 새로이 찾는 집들은 산꼭대기도 모르고 다시 하늘로 치솟는 초고층 아 파트들 밖에 없음을 볼 때에 방치될 지도 모를 서울의 내일을 연상하는 일 은 정말 괴롭고 답답한 마음임을 어찌 하랴,

이번 회외의 테마설정에 대한 배경 은 홍콩조경그룹의「이안 린」회장의 말처럼 "구룡반도를 한번 둘러 본 사 람이면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듯이, 참석자들의 모두에게 자국의 도시문제를 다시한번 재점검할 결정적인 기회률 제공했다는데 또 다른 의외를 찾아 볼 수있을 것이다.

샤틴 뉴타운은 계획도시의 샘플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신념

그렇다고 홍콩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도시민을 위한 환경의 개선과 지역 재개발을 서두르면서 끊임없이 산과 바다를 새도시로 바꾸어 가는 집 념과 노력 또한 괄목할만 하다.

토론 후의 테크니칼·투어로「사단 (沙田)뉴타운」을 눌러 보면서 관계관 들의 브리핑도 들어 보았지만 沙田海 글 매립하면서 이상적 커뮤니티를 건 설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개발 중인 계획도시로서는 가장 훌륭한 모범적 타운으로 생각되었다.

獅子山의 자연림을 비롯한 여러 산을 「칸츄리 파크」로 둘러 치고 바다로 이어지는 城河江을 운하로 연결하는 両岸을 도시시설의 중심지구로 계획개발하는 修屬의 아름다움 또한 감탄적인 것이었다.

동양의「호놀루투」나「비냐 델마르」 (칠레의 아름다운 해변 휴양도시)리 고나 할까,

개발이 진행 중이라 아직은 운하를



山頂에서 다시 하늘로 솟아오른 하이라이스 아파트群(홍콩)

따라 植樹를 위시한 조경과 중앙공원을 비롯한 중심시설이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상상의 遠近図를 그리며 비교 를 해 봄직도 하다.

馬鞍山 일부의 개발여지를 포함한 3700핵타에 8십만명의 인구를 수용목표로 하면서, 80년대 말까지는 주거·판매·고용을 위시한 교육과 복지시설을 완료하고 均衡과 繁盛의 신시역을 달성하려는 건설의 현장이 전개된 곳이었다.

운명의 해인 중공파의 조차 기간이 14년 정도 남았지만 그때까지는 샤틴의 뉴타운이 완성된다는 아이러니칼 한 시한도 재미있지만, 또 다른 많은 신개칙지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면 홍콩의 장래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시아 제도서의 환경문제 검토 조경가의 역할 새삼 강조되고

이번 토론에서는 주로 홍콩의 최근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조경가들의 사 례 발표가 많았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가들의 파넬작품들이 많은 관심 을 집중시키면서 진열되었다.

특히 홍콩시역의 공공휴게시설(로 저 폴라드·홍콩정원담당판), 뉴타운 의 개발배경(찰스·사운더스)과 造景 事業(케네드커크브라이트·홍콩정청 조경담당판), 그리고 홍콩의 외곽개 발의 接近方法(던칸 토마스·우르비스 설계그룹) 과 칸츄리 파크의 조정 (존 헤이우드·공원담당관) 등 주로 홍콩에의 개발과 조경에 관한 전반적 인 문제점들이 거론되었다.

여기에다가 홍콩과 비교적으로 다루어진 타도시의 환경과 조경 문제를 요약해 보면, 싱가플 도시화의 환경적 동일성(시우 림·싱가폴 윌리암림 사무소의 파트너), 마닐라 市界부락의 조경과 농업(호라치오 디만빙·마닐라 건축대학 강사), 뉴질란드의도시개발과 조정가의 역할(디안 멘지스·뉴질란드 조경가 협회장·女), 일본의 도시팽창과 녹지공간의 확보(하지메 고시미쭈·베이지 대학 조교수), 중국의 전통적 사상과 조경계획(순 지아옥쟝·중공 베이징 대학 조원과 교수) 등 여러가지였다.

이 외에도 뉴델리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조경관계를 건축가 출신인 델리대학의 「바안」교수가 역시 인도사람인「치탈레」써와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발표자였던 일본인 교수의 히어링 부족및 답변불능 사태가 웃음 속에서 사회자의 기지로 넘기는 등 기록할만한해포닝도 없지 않았다.

회의용어가 영어 하나인데서 오는 불편의 감수는 비영어권의 대표자들 이 겪어야 하는 공통의 운명 같기도 했지만 IFLA도 영국의 연방국들이 주도하는 국제모임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새삼 영어의 위력을 실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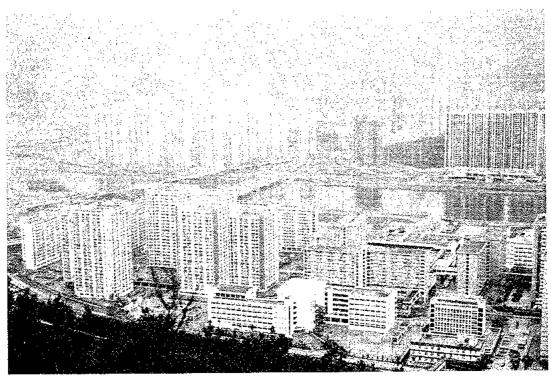
田園도시 싱가폴도 西欧化엔 비난 人間과 自然, 伝統과 創造의 均衡을

3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회의가 아시아를 중심한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도시계획 그리고 修景造園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성과와 과제의 토론으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성공적인 국제회의였다고 다들 이구동성이었다.

아시아제국의 도시현실과 미래의 환경을 조감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숙명적 균형과 조화를 재창조하려는 이상의 실현가들처럼 절규와 웅변으로 시종된 홍콩 쉐라톤호텔의 볼륨이었다.

홍콩을 회생불능의 廃都처럼 성토하다가도 뉴타운의 창조적 의지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싱가폴을 이상적인 현대전원도시로 찬사를 아끼지 않다가는 동양의 伝統을 망각한 서구의복사판이라고 일언지하에 매도해 버리는 대조적 이론들의 난무장이었다.

인도의 계급제도와 생활 관습에서 연유되는 현대화의 기부적 측면도 논 의되었고, 중공의 오랜 역사와 짧은 이즘에서 투영되는 새로운 자본화의 동경과 서구개발 방식에 대한 조심스



홍콩의 신개발지인「샤틴 뉴타운」의 중심개발지역

런 어프로치도 타진해 보았으며, 성 공적인 도시계획으로 표현되던 오스 트랄리아의 시드니와 캔버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아직도 잘 보존된 광대 한 자연의 인간화 개발구상도 차원높 게 연구되고 있음을 들려 주었다.

저개발국이면서도 자만감에 꽉 찬 태국이 70%의 넓은 평야를 여하히 열대수목으로 국토의 이상적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선진국의 도취감에서 열도를 개조하려는 일본은 70%의 많은 산지를 어떻게 세계의 개발모델로 완성시키려고 하는지에 관해서도 깊이있게 다루어졌다.

파푸아 뉴기니아의 원시림에 대한 조정적 차원과 타이완의 보존림에 대한 한 수정적 계획도 상대적으로 이해되 어야 할 또다른 측면의 문제점을 제 기하기도 했다.

世界 속에 安住하는 韓国的 도시 공간

서울을 歷史와 田園의 샘플도시로

그러면 도시인구의 팽창과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높은 우리의 환경조건과 주거실대를 잠간 살펴보자.

간단히 서울을 예로 들어 보면 도 시오염과 주택난을 접어 두고라도 우 리의 전통적 도시공간과 문화에 대한 관민의 수준부족, 광장 등 오픈 스페 이스와 공공휴게시설에 대한 인색한 행정, 전반적인 건축과 조경에 대한 시민의 노력상실 등 여러 부정적인 요 소가 아직도 세월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언일까?

정말 모처럼 갖는 올림픽 등 세계 속의 한국을 연출해야 할 시간적 여 유를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긴급개발 방식의 수립이 다급하게 나마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실재로 내년 IFLA 총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각국대표자 모임에서 우리의 올림픽 행사와 조경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들을 표명하기도 했고, 나아가 1992년도의 IFLA 한국총회 개최를 「밀러」 현회장으로 부터 제안받기도 했으나 먼저 걱정이 앞서움을 억누를 길 없다.

마침 오휘영 KOFLA(한국 조경연합회)회장의 불참으로 확답은 다음으로 미루어 놓았지만 서구의 조경가들과 건축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기내가 자못 큰 것을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전시효과를 떠나서 진정 우리의 도시환경과 조경이상에 대한 참모습과 미래상을 보여 줄 수 있는 노력 또한 계올리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본다.

낡은 기와집을 헐고 10여층의 빌딩을 짓는 재개발 방법이 우리 도시의 현대화로 착각하고 88년에는 그것을 자방삼아 보여 주기에 급급한 악화일 로의 도시계획은 하루 빨리 止揚되어야 하겠고, 한국적인 문화와 유산을 마구 헐어 버리고 서구의 아류로 한 없이 전략되는 과정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추태는 더이상 묵과해서도 안될 일이다.

도심을 호르는 천혜의 청계천을 정화하려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덮어 버리고, 그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꾸려 하지 않고 마구 쓸어 버리고 옮겨 버리는 일, 그리고 모처럼 이전하는 도심 속의 학교에는 재벌빌딩으로 공간을 채우는 지혜는 이번 회의에 제출되었다면 단연 사형감이리라.

홍콩의 토지와 개발공사를 판장하는 「잔내경」 장관이 개막식 치사에서, "개발의 필요와 환경의 고려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환경과 건축환경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그리고 전문기사와 조경가 등을 광범위하게 고용하였다"고 말했듯이 행정가가아닌 전문가의 主導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청되는 해결의 열쇠임을 확신해 본다.

여기에 꼭 첨가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 숨쉬고 생활하는 도시와 자연은 전래의 문화와 미래의 문명이 함께 안주하는 공간이라야 한다는 것이 이 번 화의를 다녀 오면서 재삼 창조역 基本律로 삼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램이다.



新築建物 등 특색 돋보여

서울市 都市設計制度 도입으로

서울시가 짜임새 있는 도시를 가꾸 가 위해 도입 실시하고 있는 도시설 계재도가 奏効, 현재 을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건설되고 있는 건물들이 나름대로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중구 을지로 3 가에 건립된 七寶物 山빌딩(지하 2·지상 9 총)의 경우 1 층에 보행사를 위한 회랑 보도가 만 들어져 있고 울지로 3 가의 朝鮮屋 자 리엔 회랑 보도가 있는 지하 I·지상 5 층짜리의 건물이 들어선다. 이어 을지로 2 가에 신축될 지하 4·지상 20 층짜리의 서울투자금융사옥 앞엔 시 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공원 이 만들어 진다.

참실대로변의 경우 도시설계에 맞춰 신축이 허가된 건물은 △상업은행전산센터 △동일방직사옥 △서울신탁은행전산센터 등 3개 건물이다. 국립경기장으로 연결되는 참실지구 간선도로변에 신축될 건물의 공통적인특징은 건물 앞에 널따란 휴식공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설계란 개별건물이 아닌 가로 변 일정구역의 개발모형을 만들어 이 에 맞춰 개별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 으로 지난해 3월 을지로 등 4개 간 선도로변에 처음으로 도입됐었다. 도 시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을지 로・종로・세종로・태평로・참실대로 변 등 5개 도로변이며 테헤란로・김 포가도・신촌로터리・개포・가락지구 등 5개 지역은 설계작업이 전행되고 있다. 이외에 영등포지구・청량리・목 동지구・대학로 등에도 도시설계기법 이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의 정비를 촉 고하기 위해 도시설계 적용지역의 신 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다.

건축사자격 및 특별전형 실시

건설부, 1차 5월20일

구 분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제 1 차 : '84. 5. 20	필기 : 좌동
1. (1 # 2 /r	제 2 차 : 추후개별통지	l - · · · •
0 1141714		실기:좌동
2. 시험장소	서울특별시(수험표 교부 시 통지)	좌 동
3. 용시자격	건축사법 제14조에 각호	가. 건축사법 제16조에 의
	의 1에 해당하는 자	한 건축직공무워으로
	, , , , , , , , , , , , , , , , , , , ,	7년이상 근무하고 있
		는자로서 동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니. 건축사법 부칙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한 2 급건
		의 1 성에 의한 2 급신 축사로서 동법 제14조
		1
4. 시험과목	○제 1 차 시험	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필기시험
4. 竹覧竹雪	 	
	건축구조(필기) 건축사고(필기)	건축구조
	건축시공(필기) 건축법규(필기)	건축계획
}		0 2) ni 1] #]
	O제 2 차 시험 원출권회(교과)	O실기시험 고추선에
	건축계획(필기)	건축설계
E 0 (1 0) (1) = 1 ½ (2) = 1 ½	건축설계(실기)	
5. 용시원서교부 및 접수	1094 4.0 4.00/4503-33	
가. 교부 및 접수기간	1984.4.6-4.20(15일간)	<u> </u>
나. 교부 및 접수기간	서울특별시, 직할시, 각 도청 민원실	좌 봉
	<u> </u>	
) 가. 용시원서 기. 용시원서	 ○건축사자격사험용시및	○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 '• '	면허신청원서(교부 및	응시 및 면허신청원서
	집수처에서 무료배부)	(교부 및 접수처에서 무
	1	로배무) 1 통
나. 수수료	O1,500원(정부수입인지	<u>포키// 사용</u> 좌 동
	청부)	- 8
다. 사 진	○ 3 개월내 촬영한 사진	좌 동
	(3 cm × 4 cm) 3 叫	
라. 회신용봉투	○ 우편번호·주소·통반	좌 동
	· 성명기재 및 400원	
	우표 첨부한 봉투 2매	
	(주소지변경시 즉시 롱	
	보요)	
7. 수험표교부	○1984. 5. 4 (개별통지)	좌 동
8.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필기시험
	1984. 6. 25 예정	최 동
	(개별통지 및 제2정	
	부청사 개시판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1984. 9. 30예정(개별통	좌 동
	지 및 제2정부종합청	·
	사 게시판개시)	
9, 기 타	○시험일 7일전까지 수	좌 동
	험표를 받지 못한자는	·
	접수처에 문의할 것	

단열시공기준 대폭 강화

건설부는 건축물의 단열사공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건축법시행 규칙을 고쳐 건축물바닥 단열재사용 기준의 열판 류율을 종전 1.0에서 0.5로 강화했고 광동주택 측벽은 0.5에서 0.4, 가구 별 난방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의 온수 온돌 바닥인 경우에는 1.0으로 열 관 류율 기준을 신설했다.

이 시행규칙은 이밖에 건축물 준공 검사때 구내통신선로 설치을 확인케 하여 전화사설을 사후 설치하는데 따 른 건축물의 훼손을 방지키로 했다.

열관류율: 1㎡당 섭씨 I도 차이가 있을때 시간당 Kcal 만큼 흘러나가는 율로서 숫자가 작을수록 단열 効果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단열재로 스티로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열관류율 1.0에 맞추려 면 두께가 30mm, 0.5일 때는 50mm, 0.4일 때에 70mm를 써야된다.

広域행정연합체구성 필요

国土開発研, 수도권문제 방안 제의

国上開発研究院은 수도권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廣域行政聯合 体構成을 제의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경제부처 합동연 수회에 제출한 수도권문제토의자료에 서 서울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은 都農의 구분없이 동질공 간화 되고 있다고 지적, 서울과 주변 경기도의 읍파 군을 묶은 광역행정연 합체를 신설하여 도시계획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인구집중 趨勢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오는 90년의 서울의 인구는 1천196 만명으로 전국의 27%, 수도권 인구는 1천874만명으로 전국의 42.3%로 늘어나고 2천년에는 서울이 1천558만명(31.1%) 수도권 2천411만명(48.2%)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지난 60년대 말이후 지금까지 △ 주민세신설 △ 서울 의 공장 신·증축억제 △ 그린벨트지 정 △ 지방학생 서울전입억제 △ 수업

료 입학금의 차등제 실시 △대학예비 고사 학구제도입 등 각종 수도권인구 소산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거의 実効 를 거두지 못해 수도권의 인구가 계 속 중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인구소산책이 이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계획만 수립한 뒤 실제 추진이 안된 부분도 있고 △ 수도권인구억제시책이 계속적으로 추 진됐으며 △ 각분야의 中枢機能이 서 울에 집중돼 있어 인구의 지방분산정 책이 効果的으로 유도되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은 분석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특히 서울시 자체의 근시적 자기중심적 시책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도권문제 해결에 때때로 역행했고 중앙정부의 시책이 소극적이고 부처간에 일관성이 없었던점 등도 수도권인구 소산정책 실패의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수도권정비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고 고위전답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大圏域으로 나눠 開発

건설부,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안

정부는 서울도심지에는 앞으로 21 층 이상의 고층빌딩을 짓지 못하게 하는 등 도심권을 5대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한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기능별로 5대권역으로 나눠 △ 서울시와 의정부사 구리읍 등 서울북부 경기도 일부를 이전촉진 지역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는 고교 이상의 각종학교 신·증축, 작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의 공장 신·중축 3만㎡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임반업무시설,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판매시설의 신·중축행위를 일절 금지키로 했다.

또 △ 인천·부천·수원·안양·오 산 등 한강이남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인구집중유발사설의 신 ·증축을 금지하고 이전촉진권역에 서 옮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조 성된 반월공단 등에서 수용키로 했 다.

또 △ 가평·청평·이천·용인·長 湖院·여주 등 북한강 상류지역은 자 연보전 지역으로 묶어 1만㎡ 이상의 택지조성 간척사업 3만㎡ 이상의 공 단조성 연면적 1천㎡ 이상의 공장 증축, 공공시설, 판매시설 100㎡ 이 상의 毒劇物 취급소 설치가 금지된다.

시안은 또 △ 江華·汶山· 동두천 연천 抱川 등 서울북부 경기도 일♥ 를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 토지구희 정리사업 등 도시화를 유도하는 사 업 연면적 1천㎡ 이상의 공장 선· 중축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수도권지역에는 공장 뿐만 아니라 대학 분교 및 대학생중원을 일체 금지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스 개발유도권역을 최소화, 당초 포함돼 있던 용인·이천·長湖院·오산을 제외시키고 송탄·평택·안성·安仲·発安·朝岩 등 경기도 최남단 일부지역으로 축소 조정했으며 수도권지역에서 이전되는 공장의 수용이 끝나면 오는 86년부터 개발유도권역 자체를 폐지시킬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 안의 △30만㎡ 이상 택지 △ 100만㎡ 이상의 공업단지 △10만㎡ 이상의 재개발사업 동엔 7월부터 인구영항평가를 실시, 인구집중유발사업을 사전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

자투리땅에 新築허용키로

서울市 아파트地域 개발 위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로 고사돼 묶인 지역 중 아파트를 짓기가 어렵거나 부적당한 자투리땅을 규제에서 풀어 다른 건물을 짓도록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내 개발간여지처리대책을 마련, 전체 면적이 공동주택건립 최소규모인 3천㎡ (900평) 이하이며 대지폭이 30m 미만인 지역, 아파트건립 사업시행자지정 후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사업자 지정이 해제된 지역등을 지구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이미 양호한 주택이 밀집돼 있어 보존이 바람직한 지역,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 대형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 평균소옵이 75데시벨(db) 이상이거나 고가도로 - 대로변 등 주거환 경이 나쁜 지역, 월조시간이 짧은 지역도 규제를 풀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4 월부터 전담반을 구성, 자투리땅 현황을 면밀히 조사 한 뒤 아파트건립에 부적당한곳을 선 "하여 해제 조치키로 했다.

개발잔여지로 불리는 이들 자투리 땅은 아파트를 짓기 곤란한 지역인데 도 장기간 고시에 묶여 고물 처리장, 쓰레기장 등으로 사용돼 주변 환경을 해치는가 하면 토지 이용이 불가능해 地主들의 민원을 불러 일으켜 왔다.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지구로 묶여 있는 곳은 모두 14개 지구 1 천273만 6 천㎡ (385만 9 천393평) 이며, 이 가 운데 자투리땅은 54만 6 천㎡ (16만5천 454평) 이다.

자투리땅이 아파트지구에서 풀리면 땅 주인은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관광호텔 13개 들어서

서울시내 88올림픽 대비

서울시내에 13개 호텔(객실 2천5백96개)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東洋高速 그룹의 우창건설이 마포구 도화동 39의 5 가든호텔 맞은편에 지하 5 층 지상 34층의 소피텔호텔을 신축하는 등 13 개 관광호텔이 건설증이거나 건립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들 호텔이 들어서면 서울시내 호 텔규모는 현재의 54개 호텔 1 만 2 천 1 백33개 객실에서 67개 호텔 1 만 4 천 7 백29개 객실로 늘어난다.

건설중이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어들 호텔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피텔호텔-올해 착공, 86년에 완공예정.

▲ 라마다 르네쌍스판광호텔 - 서대 문구 홍은동 202의 1 백련사 옆에 지 하 1 충 지상 8 충 객실 3 백80개 규모 로 세워지며, 현재 설계중.

- ▲ 한남관광호텔-한남레저가 용산 구 한남동 542의13 한강볼링장 옆에 지하 4 층 지상17층 객실 3 백3개 규모 로 건립하며, 연내에 착공한다.
- ▲ 서울캐피탈관광호텔 주식회사 신암이 용산구 동방고동 310의1 청화 아파트단지 앞에 지하3층 지상12층 객실 3백10개의 호텔을 건설증.
- ▲ 뉴월드관광호텔~대주관광이 강남구 삼성동 112의 4 삼릉공원북단에 자하 3 층 지상10층 객실 1 백93개 규모로 짓고 있으며, 85년 8 월 완공예정
- ▲ 인터내셔날호텔-한일합섬 그룹의 한효개발이 강남구 서초동 산4의 28 말죽거리 북쪽에 지하3층 지상13층 객실 1백87개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 ▲ 화랑관광호텔 화랑산업이 강동 구 천호동 425의 5 에 지하2층 지상12 층 객실 1백64개 규모로 오는 8월 착공, 86년 8월 완공할 예정.
- ▲ 경남관광호텔 동대문구 장안동 48의10에 짓고 있으며, 지하2층 지상 10층 객실 1 백 8 개, 오는 6 월 완공 예정.
- ▲ 호텔선-강남구 청담동 53의10 영동교남단 로터리 부근에 지하 2층 지상10층 객실 1 백 7 개 규모로 지을 계획.
- ▲ 유니버스관광호텔 창원 전흥기 업이 천호대교 남단 구천호동 사거리 부근에 지하 2 층 지상 8 층 객실 1 백 개 규모로 짓고 있다. 오는 12월 완 공 예정.
- ▲ 남부관광호텔 구로구구로동 11 27의 3 구로공단 입구에 건립 중이며, 지하 3 층 지상11층 객실 83개. 내년 말 완공된다.
- ▲ 한양관광호텔 구로구 시흥동 98 6 의 4 옛 구로구청 임시청사 건물을 객실 81개의 호텔로 개조 중이다. 오 는 4월 완공 예정.

▲ 크로바호텔-강남구 청담동

乙支路에 大型건물 신축

재개발지역에 35층 규모

住宅公社가 시행하는 을지로2가 재 개발사업지구에 35충짜리 등 대형 건 물이 세워진다.

주공에 따르면 총사업비 2천 281 억원을 투자하게 될 을지로2가 16, 17지구 재개발사업은 오는 4월초 착 공 86년 9월까지 이 지역에 35층, 27층, 22층의 대형건물 3동(연건평 7만 9천평)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주공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을지로 2 가 16 17지구 2 만 7 천960㎡ (8 천458평)의 대상지역 안에 있는 4층 이상 건물 20동과 3층 이하 158동 등 178동(연건평 1만 1 천291평)을 모두 철거, 86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대형 건물과 녹지지역 주차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주공은 이미 지난 2월 발 헐리는 건축물과 대상토지 소유자에게는 새로 들어설 건물에 권리를 이전시키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건물 분양을 실사 하기로 하고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裁決節次를 마쳤다.

주공은 당초 지난해 9월 공사에 차수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및 건물소유 자와의 보상 및 매수협의가 안돼 6 개월 가량 공사착수가 지연됐다.

이 지역 토지 및 건물 총 6 만 2 천 935㎡ 가운데 건물(3 만 7 천325㎡)의 경우 80%인 2 만 9 천980㎡는 새 건물완공 후 분양받기로 했으며 8.6%인 3천51㎡는 매각키로 하는 등 전체의 88.6%가 사업기공을 동의했고토지(2 만 5 천610㎡)의 경우는 88.2%가 기공동의를 했다.

청암 스튜디오 이전

각종 건축작품사진 촬영ㆍ제작

건축작품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임정의건축사진연구소(스튜디오青岩)가 지난달 말경 이전했다(중구 충무로 3가 51-6 도봉빌딩205호 TEL 273-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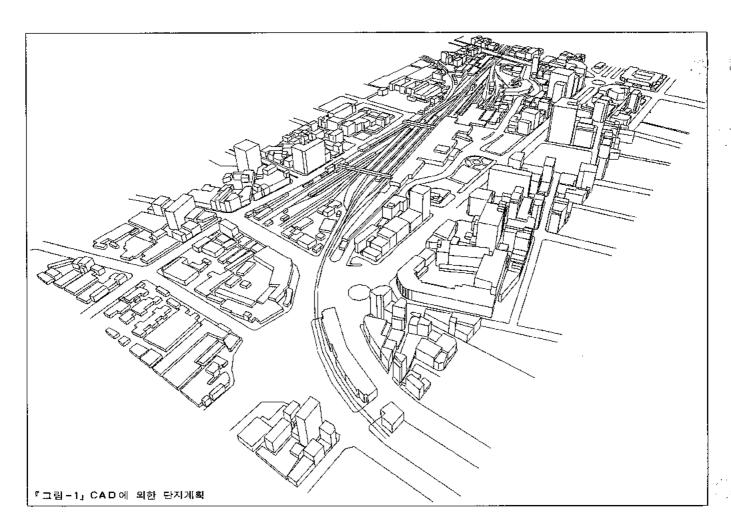
스튜디오 청암에서는 건축작품촬영 외에 건축모형, 투시도, 조감도도 촬 영하며 지원명, 부루쉐어 작품집에 사용될 사진도 제작한다. 또 현상설 계용 도면사진제작과 각종 건축관계 슬라이드 등도 제작하고 있다. 連載: 『建築의 컴퓨터 応用』(Ⅷ)

CAD 号 活用한 建築設計

曹 鐵 鎬 - 건축사・建国大교수

ARCHITECTURAL DESIGN BY CAD SYSTEM

CHUL -HO CHO / KONKUK UNIV.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 스틸이란 Computer Graphics을 대 화의 도구로 이용하여 설계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 한다. 컴퓨터와의 대화는 실계자나 엔지니어가 이해하기 쉬운 도형정보 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CAD Soft-Ware의 기본가능은 도형Data 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역점이 주 어져야 한다.

CAD 시스팀의 커다란 특징은 도 면 등의 도형 Data를 컴퓨터에 축적 시키는 것인데 이를 Data Base라하 며, 축적된 도면을 참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대화나 기타 도형 조작에 의하여 기존도면을 수정,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도면처리 작업이 쉽게 이 루이지고 또 작업효율이 향상되므로 CAD 시스팀은 설계업무에 많은 도움 을 줄 것이라 보아, 산업의 각 분야 에서 보다 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계 부문의 업무 효율화를 부르짖고 있 다.

- ① 표준도의 작성

③ 原図의 추가, 삭제 및 조합에 의한 제2의 유사설계 및 제도 등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 많은 원도 중에서 필요 한 도면을 찾아내어 유사설계를 수작 업으로 할 때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CAD 시스팀 에서는 표준도와 기본이 되는 도형을 Data Base로 등록해 두고, 필요에 따라 윈도를 꺼내어 이 Data Base 를 이용하여 추가삭제 등 편집하여 도면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 ^ 여 도면검색이나 제도에 필요한 Man ② 기존 설계도면의 검색 및 체크 -Hour를 대폭 줄여 설계, 제도 작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에 적합한 CAD 시스팀을 도입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설계업무에는 제품개발,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견적업무, 발주 업무, 생산관리 등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또 기업의 배경 및 수주생산, 예측생산과 대량 생산, 개별생산 등 제품의 배경에 따라 개발·설계·제조의 각종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 든지 생산시스팀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짓도 이러한 Data Base의 닥분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설계업무는 성격상 성능이나 형상의 제원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업무나 적산집계, Cost 계산의 적산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은 CAD Data Base의 형상 Data나 도면 Data를 토대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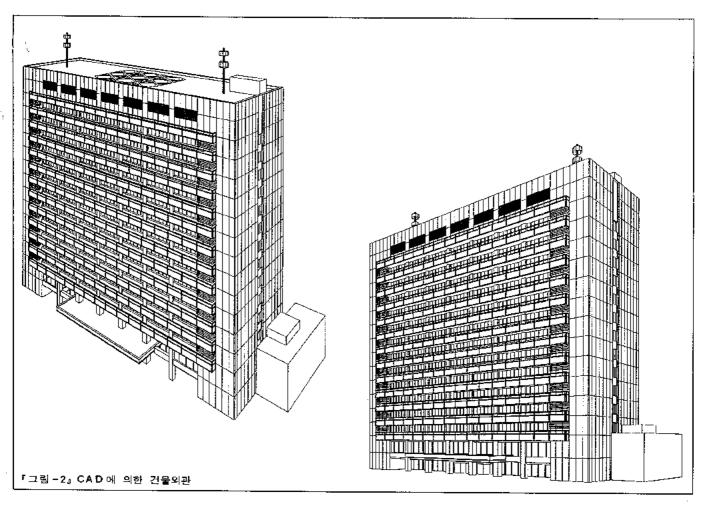
CAD의 Soft-Ware에 관한 구체

또한 기존 건물군이 있는 단지내에 새로운 건물의 신축계획에 활용하여 전체 조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림-1』은 도시 단지 계획의 한 예이고, 『그림-2』는 신축하고자 하는 어느 한 건물의 예가 될 수 있겠다.

한번 입력된 자료는 컴퓨터 보조기 억 장치에 기억시켜 놓으므로서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심지에 초고층 빌딩이 있는 경우



려해 보면 CAD 시스팀에 대한 기능 요건 및 평가기준이 항상 일정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각 설계단위의 작업능률을 향상 시키고, 다음 작업과 연결시킴으로써, 전체로 서의 Man-Hour 절감, Lead Time의 단축 및 품질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의 뒤에는 Data Base 라는 도구가 있다. 과거 설계의 Know-How 인 원도를 축직하여 이를 이 용하여 편집설계하는 것은 물론 기 본설계에서 정해진 형상을 직접 이용 하여 건축실시 설계나, 전기설계 또 는 위생배관설계를 쉽게 할 수 있다 적인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C AD 시스팀을 활용한 건축설계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I. CAD 애 의한 透視閃의 活用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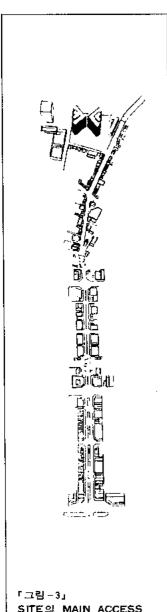
어느 한 건물의 기본설계를 위한 Data를 입력해서 어떤 방향 어떤 위치에서 바라본 건물모양을 CAD 시스팀에 의하여 작도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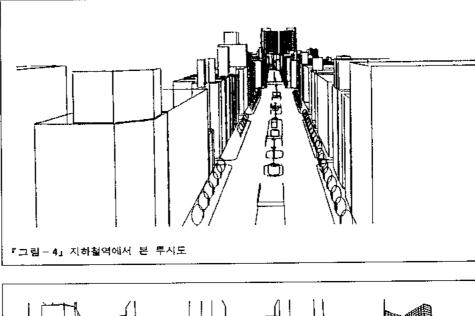
포시의 단지 계획에서도 여러 建物群의 자료를 입력하여 모형을 제작하여 볼 수 있는 효과와 같은 시뮬레이 숀(Simulation)을 CRT에 통해 할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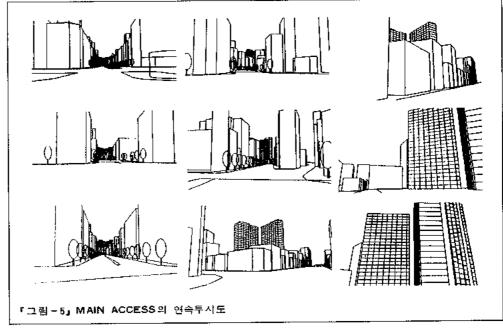
발딩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바라 본 신축될 건물모양을 CRT로 볼 수 도 있으며, 여러 방향에서의 신축될 건물을 다자도로 검토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 단지 계획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신축 건물을 배치 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나, CAD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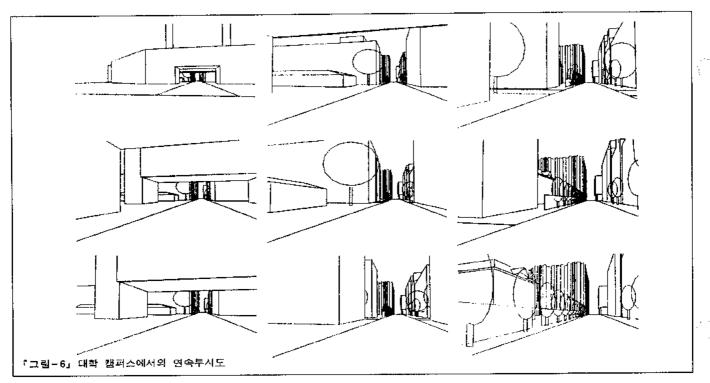
3 차원을 처리할 수 있는 Soft-Ware를 구독하든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두면, 이러한 모든 건물의 형 상은 입력 자료로, 좌표로서 한번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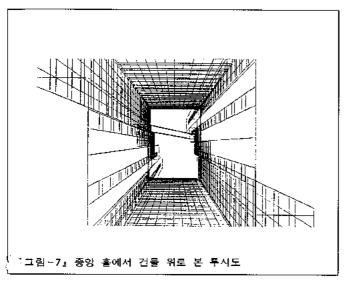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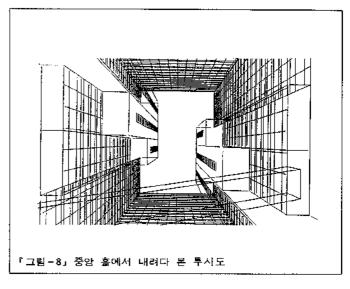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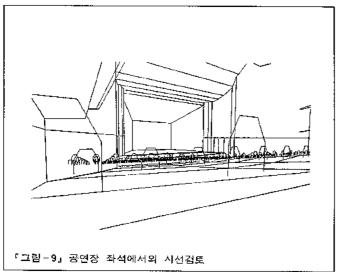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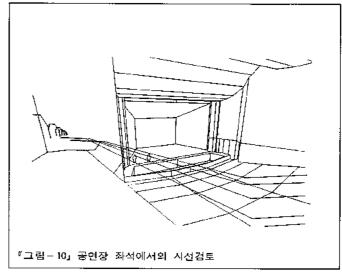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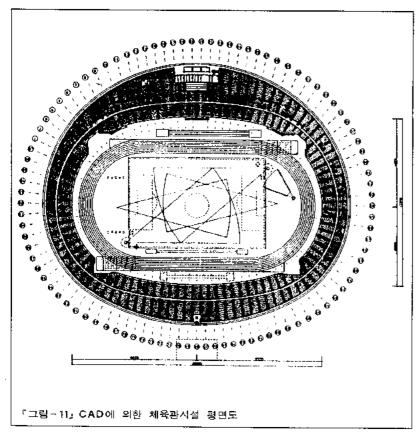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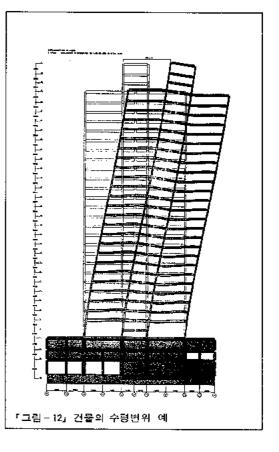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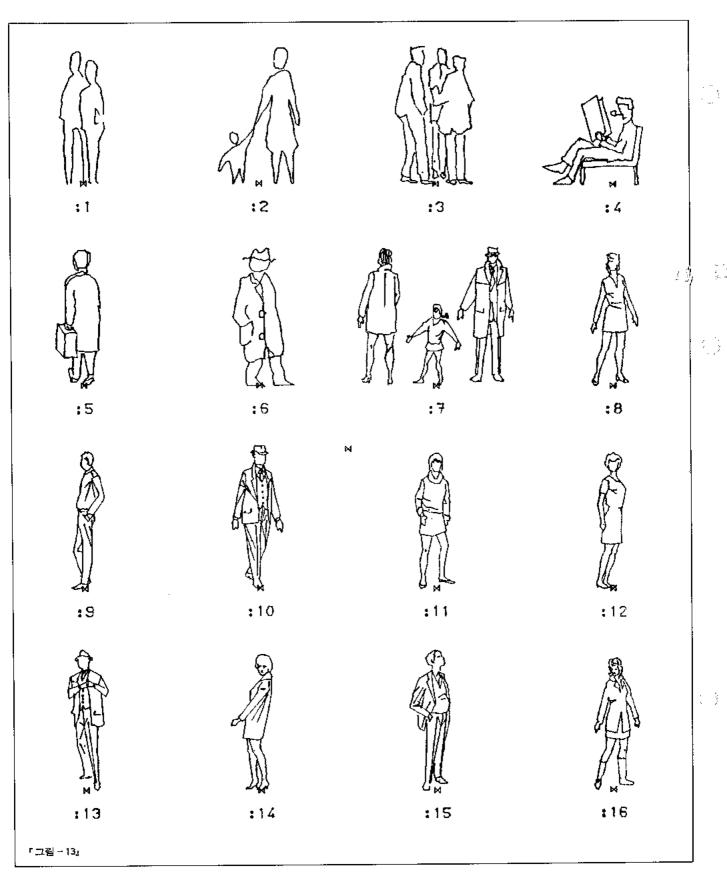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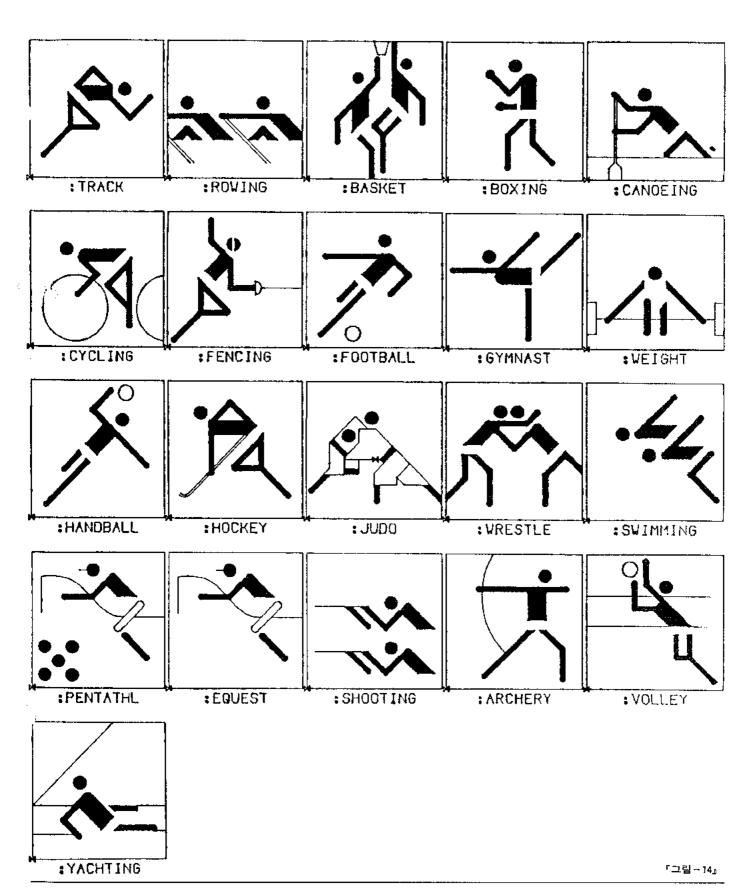
력해 두면 어떤 방향에서 바라본 조 갑도라도 컴퓨터 내부 기억장치에 의 하여 2차원으로 변환시켜 사진을 찍 은 것과 같은 조감도를 CRT를 통 해 볼 수 있게 하든지, 프롯터로 작 도할 수 있게 한다.

도심 속의 어떤 건물의 높이와 모

양이 결정되면, 주변 건물과의 관계와 도시미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3』 『그림-4』, 『그림-5』에서 볼 수 있겠다. 이 에는 일본의 日建設計에서 CAD에 의해 작도한 것으로 『그림-2』는 Site Main Access이고, 『그림-3』

은 지하철역에서 바라 본 투시도이 며, 『그림-4』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의 차창에 전개되는 연속투사도이다.

『그림-6』은 어떤 대학 캠퍼스를 계획할 때, CAD에 의한 연속투시도 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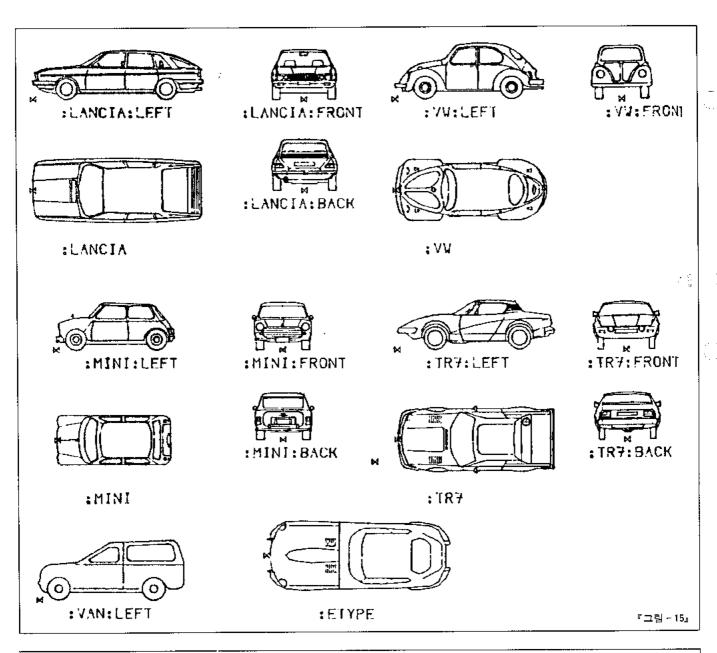
고층건물에서 노천 중앙 홍이 있는 경우, 건물 위로 쳐다 본 투시도가 『그림-7』과 같고, 중앙 홀에서 내 려다 본 투시도가 『그림-8』과 같은 예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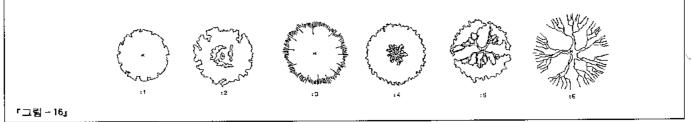
이러한 것은 모형으로는 느낄 수 없는 효과를 CAD에 의하여 투시도 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극장과 같은 공연장의 좌석을 적절히 배치하는 문제에 접할 경우, 각좌석에서 무대를 바라 보는 시선관계를 검토할 때도 CAD 시스팀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라 본다. 그 예로 『그림-9』와『그림-10』을 들 수 있겠다.

컴퓨터 CRT를 통하여 각 좌석에 대하여 이러한 시선관계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CAD에 의한 투시도의 활용예는 많겠으나 지면관계로 생략 한다.





2. CAD 에 의한 建築設計의 活用例

CAD에 의한 건축설계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상세도 등 일반 건축설계에서 도면화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도면도 가능하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CAD에 의한 骨組図에 관하여는 추후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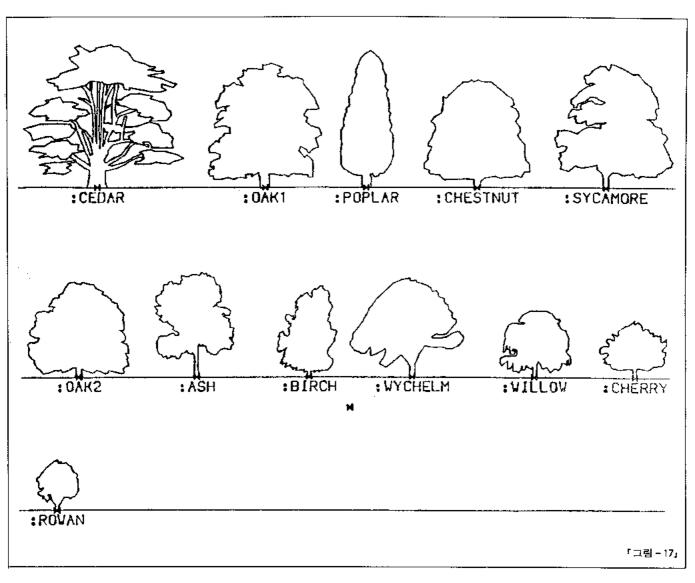
여기서는 건축설계의 활용예를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비교직 작도가 어렵고 작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체육관 시설의 예가『그 림-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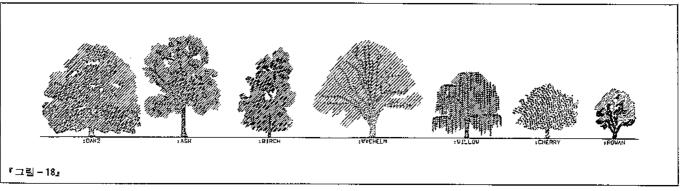
체육관의 관객석은 각각 다른 반경을 갖는 6개의 원호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모양을 작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CAD에 의해서 작도를 시도할 수 있는 예가 될 것이다.

· 입력된 자료에 의하여, 다시 입력 하지 않고도 부분확대가 가능해서 실 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하나의 예로서 건물에 수 평하중이 작용할 때, 수평변위를 C AD 시스팀에 의해 도면화 할 수 있 게 된다.

그 예가 『그림-12』이다. 여기서 수평변위 값은 실제보다 몇배 과장해 서 나타낸 것이다.

그외 건축설계의 다른 예에 대해서 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소개하고자 한다.





CAD에 의한 建築設計를 위한 資料 구축

효율적인 CAD에 의한 건축설계를 위해서는 창문, 변기, 위생기구 등에 대한 자료를 Library로 만들어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인 Disk나 Tape에 수록해 두어야 한다. 표준설계가 될 수 있는 평면도, 입면도 등도 Library로 만들어 두면, 비슷한 건물을 설계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어 효과 적이다.

건축설계의 CAD 활용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는 우수한 Soft-Ware 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자료의 정리 및 축적이 더욱 중요하겠 다.

각종 카다록을 컴퓨터화 하여 활용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Library 化한 예로 서 영국의 ARC 社의 GDS (General Drafting System)의 Library의 몇 가지를 예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13』은 투시도에서 쓸 수 있 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자료로 축소 확대가 가능하므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14』는 체육경기표식을 자료 화한 것이다.

「그림-15』는 자동차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16』, 『그림-17』, 『그림-18』은 나무에 대한 자료로, 이와 같이 평소에 자주 쓰이는 부분도면을 자료化해 둠으로서 CAD에 의한 건축설계가 더욱 효율적이 될 수있게 된다.

建築設計事務所 꾸唱 / 6 選

ARCHITECTS' OFFICES

Design Consortium

변화가에 위치한, 예전에는 상점 이던 곳에 자리한 Design Consortium 의 사무실은 미묘한 수수께끼 라고 묘사한다 때도 역시 그 사무 설은 건축가 자신들의 가장 뛰어난 광고蛋임에는 틀림이 없다.

설계의 이면에 내포된 깊은 사려 즉, 흰 벽면과 밝은 원색의 기둥, 노출된 턱트, 문,가구들이 우주적 인 시각적 충격을 연출해 낸다.

본래 사무실의 앞쪽에는 용접실이 있고 뒤쪽에는 어느정도 대중적인 다목적 회의실로 나뉘어져 있다. 플랫포움은 두개의 작업실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작업실에는 두개의 책상이 놓여져 있다. 또한 플랫포움은 3가지 목적을 달성키 위해만들어 졌다.

첫째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창을 통하여 안쪽에서 활동하 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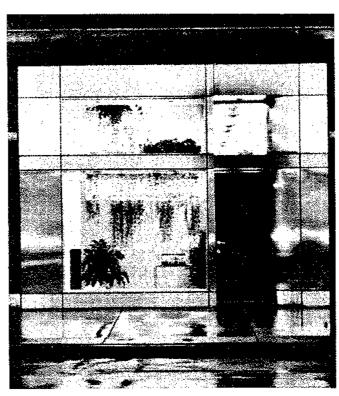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높은 곳에 있어 사면벽의 눈 높이에 달려있는 거울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잇점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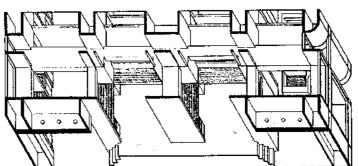
둘째 플랫포용의 아래 공간은 서류철과 같은 부피가 큰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닥의 높이 끊 변화시킴으로 일반대중과 면리한 통로를 통하여 뒷쪽의 회의실로 가는 방문객들의 사적인 공간을 명확히 구분자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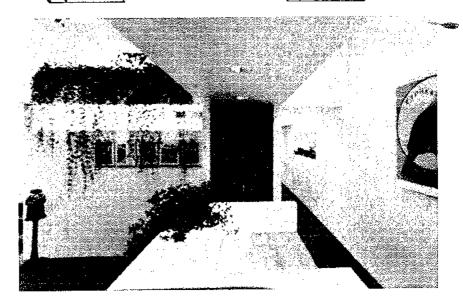
바닥의 높이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통로를 더욱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일련의 낮은 소핏에 서류상자나 전등,기계, 전기설비 등을 감추어 물 수 있게 했다.

반면 등근 에어 덕트의 우아하게 닫혀진 부분에는 가계설비가 숨겨 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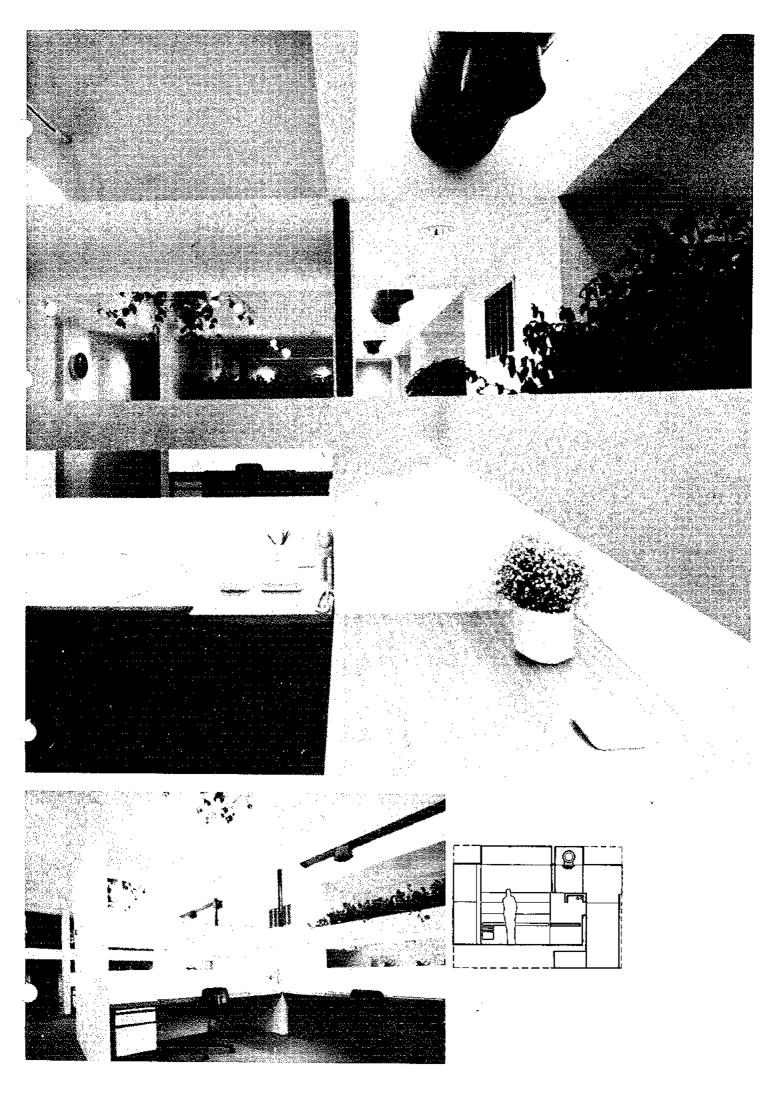
ARCHITECT'S OFFICES, Minneapolis, Minnesota. Architects: Design Consortium, Inc. General contractor: Placemakers.











2

Patty Berkebile Nelson Associates

자신들이 사용할 광간에 이록해놓은 건축작품의 위력은 바로 미완성에 있다. 이 건물은 Historic Place의 National Register에 있는 칠층 건물로서 PBNA 가 그 건물의 1층을 점유하고 있다.

건축가들은 철을 씌운 벽난로를 포함하여 모든 격벽의 세공을 없애 고 대리석 징두리벽판과 참나무 목 조부를 페인트로 칠해 버리고 본래 의 두터운 벽면을 용통성있고 필요 한 공간으로 정리했다.

사무실에 가구를 새로 보강하는 한편 낮은 져범과 최선의 상태로 있는 에어핸들링 막트는 그들 자신 의 감각에도 일치하는, 옛 모습의 공간에 어울리는 훌륭한 구조물로 서의 특장을 보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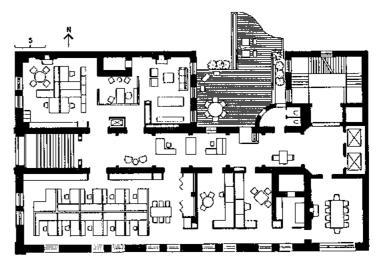
실용성을 최대로 살리면서 1978년 4만5천달러룹 들여 5천4백 30평방 피트를 개축하였다. 저색목 제의 지붕은 야외 라운지를 만들기위하여 인접한 지붕에 붙여 지었다. 이 설계는 최근 AIA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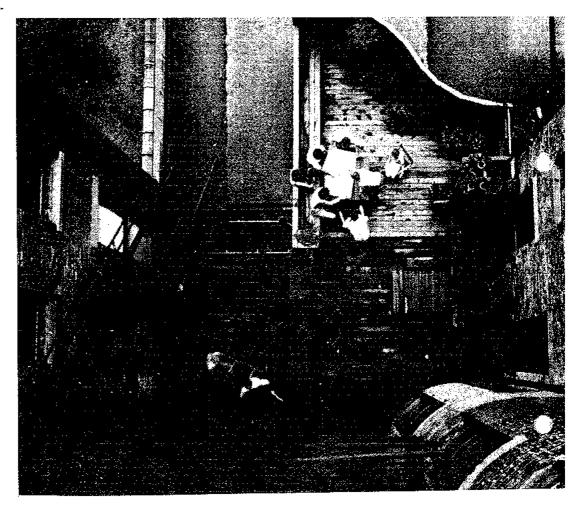
PBNA CORPORATE OFFICES, Kansas City, Missouri. Architects: Patty Berkebile Nelson Associates. General contractor: Woodings Mid-Continent Construction.





£.







Charles Sieger

자신의 사무실을 설계함에 있어 Charles Sieger는 재한된 공간에 유동적인 프로그램을 삽입시키기 위해, 또한 공간 위에 일관된 개인 적인 설계철학을 표현하기 위한 평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제의 내부 높이가 21 피이트나되기 때문에 Sieger는 이 공간을 수명으로 나누어 개인의 작업장은 나선계단을 올라가 발코니에 이르는 곳에 마련했고 맨 아랫중은 용접실, 회의실, 인쇄실, 화장실과고객을 위한 곳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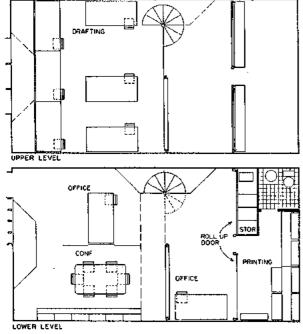
Sieger는 자신이 원하는 설계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산업적인 구 성요소와 끝마무리를 활용하여 노 출된 덕트와 강철기등에 덧붙여 발 코니 바닥에 석살대를 사용했으며 금속으로 문을 감싸고 균형을 맞춘 간이벽과 총계를 설치했다. 가구에 있어서는 찬장까지도 강철로 구성 된 같은 종류의 것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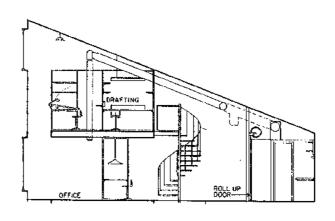
건축가 Sieger는 강철 계통의 건축자재에 대비하여 돌보이도록 유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유리의 투명한 감성이 작품을 공간적으로 창조해 내도록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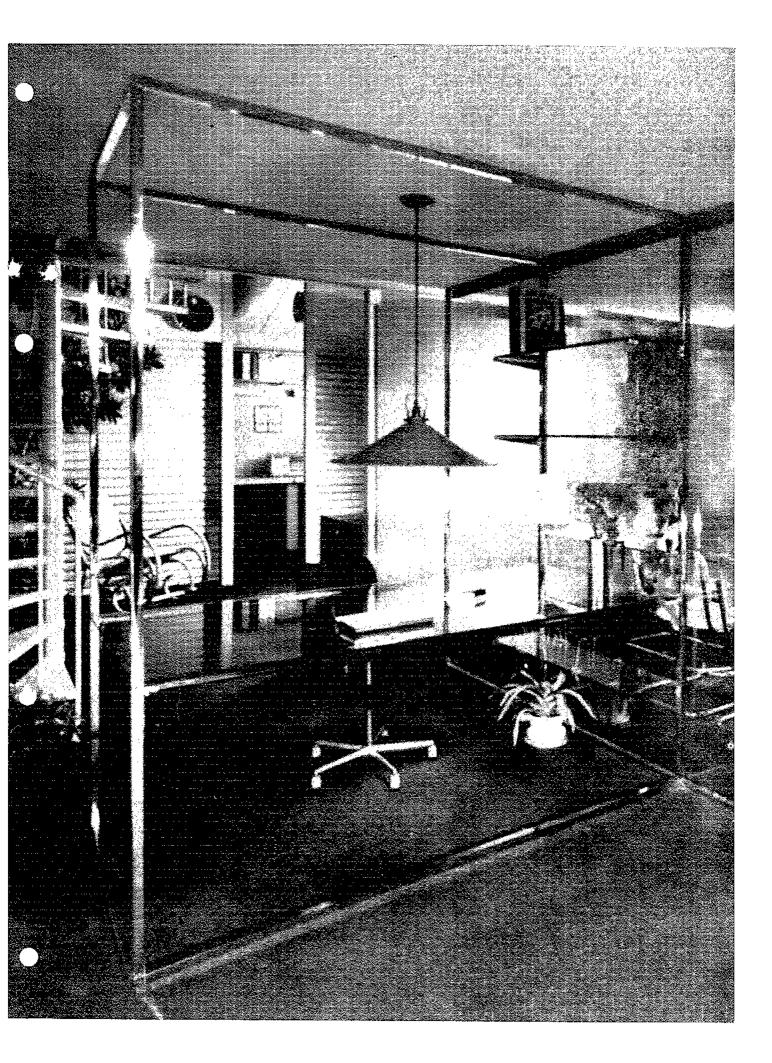
기계학적인 거치름을 상쇄하기 위하여 Sieger는 따뜻한 회색 계통 외 색깔을 사용했으며 내부는 색깔 의 강조와 더불어 식물을 이용하여 상쾌하게 만들었고 전등도 창조적 인 설계의 한 방책으로 이용했다.

ARCHITECT'S OFFICE, Miami, Florida. Architect: *Charles Sieger*. Contractor: *John McKie & Son*.









EPR Associates

EPR 사무실은 삼층 건물의 윗쪽 두 층을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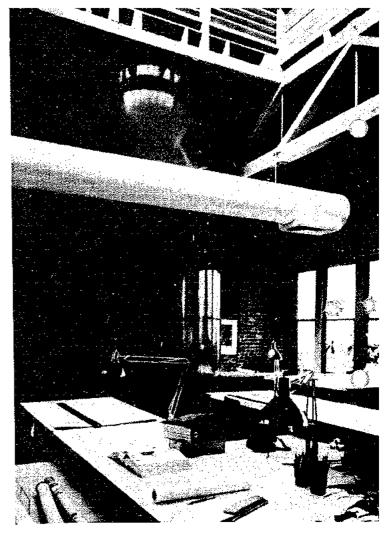
다섯개의 기존 제광창을 통해 둘 어오는 빛을 이용하기 위해 세개의 창을 폐쇄하여 자연 그대로의 일 광이 곧바로 2층 사무실과 도서실 과 북도에 비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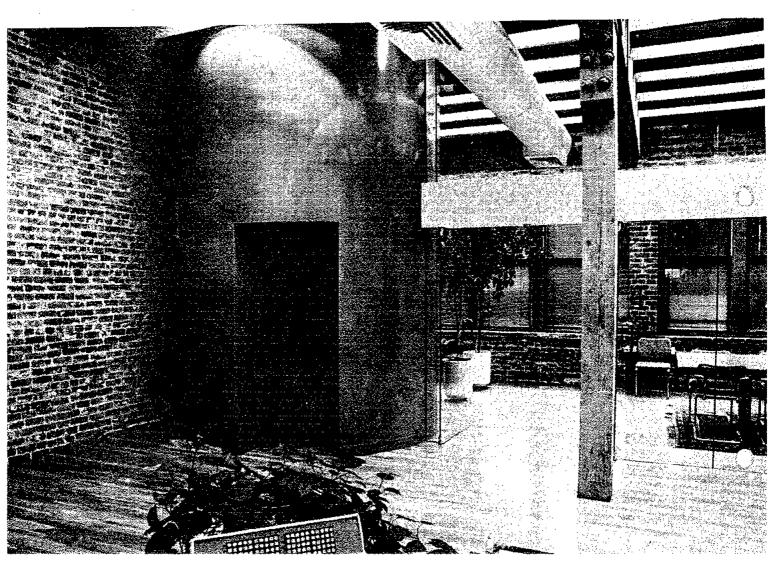
돌보 사이에서 간접조명의 역할 을 하는 형광불빛이 창으로 뚫어오 는 빛을 더욱 중대시켜 천장 높이 에 이르러서는 리드미컬한 빛을 발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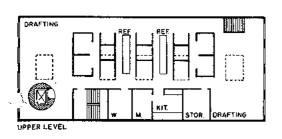
삼층에는 개인의 작업실이 큰 책 상을 경계로 하여 분리되어 있고 또한 참고도서와 3개의 자그바한 회의용 탁자들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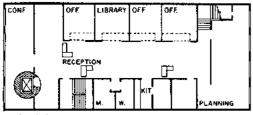
모든 제도실은 처리 저편에 있는 공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준에서는 유리로 둘러 싸인 회의실에서 공원의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벽돌로 된 벽과 육충한 동나무 돌보는 밝은색의 부엌, 휴게실의 입구와 오랜지색 원주모양의 중장기 통로와 상쇄를 이루고 있다.

Architects: Environmental Planning & Research, Inc.—Darryl T. Roberson, Charles R. Bowman, principals-in-charge; Harold Kallaway, Joseph Chance, Allison Lasley, project team. Engineers: GFDS Engineers (structural), Vann Engineering (mechanical). Lighting consultant: Glumac & Webster. Contractor: Jacks & Irvine, Inc.









LOWER LEYEL







5

Design Consortium Zuber

미네아폴리스의 상공업지역의 한 기계상점에 4명의 건축가들이 그 들의 새로운 사무실을 꾸몄는데 가 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상당한 시각제인 흥분을 불 러 일으카고 있다.

그들은 심사숙고하여 많은 식물 들과 전등은 사용하여 여러 특징을 나타내는 사무실을 이북해 냄으로 써 혁신자들의 교훈이 되고 있다.

기존의 충계, 욕실, 창문을 개축 하고 주차장에 인접한 기존 입구도 개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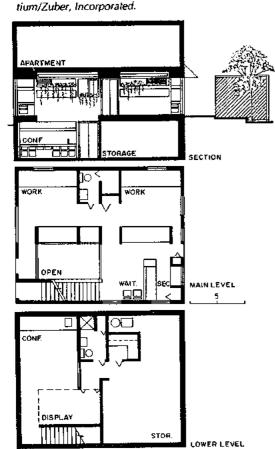
아들이 개축하지 않은채 남아 있 던 공간물도 기능적인 필요를 손상 함이 없이 원활하게 조종되었다.

중간층은 착업장과 격벽으로 둘러 싸인 용접실이 있고 이 격벽은 또한 개인작업실을 경계짓는 구실도 한다. 낮은 소핏은 또한 주요 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역들의 경계를 짓는데도 도움이 된다. 아랫층은 회의실, 전시실과 창

고로 사용된다. 수수한 자료와 알맞은 비용을 최 대한 이용하여 수선한 사무실로서

Design Consortium / Zuber는 소유 자의 직접설계와 건축을 많은 건물 이 되었다.

ARCHITECT'S OFFICES, Minneapolis, Minnesota. Architects: Design Consor-









Powell Kleinschmidt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 약 2천 평방피트의 공간에 그들의 사무살 을 만들었다.

그 건물은 북쪽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미시간 호수의 수 리한 경치뿐만 아니라 설계하는데 필요한 훌륭한 자연 그대로의 빛이 흘러 물어 온다.

공간을 설계하고 가구를 배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의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 그 자체가 지난 강철과 유리의 성질, 그리고 시카고 호수가에 높이 솟은 사무실용 건물들 속에 자리한 자신들의 사무실에 심미적인 요소를 불어 넣는 데 있다.

두번째 전제로는 사무실은 여러 종류의 설계작업을 함에 있어 자 연적이고 융통성 있는 배경의 구 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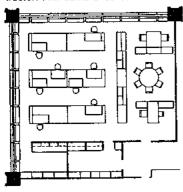
결과적으로, 건축가들은 그들 사 무실의 특징이 작업자체에서 형성 되기를 원하고 있다.

사진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설계 에 의해 이러한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카켓토는 자연 그대로의 히이드 꽃빛이고 벽과 천정은 희색을 띤 흰빛이다. 아름답고 정밀한 설계대 는 흰 플라스틱 판자로 씌워 졌고 높이는 29인치로 낮게 만들었다.

다소 평범한 조명은 부드러운 색 조를 띠며 작업장을 통과하는 순환 롱로는 자연스럽고도 안락하게 되어 있다. 유리전등은 벽판자의 대용품이 되며 아울러 사무실의 앞면을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사용하여 환영의 느낌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ARCHITECTS' OFFICE, Chicago, Illinois. Architects: *Poweli/Kleinschmidt*. Contractor: *H.B. Barnard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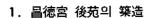






尊 德 亭

김 두 헌/문화재연구소



太宗 5년(1405년) 10월에 漢陽의 환도와 더불어 昌徳宮에 入御하여 이 듬해 봄부터 충청·강원도에서 民丁 1 천명을 소집하여 창덕궁 工役에 나 오게 하였고 4월에는 廣延樓와 解慍 亭을 짓기 시작한다.

太宗 6 년 4 월에 해온정이 완공되었다. 해온정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지금의 창경궁 藏書閣 東北축 구릉 지대로 생각된다. 이 해온정이 건립되면서 후원을 축조하게되는 동기가 마린되며 해온정은 태종 14년(1414년)에 慎獨亭으로 개명하였다.

세종까지는 후원에 신독정과 前池 가 있을 정도였으나 후일의 후원과 같이 넓은 일곽을 이룬 것은 세조 때 에 이르러서였다. 세조 5년(1459년) 9월 실록에는「후원에 御하여 좌우 로 분하여서 鑿池를 하였다. 役夫에 게 酒肉을 賜하였다… 」고 한바와 같 이 못을 판 일이 있으며 9년(1463년) 11월 「閱武亭에 御하여 포반子, 臨廠 大君 璆, 柱陽君 瑠, 翼峴君 琿, 島 山君 澍, 鈴川府完君 尹師路, 領議政 鄭昌孫…」이라는 기록에서 탈무정의 이름이 보인다. 탈무정의 위치는 지 금의 부용정 주위에 있는 四井紀碑가 있는 부근으로 생각된다. 연산군 때 는 후원에서 女姫와 더불어 遊宴하였 으며 또 禽獸를 放養하여 馳獵하는 등 狂荒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유 락을 外人이 엿보는 것을 막기 위하



• 존덕정

여 3년(1497년) 초에는 후원의 西墻을 높이 개축하고 9년(1503년)에는 東·西墻의 墻底 민가들을 철거하였고 10년에는 성균관이 후원에 접근되었다 하여 他処로 移置하였다. 11년 5월에는 경희루와 같이 후원에 新臺를 만들라는 하명이 있자「후원에 돌을 쌓고 臺를 만들고 石欄干에는 용을 조각하고 臺의 높이는 10여척으로 千人이 앉을 수 있었다」하였으며 이름을 550호로라 하였다.

궁궐지에는 珂葱臺의 위치를 緑陰 量 남축에 있다고 하였으며 緑陰臺는 영화당 동남축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 창덕궁의 모든 건물은 소실되었고 그후 20여년 간을 폐허로 있었다. 광해군 초에 후원의 造營을 명하여 「役事는 모두 先建되었다. 또한 別殿 을 数処에 만들었다. 奇花異木怪石을 도락하고 園囿花石 사이에 待待小亭 을 만들어 遊覧에 비하였다.

奇巧하고 奢侈함이 예전에는 일찌기 없었다」고 광해군 일기 2년 2월 己未條에 이야기 하고 있다. 인조 14년(1636년)에 數逝亭・雲影亭・清漪亭 등을 건립하고 후에 歎逝亭은 逍遙亭으로 雲影亭은 太極亭으로 개명하였다.

인조 18년(1640년)에 聚奎亭이 건립되고 23년(1645년)에 醉香亭을, 24년에 八角亭, 25년에 聚勝亭이 건립되었다. 후에 聚香亭은 喜雨亭으로개명하였다. 숙종 14년에 清心亭을 17년에 凌盛亭을 掀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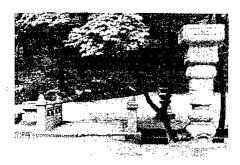
또한 大報壇을 조영하고 영조 52년 (1776년)에 규장각을 건립하였다. 후원은 왕이 생활의 여가를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고 즐기는 곳으로 궁궐의 外殿이나 內殿과는 기본 意匠이다르다고 생각된다. 이곳은 山麓이나池中 또는 백역종의 수목이 우거진자연 풍경을 쫓아 자유자재로 평면이사각에서부터 팔각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을 구비하고 屋蓋의 형태도 瓦貰・草家 등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건물의 규범이나 법식도 준수하여 미비점이 별로나타나자 않고 있다.

창덕궁 비원은 後苑(園) ·北苑(園) 禁苑으로 부르기도 한다.

北苑은 定宗実録 元年 2월 丙辰條에, 北園은 같은 달 2 丑條에, 禁苑은 英祖 52년 9월 癸己條에 각각 나타나고 있다. 비원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는 純宗実録에 처음 나오며 韓日合并 이후에 쓰인 것으로 日人들이후원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도취되어 붙인 이름으로 생각된다.

2. 尊徳亭의 位置와 建立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서 북측으로 30여미터 가면 동측으로 꺾이는 곳에 錦川橋란 石橋가 있다. 錦川橋 를 건너 仁政門과 궁궐 出口를 지나며 內醫院 앞에 이른다. 의원 담장을 따라 좌측으로 돌며 후원으로 들어()가는 秘苑門이 있다. 이 문을 지나 嘉靖堂 담장을 따라 언덕을 넘어 북



• 석물과 석교



• 석주 및 장대석

측으로 내려가면 蓮池와 宙合樓, 暎 花堂, 부용정 등의 건물이 사방에 자 리잡고 있으며 여기는 후원의 중심지 로써 아름다운 환경이 조화를 이룬 곳이기도 하다.

蓮池沿岸에는 多角形 지봉으로 된 부용정이 있으며 북측으로 40여 미터 거리에 金馬門이 있다. 문 좌측에는 石造로 不老門이 있고 여기서 40여 미터 북측에는 半島池가 길게 뻗쳐있다. 반도지 연안에 평면이 부채꼴 모양으로 된 觀纜亭이 있으며 그 맞은편 언덕에는 사각지붕의 勝在亭이 있다. 승재정 서축에는 맛배지붕의 砭 愚樹가 잔디밭 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반도지 연안에 6 각정인 尊德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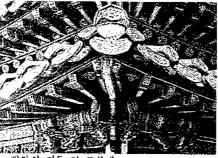
존덕정은 仁祖 22년(1644년)에 건립하고 처음에는 6 각정이라 하였으나 후에 지금의 亭名으로 개칭하였다한다. 궁궐지에는 존덕정에 관하여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 尊德亭在深秋亭西北 有池田半月 仁 祖二二年甲申建初稻六面亭後改是名橋 南置日影臺以測晷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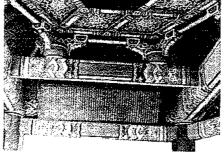
●尊徳亭 平面

존덕정은 2개의 팔가 석주를 水中에 설치하고 장대석을 각 석주 위에 1개씩 난반히 얹어 동쪽 석축 위에 걸쳐 놓았다. 존덕정은 正六角形의 평면으로 바깥 쪽에는 퇴칸을 두고있다.

퇴칸 기둥의 좌우에는 보조 기둥 율 세우고 있다. 기둥 사이에는 난



• 퇴칸의 기둥 및 포부자



• 뜬보와 접시받침

간을 설치하였다. 난간의 궁창판에는 眼象을 새기고 가늘은 童子 받침을 엄지기둥 위에 설치하여 두겁대를 받고 있다.

퇴칸의 난간은 근자 살을 짜 맞추고 그 위에 띠장을 얹고 각 엄지기 등 위에는 하엽을 설치하여 등근 두 겁대를 받게 하였다.

마루는 우물마루로 짜고 퇴칸은 장 널 마루를 깔았다.

● 尊徳亭 架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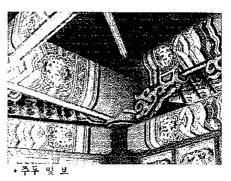
존덕정의 기둥 상부에는 昌枋을 얹고 창방 아래에는 빗살문과 꽃무늬의 交窓율 설치하였다.

빗살무늬 아래는 門棺柱와 인방이 짜여지고 꽃무늬 아래는 낙양을 달았 다.

柱上에는 원형 평굴으로 된 柱頭가 놓이고 柱間에는 花盤을 놓아 柱心道里와 장여를 받게 하였다. 大樑은 평행으로 2개를 설치하고 그와 직교하는 뜬보를 걸어 正六角形으로걸리는 中道里을 동자주가 받게 하고있다.

나머지 좌우의 두 기둥 위에는 衝 樑을 걸어 大樑에 맞추었다. 대량과 뜬보에 놓은 평면의 접시받침이 놓이 고 장여와 중도리를 받고 있는 특이 한 구성이다.

장여 위에는 우물천정으로 꾸미고 가운데 正六角形의 澡井에는 청룡과 백호가 서로 여의주를 물려는 형상을 하고 있다. 연목은 모두 長椽을 사 용하고 각 추녀에서 짜여진 扁子椽은



• 창방과 하부꽃창

부채살 모양으로 폐지고 각 주칸의 도리 위에는 3개의 서까래를 써서 공간을 처리하였다.

4. 尊徳亭 주위의 空門

「學子」하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겠지만 후원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정자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할 수 있으며 후원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산책을 하다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 며 거실을 옥외로 옮겨 놓은 듯한 아 늑한 정경의 촛점이 되기도 한다.

존덕정에서 보이는 주위 공간은 못, 정자, 다리, 언덕, 잔디, 괴석 등이 앞과 뒤로 분산되어 있으나 하나로 용화된 감이 있다. 반도지와 扁子 모 양의 정자, 그리고 뒷편의 결과 숲은 그들의 배경으로서 더할나위 없는 아 름다움을 자아내며 반도지 아래에 있 는 石橋는 다리로 보이기 보다는 편 평한 돌길로 착각할 정도이다.

돌다리, 아아취, 정자와 고불고불한 길은 자연에 녹아든 風情을 이루고 있다. 다리 남측의 높은 석물은 남쪽 언덕과 정자(勝在亭)의 공간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존덕정 뒷편의 못과 계곡, 숲 그리고 숲 사이의 오솔길은 모두가 자연의 운치를 이루어 忽然自我를 잊고 恍惚境에 잦아든다.

《자료》

- 공사감리시행세부지침
-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개정령

공사감리시행세부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건설공사 시공감리규정(1984. 2.29 대통 령령제11374호)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 해와 실무업무의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임.

- 2. 갑리대상 공사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 (1) 충공사비 30억 이상의 복합공종의 대형공사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규정)
 - (2) 대안입찰공사 및 설계 시공일괄 입찰공사
 - (3)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십의대상공사(10억원 이상 시설공사) 중 중앙설계심사위원장이 감리의 필요 성을 인정한 공사
 - (4) 기타 소규모 공사일지라도 감독요원의 기술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관서의 장이 인정한 공사
 - 나. 본감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공사
 - (1) 공공차관사업에 의한 공사로서 차관선과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감리를 받는 공사
 - (2) 관개·배수 및 농지조성분야의 공사중 농업진홍공 사가 갑리하는 공사
 -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공사
 - 다. 감리를 받아야 할 공사의 전문분야
 - (1) 토질 및 기초분야
 - (2) 토목구조물분야
 - (3) 항만 및 해안분야
 - (4) 도로 및 공항분야
 - (5) 철도분야
 - (6) 수자원분야
 - (7) 에너지 토목분야
 - (8) 상・하수도분야
 - (9) 관개・배수 및 농지조성분야
 - (10) 건축분야
 - (11)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분야
 - (12) 조경분야
- 3. 감리자의 선정 및 감리시행방법
 - 가. 감리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발주자가 선정하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설계사무소의 등

록을 한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 나. 감리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 · 기술 경험과 경영실태 등을 분석, 판단하여 해당분야에 충분한 감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인정되는 용역회사를 선정하도록 하되 공사를 도급받은 회 사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판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는 당 해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음.
- 다. 국내 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어 기술용역 육성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용역 업자를 감리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용역업자와 함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라.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전문분야와 발주자 자체의 기술능력을 판단하여 공사충 일부에 대하 여 감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감리도 받을 수 있음.
- 4. 책임기술자의 자격ㆍ배치 및 근무지침 등
 - 가. 책임기술자의 자격
 - (1) 당해 전문분야(규정 제 3 조제 2 항 참조)의 기술 사 또는 건축사
 - (2) 발주자가 인정하는 고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나 이공계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4년제 이공계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로서 당해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나, 책임기술자의 배치
 - (1) 책임기술자는 발주자의 사전송인을 얻어 임명하며 교체할 경우도 같음.
 - (2) 책임기술자는 공사시공현장이나 발주자가 지시하 는 곳에서 상주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
 - (3) 책임기술자 밑에 필요한 수의 기술자를 두어 공 사일정, 능력, 임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배치함.
 -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 다. 책임기술자의 근무지침
 - (1) 책임기술자는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대로 시공이 되는가를 철저히 확인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함.

- (2) 책임기술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표, 발주자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를 숙지하고 공사내용을 정확하 게 파악해야 함.
- (3) 책임기술자는 감리업무개시와 동시에 감리인원의 배치계확표, 근무일정 계확표를 작성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함.
- (4) 책임기술자는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시공현장에서 발주자 또는 시공자와 혐의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함.

5. 감리계약의 내용

- 가. 갑리계약에 의해 감리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할 업 무내용
 - (1) 시공계획의 검토
 - (2) 공정표의 검토
 -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확인
 -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 (7)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 (8) 안전관리의 지도
 - (9)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10) 공정 및 기성고의 사정
 -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3) 기 타
- 나. 계약서의 부속서류
 - (1) 과업지시서
 - (2) 감리실시계회
 - (3) 감리비 내역 및 지급계획
 - (4) 갑리요원 복무지침
 - (5)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비, 시설, 재료 등 내역
- 다. 감리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 (1) 수시보고서
 - 1) 발주자로부터 별도보고의 지사가 있는 경우
 - 2)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 3) 공사가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 정된 경우
 - 5) 실시공정이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되고 있는 경우
 - 6) 시공자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불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주거나 재위 임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7) 장비 또는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공급되지 않아 공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8)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정기보고서에 포함한 사항
 - 1) 개별작업의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결과
- 3)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 4) 설계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사항
- 5)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
- 6) 잔여공사전망 및 감리계획
- 7) 발주자지시 이행현황
- 8) 부당시공적발 및 시정사항
- 9) 당해 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 10) 발주자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
- 11)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최종감리보고서
- 라. 감리자가 유지하여야 할 기록
- (1) 공사감리일지
- (2) 공정표
- (3) 시공명령부
- (4) 발주자 지시사항
- (5)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 (6)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내용
- (7) 시공계획의 검토 내용
- (8) 공법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 (9) 발주자, 시공자 및 관계관 회의록
- (10)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 및 기록
- 마. 시공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시공중치 명령
- (1) 감리자는 강리를 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에게 시 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공중지 명 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2) 시공자가 갑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 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시공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병시한
- (3) 발주자는 감리자의 시정요구 및 시공중지 명령에 관한사항을시공자와의공사계약서등에명시토록 함.
- 바. 발주자의 자문 요구
 - (1)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결정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 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2) 발주자는 감리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또는 시정하도록 지사할 수 있음.
- 사, 감리요원의 윤리 및 품위유지
 - (1) 감리요원은 법률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 근무에임함.
 - (2) 감리요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상의 상거래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지 못함.
 - (3) 감리요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법 상의 성실의 외부, 친절, 공정의 외부, 기밀엄수 의 의무, 청렴결백의 외무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에 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아, 감리요원의 교체 요구
 - (1) 발주자는 감리요원 자질이 부족하거나 과실을 범한 경우 또는 감리요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교체요구할 수 있음.

- (2) 발주자는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감리 요원이 윤리 및 품위유지를 준수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 의를 야기한 경우 한국기술용역협회에 정계를 요 구할 수 있음.
- 6. 불성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발주관서의 장은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기술용역육성법, 국가기술자격법 및 예 산회계법에 의한 세재를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발주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건 설부장관에게도 보고함.
 - 나. 태만 또는 부적정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발주관서의 장은 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하거나 부적정하게 수행하는 등 불성 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 에게 통보함.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 인하고 그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 당해기관에 의한 감리자 선정에 참고토목함.
- 7. 잡리비의 산정기준

감리비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 3에 의하여 공고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준하여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하되, 건축공사의 경우는 건축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보수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 8. 감리자에 대한 발주자의 지휘·감독
 - 가. 발주자는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 자를 통하여 하도록 함.
 - 나, 발주자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의 명령을 확인 · 번복 · 변경 · 조정할 수 있음,
 - 다. 발주자는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기록 대장 등을 정기적(1주 1회이상)으로 검토하고 부적정히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감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함.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84.3.17)

건설부령제366호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4년 3월17일 건설부장관 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거실의 병·반사·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제료와 시공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만,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과 공동주택의 축벽은 열관류율의 값이 별표 4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 부위별열관류율 이하의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건축물의 해당부위별 단열재의 기준두께 이상의 단열재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m'h°C)로 나타낸다.
-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온 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최하층 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제외

한다)은 열관류율의 값이 1.0 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 에 정하는 단열재를 20밀리미터 이상의 두께 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m'h°C)로 나타낸 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열관류율의 값이 3.0 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 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글 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 곱미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mth°C)로 나타낸다.

[별표 4] 및 [별표 5]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행한다.
- ② (이미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지역에 따른 건축물부위별 열관류율표(제19조제 1호관련)

(단위: 킬로칼로리/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

부 위 별 지 역 별	제주도 이외의 전지역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다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 야하	1.0 이하
공동주택의 축벽	0.4 이하	0.8 পাই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19조제 1 호관련)

	단열재의] 종류별	암면(광석면) · 유리면 · 난연성	기타 재료: 열전도 저항이 다
	_		발포폴리스틸텐폼ㆍ요소발포보	음의 값에 적응하는 재질의 두
지			온재・포리우레탄폼	께일 것
, eq				(단위:제곱미터 시간
부 위 별	별		(단위: 밀리미터)	섬씨 도/킬로칸로리)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제주도 외의	전지역	50 이상	1.6 이상
또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제 주	도	30 이상	1.0 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제주도 외의	전지역	70 이상	2.2 이상
00179 47	제 주	도	40 이상	1.2 이상

- 비고: 1. 윗표외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 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 한 형식숭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 2.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의 경우에는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충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제 1 면)

		건물리 글 시작 내	p) -1-1-1				처리기간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석				잍
건 축 주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② 번 호			
	③ 주 소			. (전	화)		
설	④ 성 명			⑥ 면허번호	제		Š
계	⑤ 사무소명			⑦ 등록번호	제		<u>o</u>
자	⑧ 주 소			. (전	화)		
대	⑨ 위 치						
지	① 지 역			① 지 구			
조	① 지 목			③ 전면도로 폭 (m)			
건	① 면적(m′)			(j) 조경면적 (m')			
용 도	(1) 주용도			① 부속용도		<u> </u>	
7	구분 면적(m³)	신청부분	신청이외 부 분	20) 합 계	② 공사종별		
ŀ	18) 건축면적				② 건페율(%)		
모	(19) 연면적				② 용적율(%)		
249 ₹	조	· -		② 孝 수	지 하 지 상	{	수 승
26 지	하총면적 (m [*])	·	·	② 주차면적 (m')		·	
28) 착	공 예 정 일	*		② 준 공 예정인		r	•
30 H	준설게도서번 호	제	호	③ 토지형질변 경면적(m ^r)			-
③ 가	선 건 축 물	면적		㎡, 구조			
③3 도	로 점 용	면적	111	㎡, 점용기간			
③ 明		배수량		구조			
③6 분	수정화시설 및 뇨 정 화 조	처리대상인원		명, 구조			
③6 구	내통신선로설비			③ 기 타			

 $2806 - 33(2 - 1) \odot (1)$ 84. 3, 6 숭인

 $190\,\mathrm{mm}\! imes\!268\,\mathrm{mm}$

(신문용지 54g / ㎡)

(제 2 면) 건축법 제 5 조(및 도시계획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0] (시장・군수) 귀하

침부서류 1. 신청건축물의 동변개요 2. 대지의 범위를 중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는 9란에 정하는 해당도서 각 1부에		치도 1부 및 건축		수 료 구최 제 3 조에 의함. 표 1 의 4 란, 5 란 또				
신 청 인	처 리 기 시 구	관 군	협 의	기 관				
신청서작성 하가서교부	점 수 점 도 김 도 결 제		<u>*</u> [월	의				
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 5 조(및 도시계획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 5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 건축법 제 47조제 2 항에 의한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도로법 제 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하수도법 제 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 오물청소법 제 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 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제 3 면)

				신청건축	물 동	별개요								대 () 매중
(38)	주용도				•	39 ₹	사종별	•						• • • • •
(1)	부속용도				·	41) 🕏	÷ ÷		지 하 지 상	(,) 충) 충		
ні	충별 구분	ð	苓	ਣੈ	春	- 2 0	ঽ	상	**	충	충	충	충	계
4	④ 신청부분													
바 닥 면 적 (m ['])	③ 신청이외 부 분													
(m ,	/ 4 합 계									<u> </u>				
(5)	기둥치수또는내 력벽의두께(m)												:	
46	횡가재지점간의 거 리 (m)													
(7)	충 높 이(m)													
(8)	거실의반자높이 (m)													
7	④ 주요구조부					(50) Z		붕						
조	⑤ 기 초					<u>5</u> 2) 7		마	<u></u>					
1 1	<u>③</u> 벽 체						크리트설						(kg / π	<u>()</u>
단 열 재	⑤ 외 벽					(56) ⊭	<u>'</u>	<u></u> 닥	ļ					
재	⑤ 반 자			•		SB 2	}	<u>ই</u>						<u>.</u>
69	최고높이(m)					60 >	마 높	이 (m)						

61	채광 면적 비율 (%)	⑥ 직통계단의 수
63	숭용승강기대수	🕪 비상용승강기대수
65	냉 · 난방방식	60 변 소 형 식
(7)	전기 설비 용량	◎ 구대통신선로설비
69	기 타	

2806-33(2-2)민 (1) 84. 3. 6승인

*작성요령

-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합니다.
-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 분하여 기입합니다.
- 3. 토지외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자연 복지·생산복지지역 및 풍치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안을 =로 삭제 표시합니다.
- 4.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여 첨 부합니다.
- 5. ⑭란은 그 층에 있는 기둥 또는 내벽력의 치수중 최 소의 것을 기입합니다.
- 6. ⑩란은 그 층에 있는 횡가재 지점간의 거리중 최대 외 것을 기입합니다.
- 7. 40란은 그 총의 총 높이중 최대의 것을 기입합니다.
- 8. ⑱란은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높이 중 최소의 것

을 기입합니다.

- 9. ⑩ 란은 목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으로 기입합니다.
- 10. 10. ⑩ 반은 자봉구조방식 및 재료 등을 기입합니다(예: 철골트러스위스레이트)
- 11. ⑤ 란은 기초형식을 기입합니다(예: 콘크리트 발뚝위 독립기초)
- 12. 52 란은 처마의 외장재료를 기입합니다.
- 13. 🚳 란은 주재료를 기입합니다.
- 14. 🚱 란은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를 기입합니다.
- 15. ⑤ ~ ⑥ 란은 단열재료 및 두께 또는 열관류율을 기 입합니다.
- 16. ⑤ 란은 연탄아궁이식 온듈, 온수난방, 증기난방 등으로 기입합니다.
- 17. 69 란은 수세식 · 제거식으로 기입합니다.
- 18. 🕅 란은 전기설비 총용량을 기입합니다.
- 19. 🔞 란은 회신 및 보안가기 등의 장치를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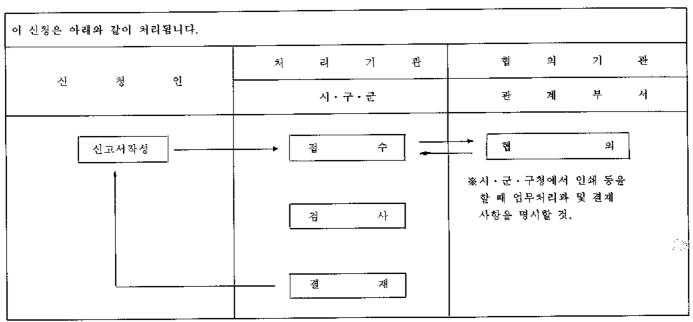
[별지 제11호셔식]

(체 1 면)

		준공신고서 및	및 준공검사필증		처리기건 일
건축주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77.47.11	③ 주 소		(전화)		
	④ 성 명		⑥ 면 허 번 호	계	立
설계자	⑤ 사 무 소 명		⑦ 등 록 번 호	제	<u>ō</u> ,
	⑧ 주 소		(전화)		
광 사	⑨ 성 명		10 면 허 번 호	제	<u>ই</u>
감리자	① 사무소명		① 등 록 번 호	계	<u>\$</u>
	① 주 소		(전화)		<u>, ,</u>
공 사	③ 성명또는상호		(⑤ 건설업면허번호	제	<u> </u>
<u> </u>			(전화)		
<u>ि प</u>	지 위 치				
8) 허	가 번호	체 호	① 혀 가 일 자 .		
10) 착	공일자	· · · ·	② 준 공 일 자 .	•	
※ 검	사 일 자		※ 검 사 자		<u> </u>
건축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	성에 의하여 위와 갈이([] 준	공, □ 동별준공)을 신고합니다.		
				<u> </u>	
		신 고 인		6	D
(시경 -	상·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시					수수료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건축	한 경우에는 신고증사본)		<u> </u>
2. 신청	성건축물 동별개요(동별	멸 준공에 한함)			없 음
2006	-91(2-1) 및 (1)				100

2806 - 91 (2 - 1) 덴 (1) 84. 3. 6 숭인

190mm×268 mm (신문용지 54g / m)



저	<u> </u>						,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화시설 또는	분뇨정호	ት조의 준공검사		제 7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시장	・군수・구を	}장)		ર્		

(제 3 면)

	<u> </u>		신청건	축물	동별개	ይ						매	()	매중
22	주 용 도			23)	공	사		종	별					
20	부 속 용 도		·	2 5)	ਨੈਂ				수	지호 지정	} (} (}	충 충	
바	흥별 구분	충	<u> </u>		考		충		훙	충		충		충
닥	26 신 청 부 분									 				
면	② 신청이외 부분													
잗	. 23) 합 계					<u> </u>								
29	기둥차수 또는 내 릭 벽의 두꼐(cm)													
39	횡가재지점간의(m) 거 리													
(31)	충 높 이 (m)													
(32)	기실의반자높이(m)					<u> </u>								
구	③3) 주요구조부					339	자		븅					
{	34) 기 초					37)	처		마				4	
조	③5) 벽 체					(38)		트설계경					(kg / c	:m')
닯	③ 의 벽					40	바		닥	 				
단 열 재	④ 반 자					(2)	창		ই					

④ 최고 높이(m)	♠ 처 마 높 이(m)	
④ 채광 면적 비율(%)	⑥ 직통계단의수	
① 승용승강기대수	🔞 비상용숭강기대수	
④9 냉·난 방 방 식	⑨ 변 소 형 식	
(51) 전 기 설 비 용 량	 ⑤2 구내통신선로설비	
⑤ 기 타		

2806-91(2-2) 민 (2) 84. 3. 6 중인

◇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건축물의 단열시공기준을 강화하고, 일부서식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단열시공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비교적 남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열 손실방지조치를 완화하는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던것을 앞 으로는 제주도지역에서 건축하는 일정규모(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외에는 건축물의 부위에 따라 예외 없야 열손실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영 세19조 및 별표 4 · 별표 5).

나. 서식중 건축허가신청서 및 동 허가서의 각 사항별 해당란 당란과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의 각 사항별 해당란 에 구내통선선로설비에 관한 난을 각각 삽입함(별지 제 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건설부 제공〉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3.31일

대통령령제11.397호

특정전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2조제 1 항중 "법 제 3 조"를 "법 제 3 조제 1 항단서"로,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 2 조 의 2 중 "법 제 3 조 단서"를 "법 제 3 조 제 1 항 단 서"로 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2 조의 3 (재개발사업 등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등) ① 법 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서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후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법 제 3 조 2 항제 2 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토지구확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동법 제31조·동법 제34조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환지 예정지의 지정후 건축된 건축물로서 등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③ 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 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 1. 도로 · 철도 · 궤도 · 삭도 · 고속철도
 - 2. 공원·유원지·운동장·광장·공공공지·관망탑
 - 3. 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자동차검사시설

- 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연구시설·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시장·도살장
- 5. 수도·하수도·공동구·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 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통신시 설
- 6. 공동묘지·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제 2 조 의 4 (도시계획 시설공사 착공계획서의 작성등)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984년 9월 30일까지 제2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할 도시계획 시설공사에 관한 착공계획을 수립하되, 그 착공계획서에는 당해 시설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종류·명칭·위치(축착 1천 200분의 1이상의 현황도를 첨부한다)·면적·규모·시행기간·사업비(산출근거 및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한다) 및 사업시행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공사 착공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공사착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당해시설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및 명 청
- 2. 사업시행의 위치
- 3. 사업사행의 면적 및 규모
- 4, 사업시행의 기간
- 5. 사업의 시행자

제 4 조중 "1984년 3 월31일"을 "198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5조 (신고등) ①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 상건축물을 신고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특 정건축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자의 소유권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2. 설계도서
 - 3. 현장조사서(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나)
 - ②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위법시공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당 시의 설계도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무 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별표 2 의 설계도서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③ 시장·군수는 법 제 4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무허가 건축물 및 국가시책 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서 률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하여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현장조사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7조 본문을 동조 제 1 항으로 하되, 동항중"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 7 조제 2 호 단서에서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소방차의 출입이 가능한 폭 3 미터 이상의 도로로부터 60미터이내의 보행거리에 있 고, 소방대원의 출입이 용이한 폭 2 미터이상의 도로 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을 말한다.
- 제 9조제 2 항중 " 9 인이상 12인이하"를 " 7 인이상 10 인이하"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부시장·부군수가 있는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로 하며, 동조 제 4 항중 " 4 인이상"을 " 2 인이상"으로 하고, 제 5 항중 "시장·군수가"를 "위원장이"로 한다.
- 제10조세 1 항제 1 호증 "그 위반부분 면적의 메제곱미터 당 30만원에 별표의 당해 건축물의"를 "법 제 9 조제 2 항제 1 호 본문 및 단서의 각 해당 금액에 별표 1 에서 정한 해당 건축물의"로 하고, 동항 제 2 호증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별표의 당해 건축물의"를 "법 제 9 조제 2 항제 2 호 본문 및 단서의 각 해당 금액에 별표 1 에서 정한 해당 건축물의"로하며, 동조 제 2 항 및 제 3 항중 "별표"를 각각 "별표1"로 하고, 동조에 제 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법 제 9 조제 2 항제 1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 소규모생산공장, 주택, 소규모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마을공동구판장·공공도서판·유치원·새마을유아 원·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심신장애

자복지사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생산공장
- 3.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4. 양수장・정수장・공중면소

[별 표]를 [별표 1]로 하고, 동표중 1 용도별가중치를 -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가중치

1.	용도별가 <i>중</i> 치	
번호	용 도 별	가중치
1	O호 텔	1.0
	O 백화점	
2	○유홍음식점·전문음식점	0.9
	O무도장·특수목욕장	
	O시장·아케이트·수퍼마켓	
3	O사무소·금융업소	0.8
	○예식장·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	
	장·	
	○종합병원·병원·의원·시술소·한의원	
	○여 관	
4	O쿠유소·가스충전소·위험물저장 시설	0.7
	○세차장·폐차장·자동차검사장·자동차매	
	매장·자동차부속상	
5	○음악당·연예장·전시장·촬영소	0.6
	O하역장·터미날·정류장·선착장	
	○경매장·공판장	
	○공장·영업용창고·차고	
6	○단일점포(일용품판매소·약국·사진	0.5
	관·표구점·목공소에 한한다)	
	○대중음식점・다방・과자점・간이주점	
	○일반목욕장·이용소·미용소·세탁소	
	소개업소・조산원	
	○방아간·재조장·수리점	
	O 각종유기장・사격장・기원・당구장・	보
	링장	
	○실내도장·실내스케이트장·실내수영	į
	장ㆍ헬스클럽ㆍ경마장	
	○여인숙·하숙·기숙사	
İ	○교회・사찰・불당・기도원・수도원	1
7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0.4
	○사설강습소・교습장・독서실	
	○연구소・직업훈련소・교육원	
<u></u>	○도서관・방송국・박물관・미술관	
8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	0.3
	동구판장	
	○안내소・휴게소・대피소・공중년소・	
	사당・창고	
	○동물원・식물원・수족관・양어장	
	○장의사·납골당·화장장	
9	○학교·새마을유아원·유치원	0.05
	O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경로당	.
	심신장애자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	
	설	1

○양수장・정수장	
○축사・가금사・재배사・농막・잠실・	
싸이로・건조장・퇴비장	!

비고

이 표에서 열거된 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이와 유사한 용 도의 건축물로 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부 최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납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납부한 과태료의 금액이 제 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과태료의 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으로 다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설계 도 서 작성 기 준

건축물의 구분	도 서 의 종 류	축 적	표시하여야 할 사항
연면적 200제곱미터		임 의	1.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물건
미만이고 2층 이하			2. 인접도로가 폭 3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폭 3 미터이상인 도로로 부터의
			보행거리
인 건축물	배치도	1/100	1: 축척 및 방위
		1/300	2. 대지면적,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
			3.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담·응벽·정화조·배수시설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의 위치
	1		5. 신고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분
			6.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부분
	각 층	1/100—	1. 축 처
	평면도	1/300	2. 각실의 용도 및 면적
			3. 벽의 재료 및 두께
			4. 개구부의 위치 및 치수
			5. 계단 및 복도의 폭
			6.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부분의 면적
연면적 200제곱미터	위치도	임 의	1.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물건
이상이거나 3층이상	İ		2. 인접도로가 폭 3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폭 3미터이상인 도로로 부터의
인 건축물			보행거리
	배 치 도		1. 축척 및 방위
		1/300	2. 대지면적,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
			3.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담·옹벽·정화조·배수시설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의 위치
			5. 신고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분
			6.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부분
	각 충	1/100-	1. 축 척
	평면도	1/300	2, 각시설의 용도 및 면적
			3. 벽・기둥・개구부의 위치 및 치수
			4,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İ	5.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톡별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6. 비상용 숭강기 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7.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부분의 면적
,	입면도	1/100—	1. 축 최
	4 5 4	1/300	1. ㅋ ㅋ ㅋ 2. 외벽의 마감재료
		1,000	3.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	, , , , , <u>q </u>

	주단면도	1/100-	1. 축 척	
		1/300	2. 건축물의 높이ㆍ각층의 높이 및 반자의 높이	
			3.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자붕ㆍ처마 및 반자의 구조	
			4. 계단 및 경사로의 구조	:

[별지 제 1 호서식]

⟨제 1 면⟩

					<u></u>	정	전	축	물	신	고	서			H리기간 60일
건축주	①\d			명					②주	딘 .	둥 록	번 호			
(소유자)	<u>③</u> 주			소								(전화)			
형	④ 성			병					⑦면				제		ই
현장조사 자	⑤사	무	소	명					⑧동	. 5	<u> </u>		제		2
	⑥주			仚								(전화)			
-g-	9주	કુ	<u> </u>	玉					①작	-			<u>.</u>		
도	①(1))부	<u>4</u>	용	55					①완	-5	7				-
	(3)위			치					① 지			목	<u> </u>		
대	①면		. <u> </u>	적				m²	[8지			역	<u> </u>		
지	① 전 5			폭				m	(9지			구			
현 황	16 ^{도로} 이	게 접히	누는 대	지의 이				m	207			역			
-36	② 소	Ĥ.	구	분	□ 자	가소유				사용성	농낙			국・공유지	
건추물현황	구분			면적	20 7	실축면적 (m²)	터	② ලේ (n	면 적 n²)		24)	용 적 원 (%)	<u>}</u>	②5 건 페 (%)	윧
	허	가	당	시				-							
면 황	완	- 		후		_				!					
국가시 사	채 26 ^사 업 26(허	가	업 번	명 호)) (⑦ 이 일	<i>7</i> }	(지	시) 자			
특정건	축물정리여		· 특별	조치법	제 4 조	의 규정	કુબી ૭	하여 위의	<u></u> 사 같이	신고	.하니 +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여 주	<u>-</u>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 7	형 자						<u>্</u>	ļ
						현	. 장 ፭	집사 자						<u>ચ</u>	
(시장・	군수・구의	청장)				귀 하									
*표한 년	난은 민원 약	인이 <i>7</i>	기재 하기	지 아니	 합니다.										

2806-78(2-1) 덴(1) 84. 3. 6 중인 190 mm×268mm (인쇄용지(2급)70g/m²)

〈제 2 면〉

구비서류

1. 대지의 소유권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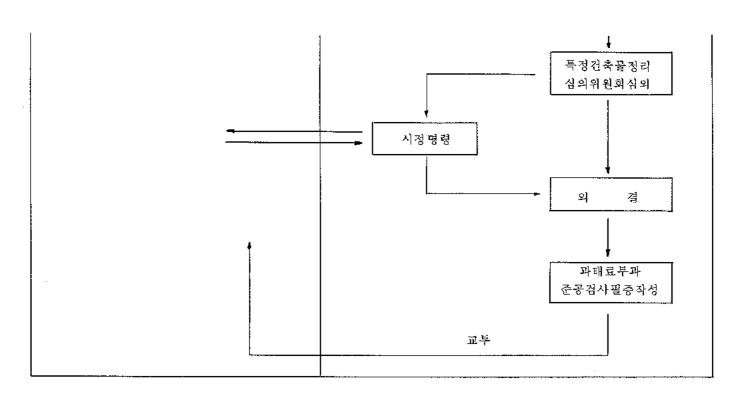
수 수 료 없 음

2. 설계도서 10부

3. 현장조사서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7	관	
신	<u>7</u>	인		시	· 교	・ テ	
					,		
	신고서작성				-	접 수	



〈제 3 면〉

		···········			툭	정	건	축	물	동 북	별	7)	1							*	
구	분		***************************************	충	별	계()층		ক্ট			훙				*		충			<u></u>
	무 허	가	②8적 법 건	축 물	면적				·								•				
바			②9무 허기	부분	· 면 적																
낙	건 축	물	30합		계																_
면 . 적	위	법	허가부분	③면 반고	적 위 부분																
$\widehat{\mathfrak{m}^2}$	시	공	면 적	ア ③ ・ ③	타 분			!													
	건 축	물	③3허 가 외	부분	석 면																
			③ 합		계																
용도 및 별면적	및 용도		<u>∰</u>		도												Ę.	}		계	_
	(m²)		③6면 		적			<u> </u>		T = "-"		<u>.</u>			····						ᆜ
·충		수	<u>ঞ্জি</u> শ		상				<u>총</u>	(38기						하					충
구	③9지	붕								€ 23		고		풒		이				1	n
	4 0 ₩	체								④3처		바		높		이				1	m
조	④ D申}	닥	L							₫ ₫₽		자		포		<u> </u>					n
건축선			지 경계선의	2로부	켜 띄어	야 할	거리위	반 및	위반된	(5)건			축			선		m			m²
부분의					_					⊕ €	접	대	지	경	계	선		m		1	m²
위	1		의 면석에 된 o	관계되	는																
	반 ⑩기타 위반내용 사 (기호 Bol - 7 - 0 - 1)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dashv						
사																					
항	l	국물 생동)	'러· T오ઇ(7 . 2.	딱'																
L	L. #1^	ँ ठा																			

2806 - 78 (2 - 2) 빈(1) 84. 3.6층인

· (작성요령)

〈제 4 면〉

-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합니다.
-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3. 신청건물의 동벌개요는 동 마다 따로 작성합니다.
- 4. ② 란은 무허가 건축물(적법건축물에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포함)에서 기준공된 적법부분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 5. ② 란은 전체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는 그 전체면적을, 무허가로 일부 증축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 6. ④ 란은 건축허가 받은 면적중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등으로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등의 규정에 위반된 부분의 면적을 기입하고, ③2란은 그 나머지 면적을 기입합니다.
- 7. ③라은 건축허가받은 면적이외에 위법증축된 부분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 2 호서식]

<u>,,</u>				- 정 7	선 축	물 현 7	항 조 시	<u> </u>				
건 축 주	주(소 유	자)				구	빈 등	록 번	호			
건 축	물 위	처										
8		도				구			조			<u> </u>
특 정 건	축물구	분	□ 무허가				위법시공_] 국가시책/	사 <u>업</u>	
			3	_	사	人	ŀ	ह्ये				
	구		분					조	사	내	용	
	대지의 역	<u></u> 안전					<u>.</u>					
대	도로와의	관계										
대 지 현 황	3미터이	상 도	로로부터의 거	리								
언 황	상수도시	설현학	함		_							
,	하수도시	설현학	il-			<u> </u>			<u>-</u>			
_	구조안전	<u> </u>								<u> </u>		
건 추	방화상 7											
건축물전황	위생상 7	•								<u> </u>		
(연) 황	피난상 7									·		
	도시계획	:					<u> </u>	<u></u>				
	면적 및		식반 									
위 법 사 항	건축선											
사			터 띄어야 할 ***			3 (A) m)	 					
8 ₁			선으로부터 띄	이야 말	<u> 거리의</u>	4 위만 	 					
-1 11-1	기타 위					<u> </u>					·	
	종합의견		틀림없이 조	 리글 여크	റിവി	청자고사사	로 계속하	hilth				
장기 조직 	r 사왕에 ·	반아띡	宣旨없이 소	ኅጥአረ	ાળા	고영 œ시시	1일 세필립					
							년	월	일			
						조사자: 경	<u>1</u> 축사		<u>ણ</u>			
(시장・균	근수・구청	장)	귀하									
2806-97	일									(.) .2.6	190mm×	

84. 2. 6 승인

(연쇄용지(2급)70g/m'

[별지 제3호서식]

				•	특 정	- 건 ·	축 물	현 ?	장 조 🌶	사 서										
	~ 거 추	주	성			병			주민등록번호											
	건 축 (소유자	-) '	추		•	소							(전화))						
특	정	건	축	물	위	ネ														
톡	정	건	舎	물	구	분	□ 뿌	허가			위법시공	<u> </u>	국	가시책	사업					
		·				조		. }	사		ક ો									
-	2			분	조	사	내	-8	구			분	조	사	내	8				
	क्ष			도					[ג	역	· 지	구								

_a		-J					43.					_a		ات	-1 / - 5	a	== 1 .	~ 1	_1						
송	- ⊢	지					상					충		허	가 (초		공) (길	자		•		_ •		
ŕ	-	<u>지</u>					하					충		완	공		일		자	<u>.</u>					
75	1	건	축		면		적					m²		건		폐			율		_				%
조	1	연		ī	면		적		_			m²		용		적			율						%
Ī	L	벼	•				쳬							방	화 상	지	장	여	부			•			
3	<u> </u>	지					붕							위	생 상	지	장	여	는 는						
대			지		면		적					m²		상	수	至	7	널	치	1					
전		면		도	5	<u>.</u>	弄					m		하	수	5	i	설	치	"-					
3 17	타	이상	도로	로부	터의	거리	리																		m
위	반		면적이	세 놴	계되	는	위반																	•	
사	항		기	타	Ş	취	반										-								
첨부	서	류 :	1. ទ	위치.	E :	2. 1	배치도	3.	평면	도															
75	} z}	조시	· 사하항	예	란하ㅇ	부 등	·림없이	조사	·하였:	기에 (이에 학	 친장조	조사사	를	제출	 합니	다.								
															1		01			۸۱					
														ŀ	!		월			일					
											조시	·자:	직급												
													성명						ſ	<u> </u>					
(>	기장	· 군	수・ 音	구청:	장)	=	귀하						- •							_					
L.			-		· /																				

2806 - 98일 84. 3. 6 중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70g/m²)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이유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983. 12. 31법 물 제3,719호)되어 양성화대상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양성화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과태료가인하되었음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 총전에는 재개발구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도시계 획시설안에 있는 대상건·물에 대하여는 양성화혜택을 투여 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의 개정으로 동 구역·지구 또는 시 설안에 있는 건축물중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 건하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 ① 재개발구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이나 계획상 존치되는 건 축물이나 동 사업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건축물 등으로 하고,
 - ② 도시계획시설안의 건축물로서 그안에 있는 대상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정함 (영 제2 조의 3).
- (2) 대상건축물 신고기한을 1984년 3월 31일까지에서 1984년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영 제 4 조).

- (3) 종전에는 대상건축물을 신고하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판계없이 그 신고서에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일률적으로 모두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제곱 미터 미만이고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중입면도·주단면도는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 5 조 및 별표2).
- (4) 대상건축물로서 건축법상 그 대지등이 도로와 일정거라이 상 접하여야 하는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양성화대상이 되나, 또한 그 밖에도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양성화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방차의 출입이 가능한 폭 3 미터이상의 도로로 부터 60미터 이내의 보행거리에 있고, 소방대원의 출입이 용이한 폭 2 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로 규정함(영 제 7 조제 2 항).
- (5) 대상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하여 당해 건축물을 신고한 자가 부담하는 과태료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용도별가중치중일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중치를 대폭 인하 조정하고, 아울러 법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액이 종전 금액의 3분의 1 이하로 인하 조정되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영 제10조제 7항 및 별표 1).

슬그머니 버린휴지 슬그머니 버린양심



☐ 대구지부-△이병택회원 /동원건축/대구중구동인 1 가293-3/44-4911

스서정백회원 / 새한건축 / 충구동인 1 가333 - 4 / 422 - 7744

△김희영희원 / 가야건축 / 중구덕산 동125-3 / 422-9979

△임봉수회원/남양건축/중구태평 보1가1-3/44-1544

△최 찬회원 / 동아건축 / 중구덕산 동125 - 3 / 45 - 3870

△이낙정회원 / 대영건축 / 서구평리 동1072-26 / 54~9955

스최병윤·박해권회원 / 우일건축 / 서구평리1072-26 / 54-7727

△송창섭회원 / 공간건축 / 중구삼터 1 가48 / 423 - 4022

△윤영도회원 / 한국종합건축 / 중구 덕산동127 - 10 / 45 - 6328

△이병일회원 / 극동건축 / 중구삼덕 1 가2 -8 / 45 - 4293

△ 감두영화원 / 연합건축 / 중구동인 1 가238-2 / 44-6727

□ 인천지부= △조남수회원 / 인우 건축 / 북구계산50부럭2-3롯트 / 522 -7849

□ 경기지부= △황재성회원 / 현대 건축 / 부천시원미동188 - 1 / 62 - 5398

△김현규회원/금목건축/서홍군수 암면고잔리171-11/6-5586

△이인구회원 / (주) 정립건축 / 시흥 군군자면원곡리779 - 3 / 6 - 1979

△박상두회원 / 삼원건축 / 안양시안 양동491 - 4 / 2 - 7613

□ 제주지부= △고영충회원/대성 건축/제주시2동1동1259-3

□ 부산지부= △지 택회원/지택 건축/부산진구부전동 347-23/88-4403

△오천복회원 / 락원건축 / 남구남천 동8 - 8 / 622 - 6660

△박명수회원 / 아제아건축 / 남구남 천동88 / 623 - 9990

△한기종회원 / 한창건축 / 중구부평

동 1 가37 / 23 - 1447

△강영기·김팔호회원 / 신도신종합 건축 / 중구남포동 6 가70-2 / 22-41 51, 23-3661

□ 서울지부= △김형석회원 / 건축 문화설계 / 종로필운동278-5 / 725-1377

스이강식회원 / 주·완종합건축 / 강 남서초동767 ~ 3 / 583 ~ 4141

△김희중회원 / 주·완종합건축 / 강 남서초동767 - 3 / 583 - 4141

△장민수회원 / 동남종합진축 / 강남 삼성동49-10 / 566-6510

△박수길회원 / 한성건축 / 강남삼성 동1-4 / 567-0660

△이상수화원 / 주. 선진엔지니어링 / 강동잠실동40-1 / 414-5301

△오후영회원/미진건축/영등포당 산 3 가270 / 633 - 1659

△민중식회원 / 건축연구소내외 / 강 납서초동26-3/557-8880

△송이호회원 / 건축연구소내외 / 강 남서초동26 - 3 / 557 - 8881

△황범구회원 / 세광건축 / 영등포당 산 3 가244 / 634 - 6879

△이근주회원 / 범한건축 / 중구예관 동70-7 / 267 - 0467

△김상환회원 / 동원건축 / 강남방배 동2422 / 582 - 1430

△이상신회원 / 신건축 / 관악봉천동 863 - 13 / 878 - 3964

△김영규회원/삼호건축/동대문신 설동101-7/94-9494

△박배원회원 / 우림건축 / 종로창성 동131 / 723 - 4410

△이세훈회원 / 건축연구소세하 / 관 악봉천 4 862-9 / 877-1550

△차동명회원 / 하나로엔지니어링 / 종로종로 3 가16 / 765 - 4505

△최영집회원 / 건축연구소탑 / 종로 중신동60 / 762 - 3721

△김방부회원 / 주·선진엔지니어링 / 강동잠실동40-1/414-5301

△신국범회원 / 주·선진엔지니어링 / 강동잠실동40-1 / 414-5301

△김재정회원 / 하나로엔지니어링 / 종로종로 3 가16 / 765 - 0042

△유흥규회원 / 뉴서울건축 / 중구장 충동 1 가61-1 / 274-1701

△오기수회원 / 오기수건축 / 종로운 니동98-78 / 741-3701

△이철호회원 / 승창건축 / 강남청담

동133-6/543-8875

△홍승균회원 / 한이건축 / 성동구의 동252 - 109 / 446 - 6928

△오텍헌회원 / 태양건축 / 성동구의 동246 - 104 / 444 - 4200

△구용환회원 / (주) 안국종합건축 / 강동송파동19-3 /415-0008

△ 정 충조회원 / 대진건축 / 강서신월 동491 - 18 / 694 - 0643

△최태환회원/태립건축/강남서초 219-10/567-4126

△정원심회원 / 서울환경건축 / 강남 논현동117-3 / 544-3506

스이영근회원 / 건축연구소빛 / 경 🖻 방배동874 - 1 / 590 - 3712

△박영식회원 / 선진건축 / 강서신정 동987-7 / 604-6565

스심중섭회원 / 동원건축 / 동대문산설동103-3 / 253-3993

△정구은회원 / 삼예건축 / 강납청담 동67-2 / 543-1031

지하는 □ 경기지부-△장기택회원 / 한미건축/ 동두천시생연 등668-1/2.27일/2602

△임정남회원 / 곤일종합건축 / 광명 시광명동342 - 7 / 3. 5일/613-0945

□ 서울지부= △김치덕회원(주) 대 우엔지니어링 / 영등포구여의도동35~4 / 2. 29일 / 783~6281

전 출 □ 서울자부=△신경호회원 / 남서건축/동작구 상도동 370-2/3. 24일

△윤덕찬회원 / 한서종합건축 / 강남 구대치1동941-29 / 3.28일

△오중만회원 / 동신건축 / 종로구교 남동46 / 3. 16일

□ 경기지부= △이석구회원 / 조건 설합동사무소 / 안양시안양동634 / 3. 3일

△허명관회원 / 명륜건축 / 강남구삼 성동58 - 4 / 3. 2일 / 557 - 0780

서울지부=△김지태회원
 /삼아건축연구소/ 영애결
 홍/3.31일/목화예식장

□ 전남지부-△이계혁회원 /동방종합건축/광주시 북 구 유동112-11/2. 14일

코 그 부산지부-△조원식회원 /부친 회갑/자택/2.27